

보광 스님(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
서의 10보 1배'
비 나눔 원동력
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22일) · 주간

제1035호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말고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지정

배 아픈 개신교, 불교 폄훼 '눈살'

개신교계, 역명 반대 무산되자 봉은사 '흠집내기'

3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역명에 대한 개신교계의 도넘은 행태가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퇴휴)는 3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봉은사역명을 확정 · 고시한 것은 한국 전통문화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종교 간 갈등 양상으로 몰고 있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은 무책임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불교계의 성명 발표는 계신교계의 봉은사역명 확정 이후 진행된 지정 반대운동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은 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가 '역사에 인접한 고적이나 사적,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코엑스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100만 서명운동과 서울시 행정불복종운동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신교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명 결정 개입설과 불교 편향 정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봉은사 역명 제정 경과를 공개하며 "역명은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옛지명 또는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한다"며 "세 차례 심의를 통해 확정 · 고시한 것으로 역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라시대 창건돼 1200년 역사를 지켜온 봉은사는 조선시대 승과가 시행된 곳으로 서산 · 사명대사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의승군의 중심 역할도 했다. 그 역사성에 봉은초교, 봉은중학교, 봉은역사공원, 강남구의 대로 중 하나인 '봉은사로' 까지, '봉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만 해도 다수다.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봉은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만도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봉은사역 근방은 오래전부터 봉은 마을로 불려온 지역이며 역명 고유성과 지속성, 공익성에서 있어 검토된 사안"이라며 "역명제정 원칙과 예외사항을 명확히 해 향후 역명개정에 대한 논란 및 개정(병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지역 주민들과 자치구 지명위원회, 코엑스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1년 간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남구청이 2014년 1월 실시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는 봉은사역(60.5%)이 코엑스역(35%)을 압도적으로 앞선 바 있다.

공식적인 경로로 역명 변경이 무산되자 개신교계는 대대적인 불교 폄훼까지 나서고 있다. 순복음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중앙 일간지 '국민일보'는 3월 2일 '봉은사가 대표적인 친일사찰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사찰령'에 따라 지정된 31개 본산 중 한 곳이 봉은사였으며 이 당시 주지 4명이 친일승려로 거론되고 있다며 봉은사를 친일사찰로 규정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N사에서 벌인 봉은사역 지정에 대한 투표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이어졌다. 개신교 신자로 추정되는 이 모씨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통해 봉은사가 친일대표사찰이라고 매도하며 코엑스역으로 투표해줄 것을 전했다. 평균 1만명 수준인 이 사이트 투표는 마감 5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30만표가 넘게 몰리며 결국 코엑스역이 앞섰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된다, 안된다'를 다투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위로 우리 사회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봉은사는 한민족 역사의 일부로 문화적 가치도 많기에 이런 관점에서 역명지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종교 갈등 우려에도 개신교계의 불교 폄훼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으로 국민정서의 기초에 속한다"며 "개신교계가 역명지정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종교형평성에 국한돼 바꾸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서울시 특혜시비는 이를 제기함으로 인해 반대급부를 이용하고자하는 의도가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봉은사 관계자는 "친일사찰 폄훼에 관해서는 역사적 논거에 바탕을 둔 공식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봉은사와 신도들의 명예훼손에 관해 법적 대응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역명 관한 개신교계 '딴지'

광주 증심사 입구역 논란



광주지하철 1호선 증심사 입구역의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개신교계는 학동3거리역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장. 우여곡절 끝에 증심사 입구역으로 확정.

KTX울산역 통도사역 병기 논란



2010년 개통된 울산역은 당시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울산(통도사)역으로 병기하기로 함. 이후 개신교계의 집단적인 반발에 통도사 명칭 표기 삭제. 통도사 등 지역불교계 반발.

순복음교회 소유 국민일보
봉은사를 '친일사찰' 매도
한기총은 행정불복종 운동

실승 "무책임 행보" 비판
봉은사, 친일 반박 나설 듯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조계종 관련 법인 197곳 중 111곳(56%) 등록 완료

조계종 총무부, 3일 법인 등록 현황 발표

조계종이 지난 2월 28일까지 법인들에 대한 종단 등록을 시행한 결과 총 111개 법인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부는 3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관련 법인에 대한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97개 법인 중 111개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이는 전체 법인 중 56.3%가 등록한 수치다.

관심을 모았던 사찰보유법인인 성륜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한마음선원, 불교문화진흥 성찬회, 불교안양원, 연화 등 8개 법인은 등록을 완료했으나 송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보선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선학원, 보리동산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사찰법인은 총 7개의 대상 법인 중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등 4개 법인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승려법인 64곳,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종단법인 6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에 의한 유예기간이 2월 28일자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법인에 대한 종단 차원의 제재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승려복지 혜택, 교육기관 입방,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법등 스님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선학원과의 진정성있는 대화를 위해서 6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한 만큼 제재 조치는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석심 총무차장은 "2014년 이후 법인 관련 현황부터 등록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60%에 육박하는 법인 등록이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등록법인 상당 수가 법인 등록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문과 통화, 방문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35호 INDEX

시방세계 5
활동 종료 원각사 무료급식 현장



학술 · 문화재 9
화쟁아카데미 '경계 너머' 포럼

맑고 밝은 눈을 원하십니까?
• 진료과목
초음파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
(토릭,레스토토릭)
당뇨 망막 / 녹내장
사시 / 콘택트렌즈
• 진료시간
평 일 09:00-18:30
토요일 09:00-16:00
파주 서울안과
Seoul eye clinic
상담 전화 031)948-2588



해제… 지혜의 걸망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반과 함께 걷는 깨달음의 길에는 끝이 없었다. 3월 5일 동안거 해제를 기해 겨울 한철 석달간 안거 정진을 마친 수좌 스님들이 다시 만행의 길에 올랐다. '북 마하연, 남 운문' 중 운문선원이 있는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선원에서 안거에 든 수좌 스님들은 마지막까지 은산철벽을 부수기 위한 정진을 거듭했으며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도 수좌들과 함께 탁마의 길을 걸었다.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등 조계종 총림과 전국 100여 선원들도 같은 날 갑오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열고 석달간의 용맹정진을 마무리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정리한 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98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총 2,196명(총림 302명, 비구 1,117명, 비구니 777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 백양사=노덕현 기자

동안거 해제 방장 법어 및 백담사 무문관 해제 현장 8 · 12 · 13면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h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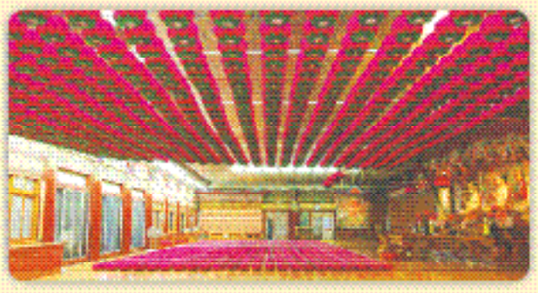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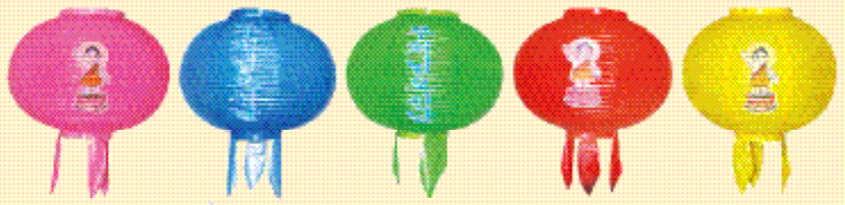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68번길 27

양분된 동국대 총동창회 통합된다

3월 4일 원용선 · 박종윤 회장 양측 합의

양분돼있던 동국대 총동창회가 1년 만에 재결합된다. 원용선 회장 측과 박종윤 회장은 3월 4일 회동을 갖고 회장추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의 통합은 박종윤 총동창회 회장이 4일 서울 백상빌딩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해 통합을 제의한 데 이어 원용선 총동창회 회장이 이를 수락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회장은 먼저 준비한 합의문을 통해 △고문단의 회장후보 추대위 구성 △3개월 내 회장 추대위의 후보자 추천 △차기 회장 선임까지 박종윤 회장의 직무 수행 및 총회 의장 담당 △회장 추대위 활동 시점부터 모든 소송 취하 △차기 회장에 일임해 집행부 구성 △사무실 및 회보 통합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모교가 개교 이래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총동창회가 양분돼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원용선 회장은 "학교가 잘되고 동창회가 잘되자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냐"며 "원만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용선 회장 측 정환민 사무총장은 "예전부터 사무실 통합을 비롯한 통합은 박종윤 회장 측에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신임회장 선출 과정 및 회장 직무수행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종윤 회장 측 최창동 사무총장도 "이번 통합 제의는 합의를 통해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1달 뒤라도 바로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 합의에 이어 이운영 동국대 살리기비상대책위원장이 총장 선출 파행 관련 학교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운영 동국대살리기비상대책위원장은 동국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비대위 주요활동을 설명 한 뒤 "그동안 동창회가 둘로 갈라져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못해 비대위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며 "동문 통합으로 25만 동문이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 측은 "비대위가 옳은 일을 하면 최대한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가 총동문회 활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이사장직 인수위 구성

위원장 명신 스님 위촉… 학교에 협조 공문

동국대 신임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적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자 일면 스님 측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동국대 이사장직 인수위원회는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인수위원장 명신 스님과 부위원장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를 제외한 인수위원 위촉식이 이뤄졌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명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일면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그간 동국대에는 이사장직 인수위원회가 없었지만 여러 난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인수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인수위원회가 잘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는 난색을 표하고 "발족한 것을 알리는 자리라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무법인 지후의 법률 자문을 이사장 적법 선출의 자료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가 동국대 법인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업무방해죄' 등의 불법 행위임을 적시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 측은 "회신 공문은 학교에 확인할 부분이다. 우리는 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뿐"이라며 "사무실 퇴거까지 이야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NGO모니터단 4기 구성

집행위원장에 김종규 원장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를 모니터링해 온 종회 NGO모니터단 4기가 구성됐다. 집행위원장은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맡았다.

모니터단은 제4기 요원으로 7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참관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모니터단은 "종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종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신도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열린 종단, 소통하는 종단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국유림 점유 합법화 길 열리다

국회, 3일 '국유림법' 개정… 신고 후 임대 가능

기존 임대금지 조항 변상금 부과
임대 · 교환되면 사찰 피해 줄어

전통 사찰 등 종교 시설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계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교시설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점유한 국유림과 토지 교환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등이 종교용 시설부지로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하 국유림법)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유림법에는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은 일부 공공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등을 금지돼 있었다. 일부 사찰들은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요존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다. 이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와 정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 등 사찰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국유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 시설부지,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용도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2년 이내 자진신고하고 산림청장이 심사하여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 2000㎡(605평) 이내까지 대부계약이 가능하며, 전통사찰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전통사찰이 점유한 국유림이 2000㎡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이내까지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계약은 법 시행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아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개정으로 요존국유림에 대한 무단점유지라도 기준에 적합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부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토지교환도 가능하여 사찰의 보호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많은 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실은 재무부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무단점유지 현황을 조사하고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사찰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자진신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2,000㎡를 초과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있는 전통사찰은 개정된 국유림법의 시행 전까지 해당 점유지를 포함해 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국유림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방문단은 3월 1일 레바논 동명부대를 격려 방문하고 세계 평화법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 레바논 평화를 기원하다

자승 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 1일 동명부대 방문

한국불교계가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레바논 동명부대를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방문단은 3월 1일 레바논 동명부대를 격려 방문해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과 만나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 했다.

자승 스님은 동명부대 군법당(호국 동명사)에서 장병들과 함께 한 법회에서 "레바논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자 장병들에게) 이웃을 소중한 인연으로 품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유엔평화유지군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 장병들도 함께 세계 평화를 발원했다. 함남규 동명부대장은 "부대에 큰 힘이 되어 감사드린다"며 "더욱 정성을 다해 임무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승 스님은 부글리야 모스크를 찾아 미드라드 합발 수니파 무프티(이슬람 고위 종교지도자)와 환담을 가졌다. 미드라드 합발 수니파 무프티는 "불교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불교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부르글리야 지역 현안 문제인 공동묘지 부지 매입을 위해 불교계에서 4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부르글리야 시청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동명부대 물품 공여식에 참석, 하산 압둘라 시아 무프티, 미카엘 아브라스 로마가톨릭 대주교, 나빌 하지 마론 가톨릭 대주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평화 안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조계종 방문단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육군사관학교 군종실장 함현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이 동행했다.

레바논은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등 18개 종파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간 대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날 방문한 동명 부대는 레바논 티르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감시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종단차원의 해외파병부대 방문은 2005년 민간지도자 중 최초로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신성민 기자

3.16 비구니 결의대회 장소 놓고 갈등 고조

열린모임, 법룡사 사용 불허 반발

오는 3월 16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이하 열린모임)의 결의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룡사 사용을 놓고 전국비구니회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열린모임은 3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비구니회의 법룡사 사용 불허 방침에 대해 성토했다.

열린모임은 지난 2월 26일 법룡사 사용에 대한 공문을 전국비구니회에 보냈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는 회신 공문을 통해 "(열린모임이)법룡사 법당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경우 대내외적으로 비구니회의 명예와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법당 설립 및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장소 허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열린모임은 "결의대회 장소 불허 방침을 알려온 것에 대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실망과 격분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3월 16일 결의대회에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며 비구니회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구니회임을 대중의 힘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성토했다.

열린모임 공동대표 임대 스님은 "결의대회는 예정된 장소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운영위원 선출 시스템과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재선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의대회 동참만으로 전국비구니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전국비구니회에 바란다

雪後始知松柏操 눈 온 뒤 비로소 송백의 지조를 알 수 있고
事難方知丈夫心 일이 어려워야 장부의 마음을 알 수 있네

불교의 정신이 늘 그래왔듯이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중생교화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생교화에 앞서 출가사문은 먼저 인천의 스승이 되는 위의와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비구니 승가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대들은 과연 청출어람이로다.
하지만 부처님의 전법교시처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좋아야 한다.
반드시 慈悲喜捨의 정신아래 서로 공생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대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다시 한번 비구니들이 청정승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국비구니회관을 설립하고 전국비구니회를 발족시킨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단, 결의대회가 아름다운 회향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비구니회 회장의 지혜로운 결단과 책임이 요청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기 2559(2015)년 3월 6일

|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원로 | 명성 경순 법운 진관 경희 대인 묘관 재희 정륜 경심 자광 정수현 혜명 〈무순〉

“국제구호, 불교계 협의체 필요하다”

〈불교평론〉 61호 ‘한국불교 국제구호’ 특집
이용권 관장 구호활동 과제와 방향 제언

동남아 지역 주민 서비스 사업에 머물러 있는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협력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특집으로 마련된 〈불교평론〉 61호에서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 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는 1990년대 5개에서 2010년 이후 35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 국한돼 있다. 이 관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대부분 의식주 해결 수준의 자선사업에만 머물러 있다.

이 관장은 “한국불교계는 대부분 국내복지사업의 부가활동으로 국제구호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선행사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서구 단체들이 현지 주민단체와의 파트너쉽으로 구호사업을 진행하며, 직업교육 등 지역사회 구조변화에 나서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선사업 위주의 구호활동은 해당국가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또 불교적 가치를 살리는 고유의 활동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관장은 “이는 많은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국제구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초기 재정확보나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현장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또 국내 단체들 간에도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가칭) ‘불교 국제개발 협력협의회’ 구성을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35개 단체, 동남아 자선사업 위주
서구단체는 주민단체와 파트너쉽
이웃종교는 연합기구 구성 체계화

이 관장은 “2011년 더프라미스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과정’을 공개하고 2013년 더프라미스와 로터스월드가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를 구성, ‘현지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것이 좋은 예”라며 “불교 구호단체들의 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간 협력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체 위주의 기독교 구호

〈불교평론〉 ‘국제구호’ 특집에는 이웃 종교계의 국제구호 현황도 함께 실렸다. 국제구호의 역사가 깊은 기독교계는 이러한 불교계와 달리 이미 다양한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가톨릭은 국제카리타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계 20여개 국제 카리타스 중 하나인 한국카리타스는 2004년 방글라데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장기복구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 수도회 22%, 사도직단체 18%,가 참여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해외원조사업 822개에 총 406억 여원을 지원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구호활동이 진행되기에 초기 사업진행이 원활하며 구호단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종건 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 사무총장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해외원조는 22년째로 매년 해외원조가 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연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하지만 그 중심축이 되는 것이 한국가톨릭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가톨릭은 연 1회 ‘해외원조 주일’을 시행하고 신자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 개신교도 개별 교회에서 진행되는 자선사업과 별개로 재난재해 시에는 연합재해구호기구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승렬 목사의 ‘한국 개신교회의 해외재해구호 활동’에 따르면 개신교계는 필리핀 하이엔 태풍피해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연합(CCIK)의 주도로 50여개 이상의 교단과 NGO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재해구호기구를 결성해 12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지역구호 사업시 유관단체와 연계해 농사훈련, 시범농장 경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기구에서는 공동으로 해외구호 매뉴얼을 개발해 선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이승열 목사는 “구호사업 중 특히 재해구호사업은 종교적인 가치관을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기에 연합활동이 활발하다”며 “생태계 보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분야에서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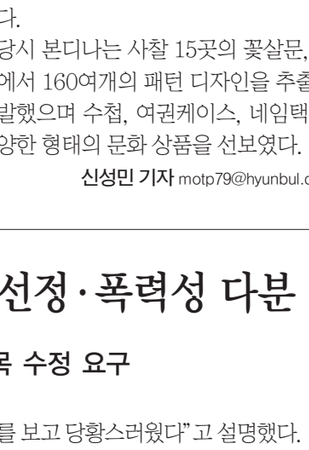
한편, 이번 ‘국제구호’ 특집에서는 임연태 금강신문 편집주간이 ‘해외구호활동에 나서는 한국의 불교종단’을 정리했으며, 지구촌공생회(김종만), JTS(이학종), 로터스월드(정성운), 해외불교단체(이혜숙) 등의 활동을 밀착취재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교종단의 국제구호는 조계종의 아름다운동행과 사회복지재단, 태고종의 나누우리,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 진각종의 JGO 등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교육과 한국문화알리기 분야서 전개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전통문화, 디자인을 입다

문화사업단, 2차 문화콘텐츠 개발

사물 · 사천왕 · 전각 · 탑 등서
전통 문양 패턴 추출해 디자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발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디자인.

사물 · 사천왕 · 전각 등 불교문화재가 현대적 디자인을 입고 대중에 선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는 3월 4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2차 문화콘텐츠 개발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디자인 개발 사업은 전통문화콘텐츠 활용과 템플스테이 패밀리브랜드 ‘아생여당’ 캐릭터 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사천왕, 사물, 탑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 패턴 개발 70종 △사찰의 건축물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개발 147종 △아아, 생생, 여여, 당당을 컨셉으로 한 캐릭터 응용동작 개발 83종이 새롭게 개발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발을 맡은 전통문화콘텐츠 활용 부분은 사물, 사천왕 탑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모사도를 작성한 뒤 패턴을 추출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아아, 생생, 여여, 당당 템플스테이 캐릭터에는 시놉시스와 성격이 추가됐다. 83종의 다양한 응용동작들을 통해 캐릭터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됐으며 △프로그램 △엠블램 △이모티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디자인 개발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성을 내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개발된 전통문양 콘텐츠, ‘아생여당’ 응용동작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5월 한국불교문화의 고유한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정체성 확보 및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불교문화상품 전문 브랜드 본디나(VONDINA)를 런칭한 바 있다.

당시 본디나는 사찰 15곳의 꽃살문, 단청에서 160여개의 패턴 디자인을 추출 · 개발했으며 수첩, 여권케이스, 네임택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상품을 선보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파견 · 하청 등 노동자 피해 확대 우려”

노동위, KTX승무원 판결 유감 성명

KTX 승무원 해고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위는 여승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철도유통에 소속돼 있어 코레일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2004년 입사시 코레일이 직접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실시한 점, 이후 근무처가 철도유통과 관광레저로 이동될 때도 코레일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승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도급, 하청, 파견과 외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KTX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펼칠 직접고용 운동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지관 스님 문자사리 ‘가산대사림’ 15권 발간

‘심로절’(心路絕)부터 ‘엄흔’(嚴欣)까지 총 6865개 표제어 수록


최근 발간한 ‘가산대사림’ 15권

前조계종 총무원장 가산(伽山) 지관 스님(1932~2012)이 설립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최근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제15권을 발간했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지관 스님이 남긴 위대한 문자(文字) 사리”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불교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15권에는 ‘심로절’(心路絕)부터 ‘엄흔’(嚴欣)까지의 총 6865개 표제어가 수록됐다. 대표항목으로는 십이연기(十二緣起), 십지(十地), 쌍계사(雙磎寺), 아뢰야식(阿賴耶識), 아미타경(阿彌陀經), 아미타불(阿彌陀佛), 아비달마(阿毘達磨), 아트만(Atman), 아함(阿含), 약사여래(藥師如來) 등이 있다. 15권은 원고지 매수만 2만 162매이며 지관 스님이 써놓은 원고를 토대로 전공별 전문연구자 40여명이 추가 항목 발굴과 구성, 편수와 교열, 윤문 등을 했다. 연인원은 14600명에 달한다.

지관 스님은 1982년 “한국정신사의 자존을 일깨우고, 나아가 한국의 불교술어의 일차 결집이라는 사명 아래 소중한 결과물이 되도록 정진하겠다”는 ‘불교대사전편찬발원문’을 짓고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1991년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15권 원고 2만매… 전문가 40명 참여
2022년까지 총 22권 편찬 계획

설립해 1999년부터 1~2년에 한 권꼴로 〈불교대사림〉의 완간을 보지 못한 채 제13권 작업을 끝으로 2012년 1월 입적했다. 하지만 마지막 ‘ㅎ’ 항목까지 15만개에 달하는 주요 표제어에 대한 원고를 만년필로 원고지에 직접 써서 마무리해둔 상태였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2019년까지 본책 20권을 펴내고 2022년 색인 및 연표부, 보유편 2권을 출간해 총 22권의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항심(恒心)으로 고군분투하라 항심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饒益衆生) 원력(願力)과 함께할 때, 세간(世間)은 불멸(不滅)의 공덕을 얻는다’고 하신 가산 지관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변함없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화 제목 ‘갓바위’ 인데 선정·폭력성 다분

시사회 참석한 대구불교계 공분… 제목 수정 요구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아 제작한 영화 ‘갓바위’가 선정성 논란이 일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는 지자체에서 6억원을 지원받아 영화 ‘갓바위’를 제작 지난 2월 25일 대구 만경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를 관람한 지역 불교계 측은 영화 제목과는 달리 선정성과 폭력성이 농후한 내용으로 채워져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주지 성본)는 현재 예산을 지원한 경산시, 대구시, 경북도청과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에 각각 제목 수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선본사 주지 성본 스님은 “처음에는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고 하니 계속 미뤘다”며 “결국 관할시청에서 예산지원을 했다고 해서 촬영을 허가해 주었는데 시사회를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내용이 갓바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해 불편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갓바위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 영화 제목 수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제목 수정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지역에서 최초로 제작한 영화인만큼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제목에 대해서는 제작사측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를 제작한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는 ‘영화를 영화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정병원 대구경북지회 실무부회장은 “영화가 우려만큼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지 않다”면서 “수일 내에 선본사 스님들을 찾아 뵙고 제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일 주 문



법계장학금 전달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3월 2일 운문사에서 법계장학회 장학금으로 7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전달했다.



논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3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 법회를 봉행한다.



광덕 스님 16주기 추모법회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3월 2일 불광사 대웅전에서 광덕스님 1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기본교육생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14일까지 조계사 기본교육 8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 8만원. (02)768-8580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봉행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2월 28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을 열고, 불교학과 1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명상상담대학 1기 입학식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학장 월도 스님은 3월 1일 대광사 대불보전에서 105명의 신입생이 참여한 가운데 명상상담대학 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대구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3월 12일 대구큰절과, 국내 8개 도량, 중국 등 해외도량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정각회 법당 이전 법회

강창일 국회 정각회 회장은 3월 6일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새법당을 마련하고 이전법회를 개최했다.



군불총 창립 15주년 법회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은 3월 13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영정사진 무료 촬영

전제우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장은 3월 15일 오후1시 불교TV 무상사에서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들과 어르신 무료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불교 바르게 알기' 학교서부터"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장 추대된 법안 스님



"불교를 구시대 유물로 보는 교과서 內 기술 바로잡겠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 진행

관련 연구재단 · 발행사 전달

"불교는 한국의 민족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 · 문화의 보고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있게한 정신문화의 한 축이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불교를 박제화된 유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법안 스님〈사진〉은 이 같이 포부를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는 초중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기구로 종단적 대응 기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으로 법안 스님을 선임했다.

초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법안 스님은 교과서 내 불교 기술의 오류는 많이 바로잡혔지만 민족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는 한반도 도래 이후 문학과 역사, 사회,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월계(越戒)를 무릅쓰고 민초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호국불교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박합니다. 신라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의승군들의 호국불교 정신은 현재 학생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학생들은 불교를 구시대의 유물, 산중사찰로만 생각합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부터 올바른 불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우선 2016년판 인쇄용 교과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교육부 산하 교과서연구재단과 발행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이경훈 한국교사불자연합회장, 이학주 전국교법사단장, 심익섭 전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한기 은석초 교장,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김화연 서울디자인고 교사,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정호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오는 3월 12일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사회연구소와 불광연구원은 오는 6월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향후 교과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교사용 워크북을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과서 개정과 더불어 교사들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교에 대한 추가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워크북을 개발해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불교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성민 기자

"불교 소장학자 육성에 힘쓸 것"

최종남 제 9대 불교학연구회 회장



2월 1일 제9대 불교학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종남 학회장(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 사진)는 학회가 열린 토론의 장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학회장은 "전국 300여 교수들의 연구의 터미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교학을 함께 토론하는 문화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최근 디지털화에 힘써 학회지를 웹진 형식으로 보급하는 한편,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에서 나선바 있다. 최 학회장은 "시대변화와 함께 학회도 변화해야 한다"며 "전공과 연령의 벽을 넘어 많은 학자들이 함께 다양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3월 28일 춘계논문발표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춘계학술대회 등 2015년도 일정을 시작한다. 논문발표회는 기성학자들 위주가 아닌 소장학자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최 학회장은 "특히 논평을 중시하고,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학자들간의 교류가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남 학회장은 1987년 일본 사천왕사대 불교학과를 졸업 한 이후 1992년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인도 · 문화역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1998년 동대학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인도철학회 부회장, 한국불교학회 이사로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3·3 운동으로 조직 활성화"

대불련 총동문회 3월 1일 조직 발전 계획 선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련총동문회)가 3 · 3 · 3운동을 시작한다. 3 · 3 · 3운동은 대불련과 대불련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이 세 박자를 맞춰 연계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 회장은 3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3 · 3 · 3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백 회장은 "대불련과 대불련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세 단체가 2017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3000명 동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300개 대학에 동문지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불련총동문회는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회 준비사업단을 발족하고, 50년사를 편찬하며, 대불련 발전위원회 모금 CMS 1000구좌를 개설해 적극적인 모연에 나설 계획이다. 백 회장은 "캠퍼스포교 종합 메뉴얼 구축 등 지원사업에도 3천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동문회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선학승가대학원 졸업식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3월 4일 명월료에서 제1회 선학승가대학과 대학원 졸업식을 열고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법문에서 "졸업은 학문을 연구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앞으로 금오선사의 업적을 끊임없이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석재 스님이 대학원장상을, 동명 스님과 본허 스님이 표창장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 입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3월 5일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에 입재했다. 이번 대정진에는 1600여 명이 접수했다. 봉은사는 이날 입재식에 이어 매달 음력 보름 오후 1시 산문을 닫고 '금강경' 3독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참불자들은 각 가정에서 매일 3독씩 총 3000독을 하게 된다. 봉은사는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 기도를 상시접수한다. 가입비 10만원으로 매월 2만 원씩 동참금을 접수를 받는다. 동참자에게는 기도책 등이 제공된다. (02)3218-4800

노덕현 기자

대구 경북, 정월대보름 행사 다채



3월 5일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가 경주 감포 나정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 맞이 방생대법회

민족 고유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구 · 경북 지역에서 관련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3월 5일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경주 감포 나정 해수욕장에서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대구 법왕사도 같은 날 경내에서 달집태우기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영천 은해사도 스님들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윷놀이 대회를 열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 한국불교 미륵종 임시총회결과 공고

(사) 한국불교 미륵종 정관 제2장 6조와 7조 3항의 규정 제4장 제18조 제19조 제20조 3항에 의하여
2월 13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포한다.

2014년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63명중 45명 참석과 서면위임장 7명을 포함한 5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상정사항

1. 중앙종의회 구성
2. 감찰원장 선출
3. 종정 불신임안
4. 법인이사 해임 건
5. 기타안건

1. 중앙종의회 구성은 지역안배와 재가승을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2. 감찰원장은 2명이 추천되어 경선결과 혜도스님이 선출 되었다.
3. 종정 불신임안은 오늘의 종단사태를 야기시킨 장본인인 무불 법상스님 (인터넷 카페 향불회 회주)은 법인 이사들의 불법적인 결의로 종단 승려 17명이 제적 처분 되는 상황에서도 화의 또는 중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유감표시도 없이 오히려 법인 이사들 편에 있는 스님이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스님이 한목소리로 종단의 최고 존엄의 어른스님으로 모실 수 없음을 발의 하여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통과 되었기에 이 시간 이후부터 무불법상스님은 더 이상의 본 종단의 종정이 아님을 천명한다.
4. 법인이사 해임건은 이번 사건을 유발시킨 불법적인 정관변경 사유를 들어 해임 발의에서 51명 찬성 1명 반대로 현 법인 이사들을 해임표결 하였음을 알린다.
5. 기타 해임건에서는 법인 이사들의 불법적인 결의로 제적된 17명 스님들의 제적처분사항은 복적이 아니라 원천 무효로 한다.

2015년 3월 4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대행 영빈



3월 1일 찾은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이날에만 195명의 어르신들이 다녀갔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3월 2일 마지막 급식을 진행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한 어르신이 식사 전 부처님께 합장 삼배를 하고 있다.



3월 1일 찾은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의 밖 풍경. 연중 무휴 운영했던 급식소에는 평균 150명 이상이 찾아 배식 시작 전 부터 장사진을 이룬다.



배식 봉사를 진행하던 보리 스님의 모습. 지금은 투병중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장 오래 봉사를 진행한 강영순(75) 씨가 나가는 어르신들에게 귤과 떡을 주고 있다.

탑골 무료급식 22년, 역사의 뒤안길로

활동 마무리하는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탑골공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커다란 노인정이다. 무료 지하철을 타고 나와 탑골공원과 조계사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라고 말하는 어르신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2000~3000원 대의 저렴한 식당과 이발소 등이 공원 인근에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어르신들은 탑골공원 인근 골목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원각사'로 모여든다. 매일 낮 12시 무료 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많이 들린다는 3월 1일에 찾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는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어르신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낮 12시 무료급식이 시작되자 원각사 법당은 곧 어르신들의 차지가 됐다.

이날 메뉴는 비빔밥. 봉사자들이 수북이 밥을 퍼 그릇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드리면 이들은 이내 자리를 잡고 맛있게 비벼 먹는다. 냉면 그릇에 가득한 고봉밥도 모자라 "더 달라"고 성화인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 8년째 이곳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한 어르신은 "서울 사대문 안에 이 정도 수준의 밥을 매일 무료로 주는 곳은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날 봉사는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봉사자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모두 순수하게 봉사가 좋아 원각사 무료급식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배식 봉사 이외에도 질서 정리, 설거지 등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한다.

문 닫는 노인 포교 전진기지

이렇게 22년째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던 자비와 온정의 원각사 무료 급식은 3월 2일로 마무리됐다. 무료 급식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을 책임 졌던 주지 보리 스님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현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임대차 만료도 3월 8일부로 끝이 난다.

보리 스님이 무료 급식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포교의 일환이었다. 1993년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새겨진 경구의 의미를 알리려던 보리 스님은 공원 인근에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을 발견했다. 곧 스님은 탁발을 시작했고, 모인 시주금으로 노인들에 빵을 사서 대접했다.

불자들이 한두 명씩 무료 배식에 동참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국수를 삶아 배식하기 시작했고, 1998년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으로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월세로 건물 2층을 구해 법당을 만들어 지금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원각사에는 평일 100~150명, 휴일 250~300명의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다. 일주일 평균 1000~1350명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5만~7만 명에 이른다. 보리 스님은 20여 년을 매일같이 해왔으니 1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이 같은 무료급식은 정부 지원없이 기부금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사팀은 30여개. 스님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어렵게 무료배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동참했고 이중에는 불자 법조인들의 모임인 '서초반야회' 도 있다.

봉사자들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1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들도 상당수다.



원각사 무료급식소 외관. 주지 보리 스님의 원력으로 22년 동안 무료급식이 진행됐다.

3월 1일 급식 현장 가보니
195명 노인 빽빽이 장사진

50대에 봉사 시작한 보살은
이제 노구 이끌고 현장 지휘

주지 보리 스님 건강 악화로
3월 2일로 마지막 급식 진행

자비 온정 담겨진 밥 한그릇
어르신 허기 · 마음 달랜 쉼터
"이제 어디 가야하나" 한숨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곳

스님의 원력과 봉사자들의 마음이 합쳐져 20년 무료급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봉사자 중에는 초창기부터 20년동안 매일 봉사를 해 온 터줏대감도 있다. 1일 봉사 현장에서 만난 강영순(75) 씨가 대표적인 봉사자다.

강 씨는 "스님이 공원에서 빵 나눠줄 때부터 같이 봉사를 했다. 당시 나이가 50대였는데 이제 나 역시 70대 노인이 됐다"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봉사하면서 잊으려고 했다. 봉사가 있어서 힘든 일을 견디고 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 씨는 "공식적 급식 봉사는 3월 2일까지다. 지금 감정을 말하자면 아쉽고 허무하다"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번호표 발급 및 회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신원창(80) 씨는 원각사 무료급식을 먹으러 왔다가 봉사자가 됐다.

5년 동안 매일 나와 봉사하는 신 씨는 급식소의 수문장이자 가장 성실한 봉사자 중 한 명이다. 오전 7시면 원각사로 와서 국거리를 만들고 반찬 준비를 하고 쌀을 씻어 놓는다. 급식이 시작되면 외부 질서 정리를 도맡는다. 80세 어르신에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습관이 돼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신 씨는 "밥 먹으러 왔는데 매번 그냥 가기 미안해서 봉사를 시작했다"면서 "5년을 하루 같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좋은 소일이었고 실제 보람도 많았다.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2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은 매일 밥을 먹었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다. 인근에 개신교계의 천사 급식소가 있지만 목, 금, 토요일에만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은 소정의 식사비를 받는다. 또한 명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아 언제 어느 때나 점심시간에만 맞춰오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영근(80) 씨는 "거의 매일 들렀다. 오늘도 잘 먹고 간다"면서 "이곳이 없어지면 노인들이 갈 곳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진배없다. 스님이 빨리 쾌차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연(71) 씨는 "원각사에서 밥 먹고 공원에서 쉬다가 집에 가는 것이 일과였다"면서 "때때로 인근 복지관에도 가지만 돈을 받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원각사는 단순히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아니라 노인들의 좋은 쉼터였다"고 평가했다.

원각사 주지 스님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노인들을 22년동안 무료로 대접하는 것이 쉬운 줄 아느냐"고 되물은 유진영(74) 씨는 "스님은 빈 목탁을 친 것이 아니라 공덕 회향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 것이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우리 노인들을 '희망'이라고 했고, 합장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내 뜸해졌다. 3월 1일 다녀간 어르신들은 모두 195명이었다. 이날은 특별히 떡과 귤이 후식으로 제공됐다. 받아가는 어르신들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떡까지 있네. 언제 다시 오누"라고 아쉬워했다.

원각사를 뒤로 하고 나오니 탑골공원에서 한바탕 농악마당이 펼쳐졌다. 어르신들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사찰 봉사단에서 사용하는 소형 트럭에 새겨진 문구가 눈을 사로잡는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어 구제공덕하였는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6회 만해백일장 한채령 만해대상 수상

대불청, 전국만해백일장 개최…1500여명 응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3월 1일 동국대에서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제36회 전국만해백일장에서 한채령(서울 진명여고 1학년) 학생이 만해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3월 1일 동국대에서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만해백일장에는 전국 초중고 청소년 · 일반인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지우개' '편의점' '아이디' '만세소리' 등 시제를 시 · 시조 · 산문분야로 나누어 실력을 뽐냈다.

만해대상을 수상한 한채령 학생은 '유행에 뒤처진 사람' 을 제목으로 산문을 써 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으며 이현주(청주중앙여고 1학년) 학생은 '지우개' 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만해상(국회의장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조혜주(한예종 1학년)씨와 송은서(세종중 1학년)학생이 장원을 수상하는 등 총 130명의 응시자가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나은 기자

제20기 포교사고시 실시…941명 응시

3월 13일 결과 조계종 · 포교사단 홈페이지 발표


포교원은 2월 28일 서울 동국대 등 8개 고사장에서 '제20기 일반포교사고시' 를 실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8일 서울 동국대와 강릉여고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제20기 일반포교사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고시는 102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서류전형 탈락자와 결시인원을 제외하고 총 941명이 응시했다.

필기고시 결과는 3월 13일 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4월부터 7월까지 2차 포교활동평가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품수식은 9월 중 일요일에 봉행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제1회 명상지도자 지도사 특별과정 개설

불교상담개발원, 삼보사서 3월 25일부터 진행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제1회 명상지도자 · 지도사 특별과정을 개설한다.

조계종 종단이 인가한 최초 명상지도과정인 이번 과정은 오는 3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 · 토요일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진행된다.

마가 스님, 월호 스님, 김호귀 교수, 정준영 교수, 용타 스님, 인경 스님 등이 강사로 △명상의 이해와 원리 △위빠싸나 · 사마타 이론과 실습 △묵조선 △뇌와 명상 △자애 명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스님 이상, 불교상담대학원 재학생 이상, 전문포교사, 일반포교사(졸업예정자), 명상상담 관련 분야 대학원 재학생 이상, 본원이 인정하는 학회나 기관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과정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자격증인 명상지도자 2급(스님), 명상지도사 2급(재가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표상으로 우뚝 선 명상리더의 실질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筆寫 流行… 집중력과 경전 이해력 높여

〈필사 유행〉

작가의 작품을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것을 필사(筆寫)라고 한다. 과거에는 문학도가 문장력을 키우기 위해 주로 했던 필사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순원(33 · 여) 씨는 매일 꾸준히 20~30분씩 소설 〈무진기행〉을 필사 하고 있다. 예쁜 표지의 노트 위에 필기감이 좋은 펜으로 문장을 음미하며 또박또박 글을 써 내려간다. 정 씨는 소설뿐 아니라 심리학, 철학 등 인문학 서적을 읽고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필사했다. 그렇게 해서 쌓인 노트는 10권이 넘는다.

정 씨는 "작품을 쓰면서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보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력을 길러줘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하던 필사는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로 사경(寫經)이다. 사경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토록 해 염불 · 절 · 참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꼽힌다.

경전을 옮겨 적는다는 의미의 사경은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경전을 베껴 책을 만들어 유포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사경의 시초는 패엽(貝葉)에 범어를 기록한 패엽불전(貝葉佛典)이다. 기원전 후 인도 서북부에 일기 시작한 대승불교 운동은 재가신도의 신앙과 보살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불경유포를 위해 사경 공덕을 강조했다.

"사경의 공덕이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수승하다(도행반야경 탑품)."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사경 수지 해설하면 대원을 성취한다(법화경 법사공덕품)." "무수한 세월 동안 물질로 보시한 공덕보다 경전을 사경, 수지 독송해 다른 이를 위해 해설한 공덕이 수승하다."

이처럼 경을 외우고 이해하며 독송하는 공덕이 크다는 것은 여러 경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사경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토록 해 염불 · 절 · 참선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꼽힌다.

법화정사, 대관음사 등 사경 대표적
경전뿐 아니라 오도송, 선어록 도움
불보살님 가피와 공덕 높다고 알려져

사경을 하면 무엇보다 경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경전 자체가 부처님의 참 말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원음(原音)을 한자 한 획 옮겨 쓰는 순간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으로 일체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

불교계에서는 사경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30만 명에 이르는 전 동문신도들이 〈금강경〉〈화엄경〉〈법화경〉 등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3대 경전을 사경하고 있다. 매달 첫째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법당에 모여 사경명상 수행법회를 진행한다. 불자들은 경전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사경을 통해 일체 번뇌와 망상을 사라지게 하고 심신을 청정하게 한다.

법화정사(회주 도림) 신도들은 꾸준히 법화경을 사경해 1년에 2번 천안 구룡사에서 법화경사경 봉안식을 거행하고 있다.

도림 스님은 "법화경은 모든 가정을 부처님 상주설법하시는 청정도량으로 가꾸고 사경하는 사람들을 성불의 기운으로 깨어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현사, 능인선원, 불교문화센터, 삼광사, 제주 불사리탑, 전북불교회관, 부루나포교원, 영남불교대학 등이 사경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매년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본생경〉〈법화경〉〈수능엄경〉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해 정신성, 예술성, 창작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해 시상한다. 이런 사경 수행을 불교 문학작품으로 넓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시인 등 불교적 사상과 내용을 필사하면 불교적 감수성도 기를 수 있어 좋다.

김형중 동국대 부속중학교 교감은 "나옹선사, 서산대사 등 고승대덕들의 오도송 등 좋은 선시들이 많다. 만해 한용운 스님뿐 아니라 조지훈, 고은 시인을 비롯해 오현 스님의 작품을 필사 하면서 불교정신을 배우고 표현력을 기를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청소년 마음등불' 2014년 우수사례 선정 발표

포교원, 2월 27일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워크숍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종교계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 가운데 불교계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7일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서울대 인문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 에서 지난 2014년 실시한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 사례 발표를 했다.

'청소년 마음등불' 에 참가한 단체는 금강선원,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한마음과학원, 봉인사, 행불선원 등으로 각 기관 명상센터나 수련원에서 2014년 8~10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 진행한 '명상과 함께 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이 소개됐다.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은 지난 해 9월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중고등학생 12명과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3분 호흡명상 △몸느낌 명상 △영상관법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고슬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연구원은 "사업추진 결과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서로 감정을 개방하고 마음을 나누고 직면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마음 등불' 외에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진행한 '생명평화의 바람꽃' , 원불교에서 진행한 '청소년 마음공부 心心풀이' 가 우수사례로 선정 소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주요 프로그램에는 불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 개신교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 , 천주교 '청소년 또래 공동체 운영' , 유교 '부자 캠프, 사제캠프' , 원불교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 , 천도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 민족종교 '전통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및 종교계가 연합해 진행하는 '청소년 종교평화교육' 등이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7일 서울대 인문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 에서 지난 2014년 실시한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 사례 발표를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 진행한 '명상과 함께 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이 소개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2015학년도 안정불교대학(경전반/범패학과/호적반) 신 · 편입생 모집 안내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종단 교육불사에 앞장서고자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교육시설을 갖추고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특 전 : 본 대학은 태고종도들의 도제양성과 교육비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청련사에서는 상당부분 학교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안정불교대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 전 반 : 전통강원 과정 4년

학년 \ 학기	1 학 기	
1 학 년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치 문(緇 門)	
2 학 년	서장(書狀), 도서(都序)	선요(禪要), 절요(節要)
3 학 년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금 강 경(金剛經)	원 각 경(圓覺經)

2. 범패학과 : 교육과정 4년(범음,범패,작법)

학년 \ 학기		
	◎ 기 초 과 정 ◎ • 기 초 : 목탁 치는 법 및 요령 사용법 • 예 불 : 향수해례,사성례,칠정례, 각단예불 • 시 식 : 각종 제사의식 • 송경의식 : 화장 및 매장의식	• 상주권공 • 작법과정 • 사물 다루는 법
	• 천도의식 과정 • 상단 불공 의식 • 중단 옹호게 작법	• 재체비 및 법주,바라지 • 실전행사 의식진행 과정 • 시련회 준비
	(영 산Ⅰ)	(영 산Ⅱ)

3. 호적반 : 2년 과정

학년 \ 학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년	태평소의 기초를 이해하고 태평소를 기초부터 배우며 태평소 기초습득과 능게(자진모리,휘모리)를 마스터한다. ◎교육과정◎ •태평소 기초 1~4(4주 교육) •능게 자진모리 1~3(3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천수바라, 막바라와 능개(굿거리)를 마스터 한다. ◎교육과정◎ • 능게 굿거리 1~7(7주 교육)
2 학 년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염불을 마스터 한다. ◎교육과정◎ •염불 1~7(7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대취타를 마스터한다. ◎교육과정◎ • 대취타 1~7(7주 교육)

4. 모집과정 및 원서교부,접수

모 집 과 정	경 전 반 (전통강원)	내전반	경전반(강원교육)
	범 패 학 과	내전반	기초과정,상주권공,작법,각배,영산
		예술반	호적(태평소)
원서교부 및 접 수	2015.2.16(월) ~ 2015.3.18(수) * 수시접수 가능함	본교 교학처 : 031)829-3220 교무담당:일평법사 010.9180.3354 / 일효스님 010.5114.2033 인터넷 교부접수 http://www.bluelotus.co.kr	

입학문의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http://www.bluelotus.co.kr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031)829-3220 FAX:(031)836-1081
교무담당 : 일평법사 010-9180-3354
일효스님 010-5114-2033

※ 통학버스운행 : 매주 수 · 목요일 각과 수업시간에 맞춰서 운행.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승차 가능.
입학시 학교측에 통학버스 이용 신청서 제출 요.

5. 입학안내

입 학 자 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함 (단, 승가학과 편입생은 타 강원에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본교 강주 스님께서 인정 하는 사람만 가능함.범패학과 편입생은 시험결과에 따라 편 입학 자격이 부여 됨.)	
입 학 식	일 시 :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련사 대적광전 대법당	
개 강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경전반	
	경 전 반 - 안정불교대학 강사 효득(일우)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효범(일해)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범패학과 - 강주 상진스님 / 강사 일원스님 (안정불교대학 강주) (옥천범음대학 3년 과정 졸업)	
	호 적 - 위재영(중요무형문화재 46호,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현 국립국악 관현악단 상임단원)	
수 업 시 간	경 전 반 (전통강원)	① 초 심 반 : 수요일 오전 9시~오전 12시
		② 치 문 반 :
		④ 사 교 반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6시
	범 패 학 과	
	호 적 반	① 기초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7시 (단,수업특성상 수업정원을 선착순 10명으로 제한 함)

※ 상기 수업시간과 요일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 고 : 1. 경전반이나 범패학과는 각학년 공통과목이며 승가학과 및 범패학과는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2. 호적반은 특강과목이므로 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청강 할 수 없음.)

6. 입학서류 및 접수방법

	제 출 서 류	
공 통	1.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수계증사본 1부(해당자) 5.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반명함판 사진 5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접수 가능 2.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접수처 :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내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호스피스 건보 혜택… 불교계도 잰걸음

조계종복지재단 포럼 이어 각계서 활동 방향 가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3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여명이 운집해 몇몇은 서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호스피스기관 56곳…불교계는 '열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혜택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제도 활성화와 임종문화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 호스피스 중요성을 강조해 온 불교계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시발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었다. 재단은 3월 3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모색'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열고 향후 불교계의 활동방향을 가늠했다. 이날 포럼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여명이 운집해 몇몇은 서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전문 완화의료기관은 56곳, 병상은 939개에 불과하며 정부는 5년 내에 이를 1.5배로 확대해 병상을 1,378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말기암환자의 10%에 불과한 이용률 역시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상이 아닌 자택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형 완화의료 역시 향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병동은 한 곳도 없는 실정. 지난해 개원해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은 말기암환자 이외의 환자도 치료대상으로 받고 있어 말기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병원 요건과는 맞지 않는다. 때문에 자재병원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연히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들을 길러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보기 어렵다. 몇몇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 복지법인 내에서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길러내고 있을 뿐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2010년 이후로는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불자들의 참여도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병원 역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공인식 사무관 역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공 사무관은 "전문인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성직자 ·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지원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 저변화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는 전문병원 · 인력 부재
임종문화 바뀌는 데 기여해야

불교 윤회관 공유 계기될 수도

공 사무관은 이외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완화의료란 완치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 치료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완화의료가 치료를 중단 ·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라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직자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정토마을 자재병원장 능행 스님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생사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일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가 호스피스 · 완화치료를 통해 임종문화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경주 동국대 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소생이 어려운 환자들은 처음에 윤회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만남 횟수가 늘어갈수록 정서적 안정을 찾아간다"며 "마지막에는 스님 덕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내고 마음 편히 간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이처럼 호스피스 · 완화의료제도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불교호스피스협회 활동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호스피스협회 최세진 사무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불교에서도 호스피스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관련 과정을 통일화 · 체계화 시켜야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기관에 속한 협회를 중심으로 불교호스피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몇몇 봉사자만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분당 서울대 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현수 스님도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조계종단에서도 하루빨리 정부 정책에 발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사찰의 환경적 이점 역시 가정형 완화의료 사업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향후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국회차원에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재병원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동국대 병원도 호스피스 병동 신설에 대한 관련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무구 스님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과 협의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추진위원회를 발족, 동국대학교의료원을 통해 법인 측에 건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용호복지관-에이취에스, 사회공헌 협약

2월 27일 저소득 청소년 · 홀몸 어르신 지원활동 약속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27일 ㈜에이취에스와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맺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월 27일 ㈜에이취에스와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맺고,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매월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에이취에스는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 32명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특별 장학금을 전달했다.

앞으로 ㈜에이취에스는 홀로 외롭게 생신을 보내는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해 매월 생신잔치를 개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신잔치는 3월부터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실시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취에스에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아동 · 청소년에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멘토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효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취에스의 신홍섭 대표이사는 "지역 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 앞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법인인 ㈜에이취에스는 2010년부터 부산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 · 미혼모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저소득 노인 ·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주 2회 무료급식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배현진 기자

홍천장애인복지관, 복지부 평가 최우수 기관

152개소 대상… 시설 · 재정 · 프로그램 등 6개 영역 올 'A'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이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월 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3년마다 실시하며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48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평가받은 장애인 복지관은 총 152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시설 · 재정 · 인적자원 · 프로그램 · 이용자권리 · 지역사회 등 6개 분야에서 90점이상을 받아 A등급을 기록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상담과 심리 · 교육 · 의료 · 재활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재활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관측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을 계기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복지세상 구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개관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2011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건강 · 복 부르는 정월대보름 행사

황송복지관, 3월 5일 복지관 이용자에 가훈 · 부럼나눔


황송노인복지관에서 정월대보름맞이 귀 밝이차 시음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3월 5일 정월대보름 맞이 '모두 함께 호호(呼好)' 행사를 진행했다.

가훈나눔, 새해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 전통차 시음행사, 부럼판매 등을 통해 복지관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모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흘림체반 어르신, 티아트 봉사단(노인전문자원봉사단) 등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나서서 재능기부를 펼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복지관 방문자들에게 가족과 이웃, 지역주민 모두 풍요롭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가훈을 써서 나눴으며 정월대보름에 마시던 귀밝이술을 차로 대체해 나눠주기도 했다. 귀 밝이술은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싶다는 소망과 기원을 담아 정월대보름 아침에 마시던 술이다.

한편 이날 복지관 1층 로비에서는 땅콩 · 호두 · 은행 등 부스럼을 막는다는 부럼을 판매했으며 행사 수익금 전액은 노인복지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개운하게 봄맞이 대청소 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이 2월의 끝자락, 서울시 종로구내 경로당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기아차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 50명은 2월 28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과 함께 5개조로 나뉘어 경로당내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창, 에어컨, 선풍기, 싱크대를 닦았다. 이날 봉사단은 종로노인복지관측에 후원금 150만원과 함께 쌀 20포대와 경로당 텃밭 가꾸기 활동을 위한 퇴비를 전달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附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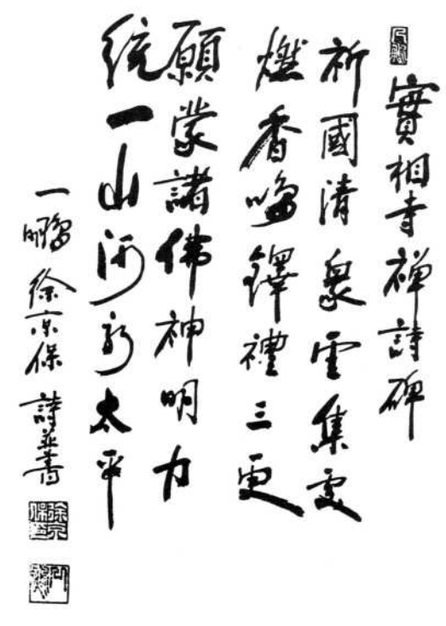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1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5년 양력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제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3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특 혜 : 1기생 교육비 무료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9038-0908 학과장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自己事 마친 대장부가 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금일(今日)은 갑오년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이번 한 철도 산승이 반가운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 소식을 전해오는 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행자가 자기사(自己事)를 밝히지 못하였다면 어찌 해제가 있을 수 있으리오. 오직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들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인간 몸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설사 받았다 한들 또다시 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일진대,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인 최상승의 견성법(見性法)을 만난다는 것은 가히 무량의 대복(大福)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을 향해 총알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천고에 만나기 힘든 생사요달(生死了達)의 견성법을 만났거늘, 시은(施恩)만 축내면서 산천초목 구경하러 다니고 온갖 시비에 다 간섭하고 망상에 게으름에 시간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눈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니, 해제라는 생각일랑 지금 당장 내려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챙기되, 화두의심이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쭈욱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어짐 없이 간절히 화두를 챙기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하여 발동이 걸리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러면 화두 한 생각이 성성하게 넷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화두 한 생각이 성성하게 흐르는 가운데 의심이 철두철미해야 되고, 의심이 간절한 가운데 화두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야 보는 것도 잊고 듣는 것도 잊어버려서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모든 업이 다 멈추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이 다 없어져서 누가 봐도 마치 등신같이 되어 시절인연만 기다리게 되는데,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천성인(一千聖人)이 베풀어놓은 수많은 법문들을 한 꼬챙이에 꿰어버리게 되니, 누가 어떠한 법문을 묻더라도 척척 바른 답을 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여 바른 답이 척척 나올 거 같으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온전히 다 알았다하여 인가(印可)하고 법을 부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왈견성(號曰見性)으로 마침내 생사를 요달하여 영원토록 부처님의 진리의 낙을 누리면서 자유자재로 살게 되는 길입니다. 중생구제(衆生救濟)의 원력으로 다시 오고 싶으면 사바에 다시 오게 되고 아니면 영원히 열반낙을 누리는 것이니, 역대 모든 부처님 조사스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진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귀중한 법이 오직 이 문중에만 있음이요, 모든 분들이 다겁의 세월 속에 드디어 만난 것이니, 해제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허송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젊고 힘 있을 때 혼신의 정력을 쏟아 이 일을 마쳐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바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에도 천만금의 시은(施恩)도 능히 녹이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됨이요, 역대 불조(佛祖)의 큰 은혜를 갚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출가자 재가불자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자기사를 마친 대장부(大丈夫)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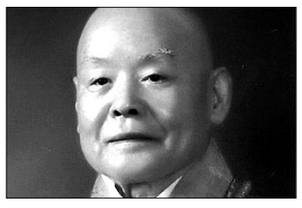
근래에 도를 닦는 이들이 해제하면 행각한다하여 돌아다니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선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가장 먼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랑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빈틈없는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경(畢竟)에 시회대중은 고인(古人)의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허공낙지시(虛空落地時)에 향여도(向汝道)리라.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대를 향해 일러주리라.

분별심 떨치면 그대로 견성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동안거 석 달의 결제가 끝나 해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맺는 것이며, 어떤 것이 푸는 것인가?

맺고 푸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을 찾아나서는 안거수행의 인연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인지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다른 것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평등한 마음이 실제로는 그릇된 생각과 관념, 편견에 의해서 주관적 해석을 더하기 때문에 차별과 분별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진범부(但盡凡夫)이언정 별무성해(別無聖解)라 했듯이 이 분별심(分別心)만 떨어지면 그대로 견성(見性)이며, 성인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했어요. 해제 이후 만행할 때도 반드시 화두를 참구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본분을 결코 잊지 말고 행각하기 바랍니다.

탐진치 집착하면 몇 겁 지나도 성불 어려워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諸行無常 是生滅法(제행무상 시생멸법)

요새는 모두 제행이 유상(有常)이라, 제행이 무상도 아닙니다.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탐진치에 집착하면 몇 겁이 지나더라도 성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독하게도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추위를 이겨나가면서 선(禪)도 하고 강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스승 되고 지도자가 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살리고 살려서 헛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된다면 부처님 은혜를 능히 갚고도 남습니다. 아무쪼록 정진하고 정진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신도들도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가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의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거룩한 참 은혜를 남김없이 갚아드려야 합니다.

견성코자 한다면 도심부터 굳건해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道心堅固(도심견고)하야
須要見性(수요견성)하라
疑着話頭(의착화두)호대
如咬生鐵(여교생철)이어다

도심을 견고히 해 반드시 견성할지어다. 화두를 굳게 참구하기를 마치 생철 씹듯 하라.

중생의 어리석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 같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같은 번뇌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요동칩니다. 수행자가 견성코자 한다면 도심부터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방석위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눕고 일어서면 본분사와 가까워질 기약이 없습니다. 한번 결심을 했으면 씹히지 않는 생철을 씹고야 말겠다는 정신으로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해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지나쳐가지 않는 생사의 마와 결판을 내는 그 날을 위해 용맹심을 다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참상할지어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부처님과 조사의 지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정법안(正法眼)을 구하고저 함이로다. 불법(佛法) 문중에 수승(秀勝)한 보배는 각자의 있는 바 마음과 성품의 보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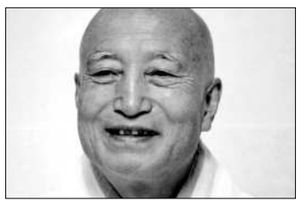
수행하는 납자가 다 이르되 해제라 하니 해제는 참 성품을 깨닫고 부처님과 조사를 잡으며 바람을 따르고 물결을 따라서 인연따라 중생을 제도하면 곧 이 해제니 만일 능히 일 마친 장부일진댄 한 마디 일러라.

대중이 말이 없거늘 잠깐 있다가 ‘할’ 을 한번 하고 이르되 밥값은 그만두고 도리어 나에게 방값을 내라. 만약 또한 깨닫지 못했을 진댄 스스로 속이지 말고 간절히 모름지기 참상(參祥)할 지어다.

게송으로 이르되 심공소유여허공(心空所有如虛空)하고 돈식제연무소유(頓息諸緣無所有)로다. 원리망상급제취(遠離忘想及諸趣)하면 처지답득안심처(處處踏得安心處)로다.

고해에서 해탈법 익힌것은 천만다행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고인(古人)이 말씀하시기를 결제에 결제가 없고 해제에 해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해제요 결제라 하셨는데, 금일대중은 어떤 결제와 해제를 하셨는가.

結時石人夢 解時木人歌
夢歌都放下 望月明如漆

결시는 돌사람이 꿈꾸고 해시에는 나무사람이 노래를 부름이다. 꿈도 노래도 다 놓아버리니 보름달 밝기가 칠흑 같더라.

생사윤회가 도도히 흐르는 고해에서 불법을 만나 다행이 해탈법을 익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 중에 다행이라 하겠다. 공부하는 사람은 진중해야 할 것이다.

발심하고 또 발심할 일이다. 자성삼보(自性三寶)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귀의할 곳이며 이것을 철저히 알면 법법(法法)이 상응(相應)하고 티끌 티끌이 해탈(解脫)하여 백천삼매(百千三昧)와 무량묘의(無量妙義)가 함께 드러나 영원(永遠)토록 자유(自由)하고 영원(永遠)토록 무애(無碍)할 것이다.

수행 궁극적 원력은 ‘요익중생’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이제 여러분은 삼동안거 고요한곳의 수행을 잠시 끝내고 산문 밖으로 나아가 시끄러운 곳으로 수행을 연장해 갈것입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원력은 지혜로서 요익중생(饒益衆生)하는 것입니다.

삼동안거 동안의 애매모호 했던 자신의 깨달음은 실천이라는 실습을 통해 스스로가 점검될 것입니다. 경전과 선서에서만 배운 마른 지혜와 보고 듣고 검색하여 얻어진 지식과 상식의 전문성만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본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식심견성(識心見性) · 발식취경(發識取境) · 근진동원(根塵同源)이라는 말처럼 육근 · 육식이 하는 고급 놀음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죽은 고목처럼 앉아서 삼매에 든다 해도 아라한의 흉내밖에 될게 없으니 명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눈들어 강산을 보니 천백억 화신들께서 향기로운 미소로 우리들에게 손짓하는 봄입니다.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깨어나자 비구니여, 모이자 비구니회관 법룡사로!

오직 결의대회 동참만이 전국비구니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현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

- 현 비구니회칙에 의하면 적법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불가함. (회칙 16조 1항)
-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이 위법적으로 구성됨. (회칙 17조 1항 및 22조 3항)
- 위법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은 무효임.
-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회기를 넘기고 4개월째 거부하고 있음. (회칙 11조 2항)

■ 일시 : 불기2559(2015)년 3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주최 · 주관 : 열린비구니모임(가칭) /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준비위원회 | 후원 :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전국비구니회원 일동

준비물 : 대가사 지참 | 문의 : 02-739-6697 / 010-4678-1685 / 010-2079-2263 | 열린통장 : 농협 302-0895-8103-11 박정숙

■ 결의대회 동참 서명 1,030 명단 (가나다순)

갈영진 견명 견성 견유 경륜1 경륜2 경문 경민 경봉 경선 경연 경원 경인 경조 경진1 경진2 경진3 경행 경헌 경현 경호1 경호2 계봉 계협 고경 고담 고심 고진 공유 관솔 관정 광용 광은 광전 광현1 광현2 구변 근오 금룡 금산 금주 금해 기나 기용 기현 기형 길상 길훈 김해연 남견 남명 남석 남수 남오 남전 남현 녹연 능륜 능우 능인 능제 능지 능학 능행1 능행2 능환 능휴 다경 다래 다문 다민 다우 당경 대경 대련 대성1 대성2 대안 대엽 대용 대우1 대우2 대운 대원2 대원3 대월 대유 대정1 대정2 대한 대현 대훈 덕근 덕림 덕원 덕인 덕일 덕현 덕호 덕화 도강 도견 도경 도경1 도경2 도공 도관 도국 도림 도문1 도문2 도법 도상 도선1 도선2 도승 도안1 도안2 도연1 도연2 도연3 도연4 도우1 도우2 도우3 도운1 도운2 도의 도원 도유 도윤 도일1 도일2 도정 도준 도진 도행 도현1 도현2 도현3 도혜 동근 동명 동석 동선 동성 동숙 동암 동언 동엽 동완 동우 동욱 동운1 동운2 동원 동일 동지1 동조2 동찬 동참 동천 동하 동현1 동현2 동호 동환 동효 동희 두운 득원 등현 만성 만오 명관 명관 명광 명선 명수 명순 명신 명연 명오 명은1 명은2 명재 명전 명종 명주1 명주2 명지 명행1 명행2 명현1 명현2 명호 모선 목산 목윤 묘각 묘공 묘관1 묘관2 묘련 묘명 묘법 묘선 묘성 묘순 묘원 묘정 묘조 묘현 묘혜 무견 무경 무구 무등 무상 무염 무위1 무위2 무일 무준 무진1 무진2 무행 문성1 문성2 문수 미광 미단 민욱 민홍 백경 범견 범륜 범승 범여 범오 범준 법경1 법경2 법경3 법기 법념 법등 법륜 법산 법상 법성1 법성2 법성3 법승 법안1 법안2 법안3 법연1 법연2 법용 법우 법운 법유 법인 법일 법자 법장 법전 법정1 법정2 법주 법준 법진1 법진2 법천 법철 법혜1 법현2 법혜1 법혜2 법홍 벽공 보각 보경1 보경2 보경3 보경4 보관 보광 보규 보근 보덕 보련 보림 보명1 보명2 보문1 보문2 보문3 보인 보석 보안 보영 보우 보운 보은 보정 보행 보현1 보현2 보회 본각 본심 부동 부현 삼덕 삼명1 삼명2 삼오 삼호 상능 상덕 상명 상민 상영 상우 상운 상일 상하 상현 상화 상훈 서강 서경 서광 서목 서보 서암 서용 서원 서진 석도 석등 석묵 석문 석민 석산 석우 석재 석준 석현 선경1 선경2 선공 선관 선광 선기 선나 선명 선묵 선문1 선문2 선법 선보 선빈 선앙 선영 선오1 선오2 선우1 선우2 선운 선의 선일1 선일2 선정1 선정2 선정3 선종 선주1 선주2 선초1 선초2 선하 선학 선해 선행 선현1 선현2 선혜1 선혜2 선후 설오 성각 성경 성곡 성공1 성공2 성관 성능 성담 성련 성모 성묵 성묵 성민1 성민2 성민3 성범 성법1 성법2 성보 성수1 성수2 성안 성업 성열 성엽 성오 성우1 성우2 성원 성운1 성운2 성은1 성은2 성인 성일 성정 성주1 성주2 성준 성진1 성진2 성진3 성찬 성천 성철 성탁 성파 성행 성현 성호 소모 소연 소현 수경 수근 수등 수법 수법 수산 수안 수원1 수원2 수안1 수인2 수진1 수진2 수천 수현1 수현2 수현3 수환 순행 순형 숭신 승륜 승민 승봄 승안 승오 승진 승현 승혜 시연 시운 시현 심원1 심원2 안후 여법 여진 여향 여현1 여현2 연광 연달 연수 연옥 연정 영광 영덕 영명 영안 영운1 영운2 영원 영진 영현 영호 예진 오인 요원 요현 용호 우근 우관 우담1 우담2 우담3 우림 우빈 우석 우송 우신 우연 우원 우진 운광 운봉 운성 운아 운정 운효 원공 원과 원관 원교 원돈 원묘 원산 원성 원소 원영 원우 원일 원정1 원정2 원조 원해 원행 원혜1 원혜2 월영 월인 월천 유근 유곡 유광 유수 유신 유정 유진 유화 육문 육통 은광 은성1 은성2 은일 은정 은주 응일 의성1 의성2 의천 의현 의효 이혜원 인공 인목 인성1 인성2 인성3 인욱 인행 인화 일공 일광 일권 일련 일륜 일미 일법 일봉 일산 일성 일양1 일양2 일여 일연1 일연2 일오 일원 일운 일장 일조1 일조2 일주 일중 일지 일진1 일진2 일태 일현 일호 일홍 일효 임대 자경 자광 자도 자명1 자명2 자목 자문 자민1 자민2 자선1 자선2 자성 자연 자용 자우 자운 자윤 자인 자찰 자청 자하 자해 자현1 자현2 자혜3 자형 자홍 자효 자훈 장주 장하 재마 재범 재성 재오 재욱 재운 재원 재호1 재호2 재훈 적묘 적연 적인 적조 정견1 정견2 정관1 정관2 정련 정명2 정묵3 정도 정도 정명 정묵 정묵1 정묵2 정문1 정문2 정법1 정법2 정보 정본 정선 정성 정수1 정수2 정수3 정수4 정수5 정심 정안 정암 정언 정엽 정업1 정엽2 정우1 정우2 정우3 정우4 정우5 정우6 정욱1 정욱2 정운1 정운2 정원1 정원2 정윤 정은 정인 정일 정주 정해 정행 정현1 정현2 정현3 정현4 정협 정혜 정호 정효1 정효2 제연 제원 조안 조연 조해 종경 종근 종민 종선 종승 종열 종욱 종인 종주 종준 종찬 종호 종화 주광 주석 주용 주현 주형1 주형2 주호 준호 중성 중안 중원 중하 증휘 지견1 지견2 지공 지광1 지광2 지광3 지광4 지담 지도 지만 지명1 지명2 지명3 지명4 지문 지민1 지민2 지백 지산 지상1 지상2 지상3 지상4 지선 지설 지성1 지성2 지아 지안 지업1 지엄2 지완 지우 지욱 지운1 지운2 지운3 지웅1 지웅2 지원1 지원2 지유1 지유2 지윤 지율 지은1 지은2 지인1 지인2 지인3 지인4 지일 지정 지중 지천 지행1 지행2 지현1 지현2 지현3 지현4 지현5 형구 형문 형민 형운 혜가 혜각 혜감 혜고 혜광 혜근 혜놈 혜능 혜덕 혜도 혜등 혜림1 혜림2 혜명1 혜명2 혜묵1 혜묵2 혜문1 혜문2 혜석 혜선 혜성1 혜성2 혜솔 혜안1 혜안2 혜오 혜욱1 혜욱2 혜욱3 혜운 혜원 혜윤 혜인1 혜인2 혜일1 혜일2 혜전1 혜전2 혜정1 혜정2 혜조1 혜조2 혜조심 혜종 혜준1 혜준2 혜중 혜지1 혜지2 혜천 혜철 혜해 혜호 호현 화남1 화남2 화일 화정 효경 효공 효광1 효광2 효림 효문 효범 효석 효욱 효원 효일 효정 효종 효찬 효탄 효탄 훈재 휴정 희경 희권 희상 희선 희성 희원 희윤 희정1 희정2 희철

“종교가 심화될때 화쟁 북돋워져”

화쟁아카데미, 2월 28일 ‘경계너머, 지금여기’ 첫 포럼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각자가 속한 종교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온 세 학자가 모였다. 조성택(불교), 김진호(개신교), 김근수(가톨릭) 세 교수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사회에서 문제적 위치에 처한 종교의 앞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모임 이름도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다. 조성택 교수가 이끌고 있는 화쟁문화아카데미는 2월 28일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해방신학연구소, 새길기독사회문화원과 함께 서울 사간동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였다.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의 발제 후 나머지 두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대)의 기조강연도 있었다. 오 교수는 ‘화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교와 그리스도교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종교든 내부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며 탐진치에 찌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표층 종교와 이해와 깨달음, 진아(眞我)를 내세우는 심층 종교로 나뉜다”며 “하나의 종교 내부에 존재하는 표층-심층 거리보다 각 종교의 표층간, 심층간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불교 내에 존재하는 깨달음(심층)은 기복신앙(표층)과 떨어져있지만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라는 기독교의 ‘회개’와는 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한국 종교인 절대다수가 ‘나’ 혹은 ‘우리’만 아는 표층 신앙에만 머물러 있기에 배타주의, 교세확장주의 등 각종 병폐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 후 “종교가 심층으로 심화될 때 화쟁을 북돋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각 종교 성찰
‘깨달음’ 위주 종교 권위화 우려
오강남 교수 기조강연서 ‘화쟁’ 강조

오 교수의 강연처럼 이날 토론에 나선 세 명의 패널 역시 서로의 종교가 가진 문제점을 공유했다.

조성택 교수는 “깨달음이라는 ‘체험’을 불교의 요체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종교를 사적화, 밀실화시키는 것”이라며 “깨달음을 소수 선택된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특권화 시킴으로써 재가자들을 출가자들의 수행을 지켜보는 관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깨닫지 못하면 어떤 비판도 의심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불통의 상황을 한국불교는 적절히 신비화해 자신을 숨기는 은폐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화쟁아카데미 주최로 2월 28일 열렸다. 좌로부터 사회를 맡은 성해용 서울대 인문학 교수, 조성택 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실장,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이에 대해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실장은 “기독교 내 절대적 믿음의 도그마(dogma · 獨斷)는 신앙생활에서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잡았지만 막상 신자들은 믿음이 뭔지를 묻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히 답하지 못한다”며 “이는 깨달음을 우러러보지만 막상 그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불교신자들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역시 “불교에서 깨달은 이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권력이 형성되는 현상은 가톨릭 성직자들이 신도들에게 은총을 생산 · 분배하며 권세를 누리고 내부 민주주의를 틀어막고 있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꼬집었다.

세 학자 모두 종교내부에서 특권화된 지식과 권력이 종교적 성찰을 방해한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무종교인이라고 응답했지만 현실은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라는데 공감하며 앞으로 종교가 현실의 고통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응답해왔고 응답할 수 있을지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포럼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되며 다음 세미나는 3월 28일에 열린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경 간행 전문활자본 보물 지정

을유자로 찍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 성보 1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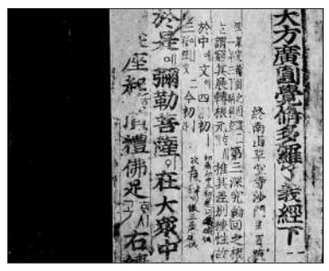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3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 성보 15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보물 제1219-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 1의1~2, 2의1~2’는 세조 11년(1465)에 간경도감에서 국역한 책을 바탕으로, 한글 구결(口訣) 부분만 편집하여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한 불경이다.

을유자는 불경 간행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당시 유신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전본(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선 시대 국어학과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5년에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각승 원오 스님의 현존 최초 작품이자 그의 작품 특성이 잘 드러나는 현존 최고(最高)의 대작이다.

이 밖에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보은 법주사 동종’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부여 무량사 삼전패’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삼국유사 권1~2’ 등이 포함됐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이중 무량사 삼전패는 정확한 제작 연대와 제작 장인들을 알려주는 묵서명(墨書銘)이 있고,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의 편년과 도상(圖像) 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크며 삼국유사 권1~2는 기존 판본의 해독이 힘든 글자를 풀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서 의미를 지닌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4집 발간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제4집을 펴냈다.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을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관련 논문으로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불교 상담-심우도를 중심으로’ △황임란 한남대 겸임교수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성적 이해와 불교 상담의 시사점’ △서신자 목포대 외래교수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 고찰’ 등이 실렸다. △김재옥 송원대 겸임교수의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래상자치료 사례 △전현주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만다라 도형심리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도식에 관한 연구(전현주)가 실려 있다.

투고 논문으로는 △강명희 금강대 학술연구교수의 부정관 폐해에 대한 경율 간상위 고찰 △정영식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무위진인 의미의 변천과 그 비판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詩, 억압 · 단절에 대한 치유의 도구”

권성훈 시인, ‘폭력적 타자와…’서 불교시 치유 조명

불교 사상을 천착한 시의 치유능력을 조명한 연구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권성훈 시인(고려대 연구교수)는 최근 불교 등 종교시가 가지는 치유력을 연구한 〈폭력적 타자와 주체들〉을 펴냈다.

그는 이미 한국종교학회 학술지 ‘종교연구’ 제70집에 게재한 ‘한국불교시에 나타난 치유성 연구’란 논문을 통해 “불교시가 불교 사상을 포괄하는 심층적 기표로서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종교시가 가지는 다양한 파급력을 조명해온 바 있다.

권 시인은 최근 발간한 〈폭력적 타자와 주체들〉에서 ‘제7장 불교시, 그 치유의 미학’과 ‘제10장 조오현, 헤에로파니에 도달한 비극적 존재’ 두 개의 챕터를 통해 불교시가 가지는 매력을 풀이했다.

그는 7장에서 한용운 · 김달진 · 오현 스님을 통해 한국 불교시의 특징을 재조명했다. 권 시인은 한용운의 시가 ‘님’이란 시어의 반복을 통해 감정의 정화에 이른다고 풀이했다. 시적 리듬을 그대로 방출하지 않고 절망과 억압에 대한 조절을 가능하게 해 ‘감정 정화’와 ‘정서 순화’라는 치유성을 보인다는 게 권 시인의 주장이다.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에 대해서는 “인간 본연의 존재를 우의적(寓意的)으로 들여다본다”고 말한다(7장). 또한 “그의 선시는 ‘버려진’ 비극적 현실을 ‘언어적 명상’으로 ‘벼리고’ 온 ‘한국 선시’의 성전에 바치는 ‘선시조의 경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10장)

불교시에 대해 권 시인은 “불교시는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현실세계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속되고 적멸하는 것 사이에서 발현된다”면서 “불교시는 ‘자기성찰의 언어’이자 현실세계의 억압과 단절을 극복한 ‘치유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재硏 ‘한국의 사지’ 발간

충청지역 374개 사지 내용 담아… GPS좌표 기록, 현황지도 수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최근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지역 사지에 대한 각종 문헌조사와 정밀현황조사 결과를 모은 〈한국의 사지-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 보고서는 2010년에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지역 1,362여개소 사지 중 비지정 사지 363개소와 새로 확인된 13개소를 추가해 총 374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장조사 후 옛 문헌과 각종 연구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영하여 사역(寺域), 식생(植生) 현황, 유구와 유물,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사지에서 이동된 문화재들을 조사하여 수록함으로써 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12년부터 제작한 ‘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올해도 별책 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박물관 등에 소장된 사지 출토 문화재와 소재문화재들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5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구 · 경북지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미조사사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결과물을 통해 사지와 소재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 ·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대, 시민강좌 ‘목요인문학카페’ 연다

3월 19일 ~ 7월 16일 매주 1, 3주 목요일 오후 2시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목요인문학카페 : 목(木)요일에 인(人)문학을 이야기하며 삶의 휴(休)식을 찾다’를 주제로 인문학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강좌는 3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1, 3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진행되며 ‘몸’과 ‘마음’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늘 만나는 것들을 소재로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권탄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일상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시민강좌를 준비했다며, 옛날을 살던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있는 박물관에서 옛날과 현재의 일상을 함께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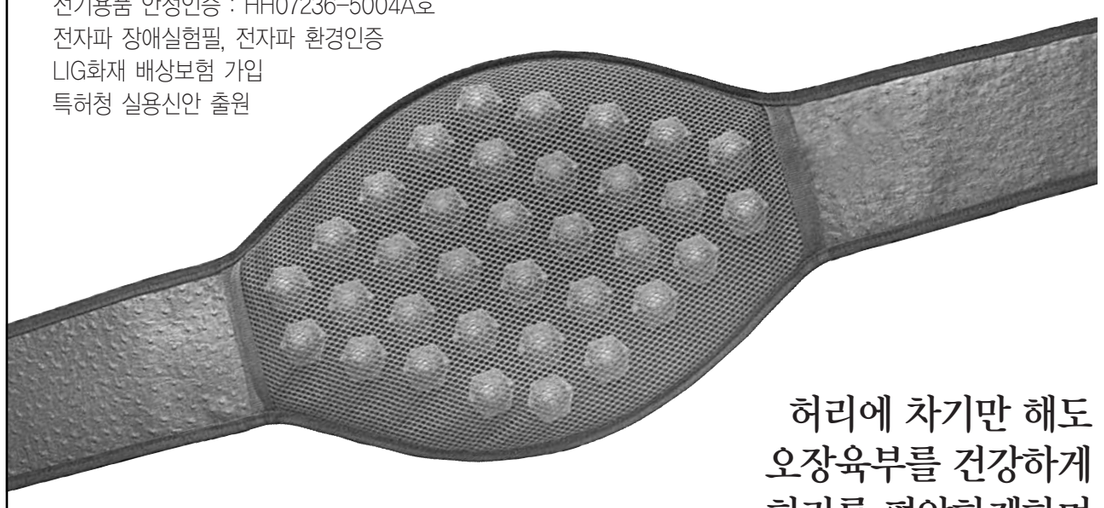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 ` », 3i 1 — ‡ „ ¨ ″ ·



3i 1¿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 … — ¿ … » ″ · ` 8˜˜¿ , ´ · ¿ 3i 1 , ¿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 ¨˜ 3i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조동제 전북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 … » i ″ ¯ · ‰ ¯ i ` ¿ ‡ ¿ — ‰ ¿ …i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 »,3¿ 4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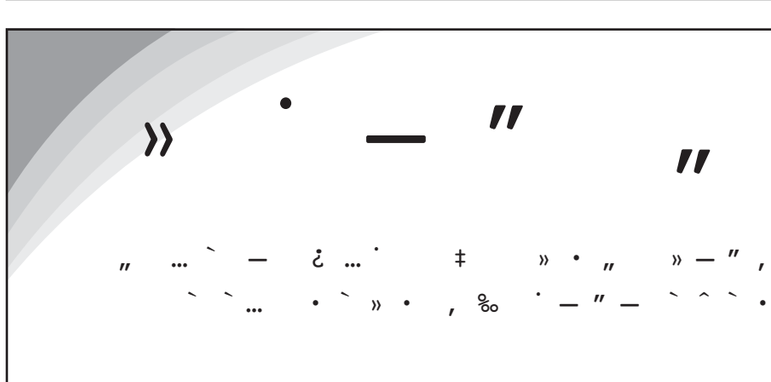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i 2˜15˜‡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동제 전북지사장

— ` — » », ` ˘ , · … ` ^ — „ ¨

2¿ 28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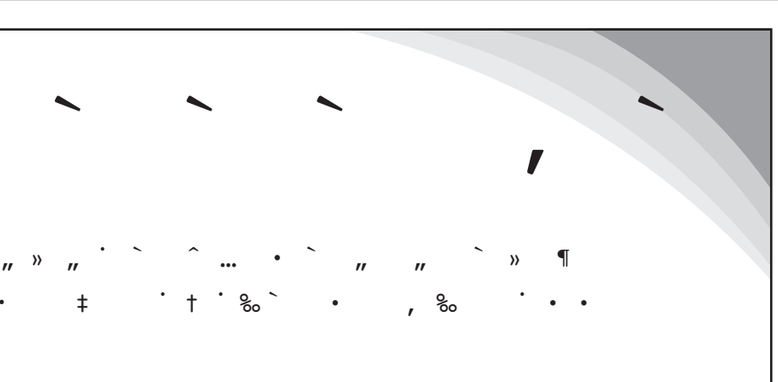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5˜˜¿ , 2¿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동제 전북지사장

— ` ¿ » ´ , ‡ · ¨ ¶ ´

″ » i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i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i ¶ 1″ ″ ^ · ¿ 1˜¿ , · ¿ 5˜˜″ ˜˜1˜˜˜″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7 · ¿ ¿ … ″ ‰ 2˜˜˜kg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 , ″ ‰ 8˜˜kg ″ — · ^ ¿ · ·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Buddha Voice Choir

본 합창단은 우리 찬불가만을
연주하는 것을 특징 지울 수 있으며
찬불가 발전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i , ` · » æ‡ i ‡ i ii , æ¿ · ` · æ

i , ` æ¿ , ¶ · „ ¶ · ¿ 1

i … „ „ æ ` ¨ studioæ ^ „ ´ ¿

¢ 051æ866æ8388



“부처님 가르침은 실천해야 정답이죠”

여래사불교대학,부산 안창병원 6백명 환우 위로연

환우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곳이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부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 수강생 및 총동문회 10여명은 2월 27일 부산 동구 인창병원을 위로방문하고 음악회를 열어 병마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은 이날 9층에 걸친 병원 병실을 빠짐없이 방문해 환우들의 손을 잡고 말벗이 돼 따뜻함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부산불교정수회(여래사불교대학 졸업생 수행단체)와 함께 십시일반 모은 모연금으로 과일, 카스테라, 음료수 등을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6백여명의 환자와 간병인들은 여래사 불교대학에서 주최한 작은 음악회에서 잠시나마 병고의 아픔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작은 음악회에는 ‘제이엠커뮤니케이션’ 소속 가수의 열창과 색소폰 연주 등이 이어졌다.

환우들은 이날 병원을 방문한 여래사불교대학 학생들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특히 불자 환우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다며 활짝 웃기도 했다.

여래사 불교대학 신태균 교무처장은 “병원이 위치한 부산 동구 지역은 부산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독거노인 및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다. 때문에 요양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다”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래사 불교대학 소속 이수임(50)씨도 “병원에 할머니들이 많으셔서

십시일반 모연해 후원 물품 마련
2010년부터 매년 봉사활동
불법 실천하는 재가불자 양성 요람소

보기가 짠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법우들이 마련한 작은 정성에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했다.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 법을 이런 기회를 통해 실천하며 부처님의 마음 역시 배우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의 지역 나눔 실천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직접 만들어



부산 여래사불교대학의 수강생 및 총동문회 10여명이 2월 27일 부산 동구 인창병원을 방문해 환우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앞에두고 사진을 찍고 있다.

집집마다 방문, 이를 나눠주기도 했다.

1988년 부산불교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성재도 원장이 창건한 여래사불교대학은 재가자가 부산에 처음으로 만든 불교대학이다.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열매’라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불교를 기초부터 알기 쉽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단에서 인증하는 포교사 과정도 수강할 수 있어 다른 불교대학들과 차별화 ·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강사는 학장인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을 비롯해 금정중학교 이석언 교법사, 해동고등학교 안정수 교법사, 인재개발원 이욱태 원장이 활동 중이다. 올해 학기 개강은 3월 12일 이다. (051)466-4080

하성미 기자

올해 연등축제는 시민 함께하는 행사로

5월 1~ 25일까지… 부산 구덕운동장 · 용두산공원 일대서

불도(佛都) 부산에서 오는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연등축제가 열린다. 올해 연등축제는 전통문화를 고취하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15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연등축제 결성법회를 3월 6일 코모도 호텔에서 봉행, 연등축제 기간 및 행사 내용을 결정짓고 힘찬 출발을 결의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6일 코모도 호텔에서 연등축제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5월 1~3일 상징물 점등식 및 전통문화마당을 부산 양정 송상현 광장에서 봉행하고 이어 11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전통등(燈)전시회를 개최한다. 5월 17일 오후 4시에는 구덕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회를 봉행한 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 부산근대역사관까지 제등행렬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매년마다 진행한 ‘창작등경연대회’를 ‘전통 창작등 공모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 고증하고 복원한 전통등(燈)은 5월 13~24일까지 용두산 공원 내 부산시립 용두산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통 창작등 공모전에는 부산광역시장상, 부산시의회의장상, 부산교육감상 등이 신설되며 전통 창작등(燈)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부산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종공연과 체험 행사 및 부대행사를 마련, 종교를 초월하여 부산시민과 불자들이 다함께 어울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시민 축제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높은 덕을 찬양하고 부산시민과 함께 고유전통문화이며 한국불교문화의 백미인 연등을 밝히는 축제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목표 이루기까지 해제는 없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소속
1500여 재가자 동안거 해제
수행 목표로 더욱 정진 다짐

동안거는 해제됐지만 수행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3월 4일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에서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해제 법회에서는 수진 스님의 법문과 안거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해제 법문을 통해 수진 스님은 “졸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듯 해제 역시 또 다른 결제이다. 선사들은 화두를 깨 부셔야 해제라는 단어를 용납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근기에 맞게 수행을 진행했는데도 목표한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목표한 바에 맞춰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독려했다.

재가자 동안거에 동참한 불자들도 해제를 했지만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3월 4일 부산 동명불원에서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수진 스님이 동안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불자에게 안거증을 수여하고 있다.

부산 동명불원에 다니는 안소민(54)씨는 “동안거 기간 동안 경전 독송과 평소에 하던 관음정근을 계속 해왔다. 중간에 느슨해지기도 했지만 스님께서 틈틈이 챙겨주셔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며 “수행을 멈췄다가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단 걸 알았다. 해제는 하지만 계속 수행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 대광명사 홍나정(49)씨도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아 근기가 약한 편이었지만 도반들과 함께 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다”며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특히 〈지장보살본원경〉을 사경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기에 해제했다고 수행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안거 프로그램에 따라 108배를 매일 했다”는 미타선원 최진락(60)씨도 “그 덕분에 절을 해도 힘든 것이 없어지고 가뿐하게 건강을 되찾게 됐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꼭 참석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작년 12월 5일 입제 법회를 시작으로 재가안거수행 동안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가 불자 1인 1일 수행을 정착시키고자 시작된 이번 재가안거수행은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16개 사찰에서 불자 1500여명이 동참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동안거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안거 프로그램을 개설, 수행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하안거 수행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교육원 인증과정 간화선 특강 ‘선요(禪要)’를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3월 24~4월 21일 동안 개최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안국선원 교육관이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인재불사 ‘법계장학금’ 수여식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설립… 지금까지 85명에게 2억여 원 수여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법계장학금 전달식이 3월 2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흥륜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교무 원묘 스님 등이 참석했다.

명성 스님의 법호를 따 설립된 법계장학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85명의 스님과 불자학생에게 2억 1천3백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은 동국 경주 캠퍼스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원행 스님을 비롯한 6명의 학인 스님과 불자학생 전상률 씨(일본 동경대 대학원 재학) 등 모두 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오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계장학금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고희 논문 출판기념 축하금과 스님이 수행생활 틈틈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3월 2일 불법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장학생 7명에게 법계장학금을 전달하고 불교발전에 공헌해달라고 격려했다.

2003년 설립됐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원행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석사과정)은 영광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발심해 심신수행과 불법공부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광법사의 화랑정신이 깃든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는 몇 해 전부터 원광화랑연구소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화랑오계비를 경내로 옮겨 새로운 청년정신 계승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장학사업을 통해 21세기 불교인재 육성의 산신인 인재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무치고 사무쳐라… 일대사 해결이 진정한 해제”

무문관 안거 마친 설악 무산 스님
백담사 무금선원 해제 법회 법문

음력 정월 보름보다 하루 앞선 3월 4일 백담사 무금선원 동안거 해제 법회가 백담사 검인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해제 법회에는 신흥사 향성선원 12명, 백담사 무문관 11명, 백담사 기본선원 63명의 납자들이 3개월 동안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다.

무산 스님은 신흥사와 백담사 조실에 오르며, 수좌들의 선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선원이 없던 백담사에 무금선원을 개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조계종 기본선원을 이곳에 유치하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동안거때에는 조실로는 드물게 고령에도 직접 무문관에 방부를 들였다. 함께 입방한 수좌들처럼 철저히 무문관 규칙을 따르며 똑같은 일과로 수행했다. 해제 후 안거증도 받았다. 유나 영진 스님에 따르면 무산 스님은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무문관에 계속 들어갈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동안거 해제 법어를 위해 법상에 오른 무금선원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주장자를 내려친 뒤 아래와 같은 게송을 읊었다.

최잔고목의한림(摧殘枯木倚寒林)
기도봉춘불변심(幾度逢春不變心)

초객과지유불고(樵客過之猶不顧)
영인나득고추심(詠人那得苦追尋)

일지하엽의무진(一池荷葉衣無盡)
수수송화식유여(數樹松花食有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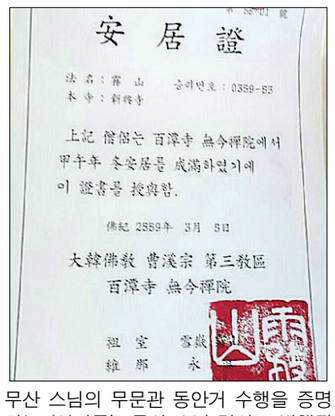
강피세인지주처(剛被世人知住處)
우이모사입심거(又移茅舍入深居)

앙상해진 고목이 한림 속에서
봄을 몇 번 만나고도 맘 변하지 않았네.
나무꾼이 보고도 본체만체 하는 것을
먼 곳에서 사람이 힘들여 찾아올 게 무엇인가?
연못의 연잎이면 입을 옷 충분하고
소나무 몇 그루 송홧가루로도 먹을 것이 남네.
사람들에게 있는 곳 알려졌으니
띠집 옮겨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겠네.


동안거 기간동안 백담사 무문관서 정진한 백담사 무금선원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이 지난 3월 4일 백담사 검인당에서 거행된 해제 법회에서 법어를 내리고 있다.

“대중들이여 매실이 잘 익었구나”
무산 스님, 법문때 대매선사 일화 소개
마음의 고삐 다잡아야 함을 강조

생무 · 고구마 한끼 해결하며
3개월간 수좌들과 똑같이 수행
스님의 사무친 화두는 무얼까


安 居 證

法 名 : 喜 山 증리번호 : 0359-53
本 寺 : 新興寺

上記 僧侶는 百潭寺 無令禪院에서
甲午年 冬安居를 成滿하였기에
이 證書를 授與함.

佛紀 2559年 3月 5日

大韓佛敎 曹溪宗 第三敎區
百潭寺 無令禪院

祖室 雪岩
維那 永

무산 스님의 무문관 동안거 수행을 증명하는 ‘안거증’. 무산 스님 명의로 발행된 것이 흥미롭다

하던 스님이 우연히 대매 법상 선사의 암자까지 오게 되었다. 이 스님은 대매 법상 선사를 보고서 물었다.

“화상께서는 얼마동안 여기에 계셨습니까?”

“사방의 산이 푸르렀다 누렇게 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산을 벗어나는 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냇물이 흐르는 곳을 따르라.”

이 스님이 돌아와서 대매 법상 스님 만난 일을 털어놓으니 염관 제안 선사가 말했다.

“내가 강서(江西)에 있을 때 한 스님을 만났다가 그 뒤로는 소식을 몰랐는데 그 스님이 아닐까?”

염관 제안 선사는 대매 법상 스님에게 다시 제자를 보냈다. 대매 법상 스님을 불러오기 위해서였다. 다시 스님이 찾아오자 대매 법상 선사가 읊은 시가 바로 설악 무산 스님이 해제 법어에서 읊은 시이다.

설악 무산 스님은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대매 법상 스님의 일화를 설명하면서 “수행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사무치고, 사무치고, 사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악 무산 스님은 “수행자는 생사고해를 타파하고, 일대본분사를 해결할 때까지 진정한 해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설악 무산 스님은 이어 대매 법상 스님과 마조 스님의 제자가 주고받은 선문답도 소개하였다.

마조 선사가 대매 법상 선사의 근황을 듣고 제자를 보냈다. 그 스님이 대매 법상 스님을 보고서 물었다. “화상께서는 마조를 뵙고 얻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사십니까?”

대매 법상 선사가 대답하였다. “마조선사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心卽是佛)라 하시기에 나는 여기에 와서 산다네.”

“요사이에는 다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고 하십니다.”

대매 법상 선사가 다시 말했다. “그 늙은이가 사람 속이기를 그칠 날이 없구나. 자기 멋대로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 하나 나는 나대로 마음이 곧 부처라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조 선사가 기뻐하면서 말했다. “대중들이여, 매실(梅子)이 잘 익었구나.”

설악 무산 스님이 대매 법상 선사의 이야기를 전한 까닭은 수행은 마음 밭을 일구는 것이고, 마음 밭을 일구려면 단단히 마음의 고삐를 쥐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듯싶었다.

설악 무산 스님은 자신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을 한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대매 법상 선사의 게송을 주련으로 쓰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속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영진 스님이 오늘 해제 법회 법어로 이 글을 써온 거야. 마음이 통한거지.”

설악 무산 스님의 말은 수행력이 깊어지면 서로 말하고 듣지 않아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렇게 법어가 끝나는 듯싶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악 무산 스님은 이색적인 퀴즈대회를 열기 시작했다. 따로 마련한 돈봉투를 꺼내 보이면서 퀴즈의 정답을 아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설악 무산 스님의 입에서 나온 문제는 선어도, 경구가 아니었다.

“2005년 이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한 말이 뭔가?”

오명철 ‘동아일보’ 前 편집국장이 손을 든 뒤 답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어라”

법문 중 파격 퀴즈대회 열고
학생에게 배운 “괜찮아” 설법
퀴즈 방편으로 깨달음 쉽게 전해 ‘눈길’

“Stay hungry, Stay foolish”

설악 무산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 뜻이 무엇인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어라.”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이 다른 질문을 냈다.

“그렇다면 올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한 말은 무엇인가?”

이어 설악 무산 스님은 몇 가지 힌트를 줬다.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올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그레이엄 무어의 소감이라고 일러줬다.

다시 오 前 편집국장이 손을 들고 답했다.

“이상해도 괜찮아, 남과 달라도 괜찮아(Stay weird, Stay different)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은 이어 자신이 스티븐 잡스와 그레이엄 무어의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소개했다.

“신문도 읽을 수 없고, 컴퓨터도 쓸 수 없는 무문관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설악 무산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는 한 학생이 안거 중 쪽지를 넣어주었던 것이다.

“그 학생이 날 찾아왔다가 안거 중이라 못 만나니까 쪽지를 남겨놓고 갔어. 학생이 내가 노망나서 무문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신문서 읽은 모양이야. 학생은 조금 걱정이 됐겠지. 내가 노망나는 바람에 자기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대학도 못 가는데, 하는 걱정이.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야. 장학금 못 받아도 괜찮아. 대학 못 가도 괜찮아. 편지를 보니 ‘노망나도 괜찮아’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그레이엄 무어가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에서 ‘이상해도 괜찮다’고 말했다면서.” 사부대중의 웃음이 터졌다.

설악 무산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동안거, 하안거 해제 법회 때마다 내가 다소 고민을 했거든. 공부하는 수행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문이 없을까하고. 그런데 그 학생의 편지를 받고 내가 깨달았어. 특별히 감동을 주지 않는 법문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영진 스님의 전언에 따르면 설악 무산 스님은 다른 납자들과 똑같이 무문관 11호실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만 들면서 수행에 전념했다고 한다. 생고구마와 생무를 들면서 설악 무산 스님이 ‘사무치고, 사무치고 또 사무치게’ 잡은 화두는 무엇일까?

백담사를 빠져나오는 길, 하루 전 내린 눈밭이 햇볕에 빛나고 있었다. 문득 미당 서정주의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이 떠올랐다.

수부룩이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는/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중략〉 울고/ 웃고/ 수구리고/ 새파라니 얼어서/ 운명(運命)들이 모두가 안기어 드는 소리,// 큰 놈에겐 큰 눈물 자국, 작은놈에겐 작은 웃음 흔적

그러고 보면 내설악에는 참으로 품이 넓은 산주가 있어 울고, 웃고, 수그리고 새파라니 언 숨을 탄 모든 것들이 안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유응오 작가
사진=김주일 기자

2015(불기2559)학년도 삼학불교 전문강원 학인모집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 집 안 내

과정	기간	교 육 과 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 고
		1학기	2학기			
치문반	1학년	치문경훈	대승백법명문론	월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사집반	2학년	도서, 선요	서장	목 · 금요일	오후 6시 ~ 9시	
사교반	3학년 4학년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2016학년도 개강 예정임		
		대 승 기 신 론, 능엄경				

◆ 모집인원 : ○○명
◆ 개강일시 : 2015년 3월 9일 → 치문반 (1학년)
2015년 3월 12일 → 사집반 (2학년)
◆ 강원수강료 : 1학기당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접수문의 : ☎ 02) 833-0374, 010-9728-0788
※ 한문이 익숙치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상원사에서는 행자를 모집 합니다.

상 원 사 주 지 정산당 법 정
삼학강원 강 주 도 종 (※ 전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합장

명 리 학(미래예측학) 모집

木 火 土 金 水

⊙ 흉함을 피하고 “길” 함을 좇는다 ⊙

◎ 모집학과
○ 명리기초반 : 6개월 (목요일 14:00 ~ 17:00)
○ 명리고급반 : 6개월 (금요일 14:00 ~ 17:00)
○ 통변실전반 : 6개월 (개인지도)

◎ 개강일시
○ 기초반 : 3월 12일 14:00 ~ 17:00
○ 고급반 : 3월 13일 14:00 ~ 17:00

◎ 수강료
○ 기초반 : 월 20만원
○ 고급반 : 월 30만원
○ 실전반 : 별 도 상 담

◎ 문의전화
○ 교수직통 : 010-5205-6535
○ 사 무 실 : 02) 833-0374

◎ 강사 : 서전 윤 관 교수
(※ 현 상원사 백상문화원 부원장)

※ 천기누설을 참부로 입에 담지말라

오시는길
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상원사 관악농협 대림동지점 맞은편
②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 로 나오셔서 문의주세요

“내설악도 외설악도 설악일 따름”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해제 현장을 가다

지난달 초이튿날 한 수좌가 와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길래
내설악 백담계곡에는 반석이 많다고 했다.
–오현 스님 〈무설설(無設設)〉

동안거(冬安居) 해제(解制)법회를 하루 앞둔 3월 3일 백담사 무금선원(無今禪院)을 찾았다. 백담사로 가는 오르막길은 빙판길이어서 일반차량 운행이 금지돼 있었다. 백담사에 요청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백담사로 향하는 내내 차창밖에는 장관이 펼쳐졌다. 백담계곡에는 실로 반석(磐石)이 많고 괴석(怪石)도 많아서 절로 〈무설설(無設設)〉 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무설설(無設設)〉 은 무금 선원 조실 설악(雪嶽) 무산(霧山) 스님이 지은 시이다. 설악 무산 스님은 ‘오현’ 이라는 속명이자 필명으로 세간에 더 알려져 있다.

설악 무산 스님의 ‘무설설(無設設)’ 은 조주 선사의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남송의 무문 혜개 선사가 지은 〈무문관(無門關)〉의 37칙이 바로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이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는 깨달음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생생활 속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공안인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다. 백담(百潭)은 대청봉에서 백 번째의 연못이 있는 지점이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백담사에는 수많은 깊고 넓은 담(潭)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 좁고 엷은 소(沼)가 물길을 모았다가 아래로 내려 보내고 있었다. 겨울이어서 목화솜 이불을 덮은 듯 백담 계곡에는 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으나, 눈밭 아래로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머지않아서 백담 계곡에 봄이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찰 입구 수심교(修心橋)에 다다르자 계곡에는 돌탑들이 즐비하였다. 백담사를 참배한 신도들이 소망을 담아 올린 돌탑들이었다. 어쩌면 오현(설악무산) 스님이 말한 반석은 넓고 크고 편편한 돌만 일컫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쉽게 볼 수 있는 돌멩이도 쌓고 또 쌓으면 비원(悲願)을 담은 여법한 돌탑이 되는 것을 보면….

흰 눈에 파묻힌 내설악의 가운데 무금선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선원 이름인 ‘무금(無今)’ 은 ‘무고무금(無古無今)’ 을 줄인 말이다. 그 뜻은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예도 없고 지금도 없다’ 는 것이다.

백담사 무금선원에는 조계종 종립 교육기관인 무금선원 기본선원과 무문관(無門關) 특별선원이 있다. 기본선원은 행자교육을 마친 사미승들이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곳이고, 무문관은 법랍이 높은 스님들이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깨달음을 얻고자 문을 닫아걸고 용맹정진하는 곳이다.

동안거 내내 바깥문을 닫아걸고 내관(內觀)에 집중했을 스님들을 떠올리니 절로 황벽 희운 선사의 선시가 뇌리에 스쳐갔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니, 승두를 단단히 잡고 공부할지어다.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

무문관의 백납(百衲)들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날카로운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독방에서 면벽을 하면서 겨울을 났을 것이다. 백담사가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한 것은 1998년 설악 무산 스님이 무금선원을 개원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백담사는 대중들에게 전두환 前 대통령의 적소(謫所)로만 알려져 있었다. 신영복 씨는 〈나무야, 나무야〉에서 백담사에는 만해 한용운과 일해 전두환의 발자취가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백담사를 ‘일해의 적소’ 에서 ‘만해의 얼이 깃든 도량’ 으로 일신한 것도 설악 무산 스님이다. 스님은 만해 축전을 통해 백담사의 사격을 키우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였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를 정신적 귀의처로 삼은 것은 3.1운동 실패 이후였다. 이때 만해 한용운 스님은 ‘님의 침묵’ 이라는 근대문학에 기리 남을 역작과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라는 불멸의 불교서적을 남겼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외부로 향한 문을 닫아거는 대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개오(開悟)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이번 동안거에도 많은 납자들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디면서 정신의 매화향기를 얻고자 용맹정진하였을 것이다.

이번 동안거에는 무금선원의 조실인 설악 무산 스님도 무문관 수행에 동참하였다. 설악 무산 스님은 10여 년 전에도 무문관에서 한 철을 난 적이 있다. 당시 스님의 심경은 ‘내가 나를 바라보니’ 라는 시편에 잘 묻어 있다.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가/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시를 읽고 나면 당시 설악 무산 스님의 화두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벌레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것이다. 벌레의 움직임 속에서 삶의 율동을 읽는 설악 무산 스님의 경계는 도저하고도 웅숭깊다. 안팎의 경계가 따로 없는 무문관을 깨친 스님이기에 비루한 생명의 움직임을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전경. 문 없는 문에서 화두 일념으로 생사관을 타파하기 위한 수행납자들이 이번 동안거 기간에도 정진했다. 무문관 안거에는 조실 설악 무산 스님도 동참했다.

하루 한끼만 허락된 좁은 공간서
생사관 타파하는 운수납자들
조실 스님도 정진 동참 ‘귀감’

한 수좌, 난방시설 고장나도 일념 정진
신청자 많아 무문관 입방 경쟁 치열



무문관 수행을 마치고 길을 나서는 수좌 스님들.


무문관 뒤편에는 하늘을 보고 행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무문관 수행에 대해 내밀하게 알고 싶었다. 다행이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과 기본선원장 신룡 스님이 인터뷰에 응해줘서 무문관 수행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은 무문관을 “문을 닫아걸면 열리는 순간까지 나올 수 없는 수행처”라고 정의했다. 여러 차례 무문관에서 안거를 한 신룡 스님은 한 번은 이빨이 빠지는 아픔 속에서도 수행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오래 전 한 스님은 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흙벽이 부서져 내렸음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동안거에도 한 스님은 난방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추위를 견디며 일념으로 화두를 들었다고 한다. 무문관에서는 하루 한 끼만이 허락된다.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방안에는 좌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그렇다보니 무문관에는 수행력이 있는 구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신청자들이 많아서 무문관에 들어가기가 명문대 경쟁률과 다르지 않다.

영진 스님과 신룡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자 동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점심공양을 하러 나오는 게 보였다. 동안거 해제 법회를 앞두고 무문관의 문을 연 것이다. 처음으로 무문관에서 안거를 했다는 한 스님에게 “무문관 수행이 어렵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다. 그 스님이 엷은 웃음을 보이면서 설악산을 가리켰다.

“내설악이니 외설악이니 구분하지만, 설악산의 일부일 따름이죠.”

문밖의 경계와 문안의 경계가 다르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리라.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백담계곡에 반석이 많은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글=유응오 작가 · 사진=김주일 기자

유응오 작가는
〈불교신문〉,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주간불교〉 〈불교투데이〉 편집장 역임.

인터뷰 |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

“화두일념으로 경계 넘는 곳”



“무문관의 첫째 철칙은 문을 닫으면 여는 순간까지 밖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려면 날짜 가는 것, 시간 가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금(無今)의 자리인 것이지요.”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은 무문관 수행의 철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영진 스님은 유나 소임을 맡기 전에도 여러 차례 무문관에서 안거를 한 바 있고, 3년 전부터는 유나 소임을 맡아 다른 납자들의 정진을 지도해오고 있다. 이번 동안거에는 조실 설악 무산 스님, 유나 영진 스님을 포함해 12명의 납자가 무문관에서 정진했다. 영진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백담사 무문관은 문이 없는 수행처입니다. 관문을 타파하자는 것이지요. 여기서 관문이란 생사관과 조사관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생사관은 생사해탈을, 조사관은 화두참구를 일컫습니다. 화두를 잡고 일념으로 정진함으로써 생사일여의 경계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3년전부터 유나 소임 맡아 납자 지도
“무문관, 無今 경계서 자기 응시 깊어져”

영진 스님은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보니 수행력을 갖춘 구참들이 주로 무문관에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백담사 무문관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각기 납자의 공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 영진 스님은 “몇 년 전 동안거를 하신 정휴 스님이 ‘좁게라도 행선(行禪)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 건의하셔서 불사를 했다”고 말했다.

설악 무산 스님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영진 스님은 “스스로 낙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안팎의 경계가 따로 없는 분이니 무엇을 더 구하고 얻을 것이 없었을 텐데도 무문관 정진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실 스님은 예고 없이 동안거에 드셨어요. 백담사 무금선원이 여법한 수행처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실 스님의 공로입니다. 평소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동안거에 동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불사 중 가장 큰 불사는 인재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람이 여법해도 수행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산주(山主)께서 자리 잡고 계시니 설악산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엄의 꽃 절집 천정

〈31〉 토함산 불국사 대웅전

화엄불국 만다라의 결정체



대웅전 천정 전체 개요. 향우측의 천정엔 사자와 용이, 향좌측의 천정엔 횃대를 입에 문 코끼리와 용을 조영했다. 천정에 넣은 문양은 모두 여섯 가지다. '불법승' 삼보귀의의 천정문양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불국사는 화엄불국토의 연화장세계

불국사(佛國寺)는 고운 최치원선생의 '화엄불국사 아미타불화상찬' 의 제목처럼 '화엄불국사' 다. 화엄불국(華嚴佛國)이라는 네 자 속에 깊고도 오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신라 사람들의 시대정신과 세계관이 반영된 화엄불국토가 불국사다. 화엄세계는 형상도, 음성도 없고 오직 진리 그 자체로 두루 빛을 비추는 광명편조(光明遍照)의 비로자나 법신을 온갖 꽃으로 장엄한 화장세계(華藏世界)다. 그 세계는 언어의 형용이 끊어진 언어도단의 불가설(不可說) 세계이므로 꽃의 방편으로 표현할 따름인데,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처염상정의 연꽃으로 장엄한 '연화장세계' 다. 일체 번뇌의 불이 꺼지고, 고요의 수면에 우주만유의 실상이 본면목으로 현현하는 해인삼매의 세계가 곧 화엄세계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순간 비로자나 부처님과 일체를 이루셨다. 즉 진리 그 자체의 법신이 되신 것이다. 거룩한 석불사(석굴암) 조형은 그 정각의 극적이며, 위대한 불멸의 종교예술적 구현이다. 모든 불보살은 비로자나불의 원력과 광명에 의한 현현이시다. 석불사에 일체지(一切智)의 진리와 해인삼매 적정을 구현하고는, 산등성이 너머엔 장대한 기단과 석축, 회랑을 통해 세간과 출세간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불국토를 조영하였으니, 그곳이 화엄불국사다. 1200여년전 신라인들이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 부으며 불교사상의 근본인 화엄사상을 토대로 화엄불국을 건축적, 예술적 조형으로 집대성한 부처님의 나라가 불국사인 까닭에 불국사는 화엄경-비로자나불-해인삼매-화장세계의 불교세계관이 거시적으로 통합된 화엄불국의 만다라다. 비로전-비로자나불-화엄경으로 구축한 연화장세계를 비롯하여, 대웅전-석가모니불-법화경으로 연결되는 사바세계, 극락전-아미타불-무량수경의 체계를 갖춘 극락정토 등 80여동 2,000여 칸에 이르는 불국 대가람을 경영한 것이다.

대웅전영역은 법화경의 건축적 해석

대웅전 영역은 법화경 경전의 미묘한 변상으로 경영되었다. 다보탑, 석가탑, 대웅전의 건축집합은 석가모니불께서 영산회에서 설하신 〈묘법연화경〉을 토대로 구축한 현세의 사바세계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법화경 경전내용을 압축한 경이로운 인류유산으로 그 조형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법화경〉 제 11품 '견보탑품(見寶塔品)' 에는 석가여래께서 영산회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다보여래께서 칠보로 장엄한 다보탑으로 땅에서 솟아올라 "석가여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라 증명하고, "거룩하시다, 또 거룩하시다"고 찬탄하는 극적인 장면을 나타냈다. 석가탑은 원래 이름이 '석가여래상주설법탑' 이고, 다보탑은 '다보여래상주증명탑' 이다. 두 건축은 진리의 상주설법과 상주증명의 경전내용을 표현한 통상적인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의 양식을 초월한 사상 유례없는 경전해석과 종교예술이 아닐 수 없다.

대웅전 건물은 〈불국사고금창기〉에 따르면 임진왜란때 왜구에 의해 소실된 지 150여년이 지난 1765년에 중창되었다. 통일신라의 석축기단 위에 조선후기 목조건축을 올렸다. 내부의 불단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불단이 화강암 석조 받침 위에 조성되어 있는 까닭이다. 통일신라시대 유구 위에 불단을 얹어 두었다. 두 층위에서 1,000년의 시간 단층이 형성되어 있다. 단청은 2년 후인 1767년에 입혔다. 대웅전에는 천백억화신 석가모니께서 과거불 갈라보살과 미래불 미륵불의 협시를 받으며, 상수제자 마하가섭과 아난존자를 거느린 채 결가부좌로 상주해 계신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염화미소로 전수받은 상수제자이시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청한 다문제일이신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는 경전구절의 주인공이시다. 즉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였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한 것이니, 한 분은 불교의 선(禪)을, 또 한 분은 팔만대장경의 교(敎)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대비적 배치가 아니라, 다보탑과 석가탑 배치처럼 비대칭적 대칭의 불이(不二)의 통일성이라 봄이 마땅하다. 대웅전 공간에는 이러한 비대칭적 대칭을 통한 통일성의 추구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차이를 배려한 조화와 균형감각이 탁월하다. 청운교와 백운교, 다보탑과 석가탑, 좌경루 기단과 범종루 수미단, 과거 갈라보살과 미래 미륵보살, 선의 가섭과 교의 아난, 문수보살의 사자와 보현보살의 코끼리, 좌우 사천왕 후불벽화 등 원융의 화엄철학이 장엄세계 곳곳에 녹아 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보탑, 석가탑 등 비대칭적 대칭
천정감실에 학, 거북, 물고기, 비천



천정에 베푼 여섯 가지 문양 세부. '佛' 자를 입힌 국화문양은 천정에 장엄한 꽃의 정체성을 확연히 일깨워 준다. 천정의 꽃은 화엄법계다.

대웅전 내부장엄과 단청에는 250년동안 켜켜이 쌓인 시간의 더께가 물씬 묻어난다. 고색창연한 내부단청이 적멸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벽화, 조형, 문양들은 사찰 천정장엄의 정수를 보여주듯 다채롭고 소재도 풍부하다. 사찰 천정장엄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조형원리, 제작기법, 소재 등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운궁형 닫집 대신 위로 한껏 밀어올린 감실천정을 경영한 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울 뿐이다. 그럼에도 감실의 벽면에는 연속하는 드림 주의초(柱衣草)를 내렸으며, 널판의 판벽에는 비천과 학, 거북, 물고기 등 수중생명과 날것을 통해 깨달음을 통한 자유자재의 무애열반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대웅전 내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소재는 크기와 형상, 표정들이 다채로운 길상혹은 법계수호 동물들의 인상이다. 그 조형 표현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 대범하게 실현된 까닭에 후기인상파의 화폭처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다.

화엄경-비로자나불-화장세계 구현
국화문양 씨방자리에 '佛' 자 베풀어

코끼리, 사자, 전위적인 설치예술

퇴칸 들보 위에 얹은 코끼리와 사자조형은 특히 강렬하다. 코끼리는 자비행의 보현보살을, 사자는 반야의 문수보살을 상징한다. 불전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벽화로 표현하지만, 불국사 대웅전에서는 두 앞발은 들보 위에 직각으로 얹고, 뒷발은 건축공포 포작의 끄트머리에 걸친 파격적인 배치의 입체조형으로 표현해서 놀랍다. 충량의 표현방식에서 한 쌍의 용으로 결구하던 통상적인 양식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어 아방가르드적인 설치예술 분위기를 연출한다. 게다가 성스러운 상아 뿔을 가진 흰색 코끼리는 용 몸뚱이 형상의 횃대를 입에 물고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등사, 불영사, 환성사, 운문사, 은해사 백흥암, 직지사 등의 일반적인 양식과는 상이하다. 또 횃대의 몸통에는 10개의 금동종을 매달아 가장 많은 개체 수로 손꼽히고, 횃대의 가운데는 솟대의 기러기처럼 청색과 초록의 깃털을 가진 파랑새가 앉아 이채롭다. 용과 종의 결합, 파랑새는 부처께서 설하신 진리법의 일승원음의 상징일 것이고, 코끼리의 입에 매달아 둔 것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방편으로 짐작된다. 사자조형 역시 예사롭지 않다. 언뜻 보면 북청사자탈을 연상하게 하는데 흰색 몸통에 초록과 붉은 색 반점을 입혀 생동감을 살려냈다. 얼굴은 몸체에 비해 과장되었고, 툭 튀어나온 왕방울의 눈과 주먹코가 대단히 해학적이다. 민화에서 호랑이를 익살로 비튼 조선민중의 재치와 해학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앞 뒤 내부고주(高柱)에서 또 다시 사자, 코끼리 조형을 작은 액센트로 변주해 놓아 눈길이 미친다. 이곳 사자와 코끼리는 신령한 구름의 기운 속에 나투는 천상의 길상이며 결계적 수호자로 보인다. 몸통에 붉은 주술적 서기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까닭이다. 앞줄 고주의 사자는 특이하게도 등에 죄업을 비추는 업경대를 얹었다. 업경대의 상징은 거울을 통한 반성과 성찰에 있다. 불전에 들어와 자신을 돌아보라는 교훈적 암시를 던진다.

희귀한 '불법승' 삼보귀의 문양

대웅전 천정은 3단의 층급 우물천정으로 경영한 덕분에 공간의 깊이감이 심층적이며 중층적이다. 정면 5칸, 측면 5칸의 널찍한 평면적 규모와 결합해서 내부공간의 텅빈 충만감이 크게 느껴진다. 가장자리 널판천정엔 장고, 생황, 태평소, 당비파 등을 연주하는 남성적 주악비천과 생기가 묻어나는 여의보주를 공양 올리는 공양비천이 천의를 휘날려 예경과 찬탄의 거룩함을 드러냈다. 우물천정에 베푼 문양은 여섯 가지로 다채롭고, 고색의 차분함이 침묵의 두터움을 더한다. 문양 저마다는 강한 개성을 드러낸다. 그 중 단연 눈길을 끄는 문양은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범자 '옴' , 또는 '귀' 자에서 폭발하듯 에너지가 팔방으로 퍼져나가 각 방위마다 화엄의 꽃이 피어나는 장면이다. 화엄의 꽃은 범자 종자불로 화현하여 무진법계의 불국토를 이루거나 '나무아미타불법승(南無阿彌陀佛法僧)' 여덟 한자로 현현한다. 나무아미타불과 불법승(佛法僧) 삼귀의(三歸依)를 동시적으로 보인 매우 희귀한 문양이다. 천정에 삼보귀의를 천명한 희유의 사례로 주목된다. 신심이 흐르는 천정은 중중무진의 법계이자, 불국토를 이룬다. 우물천정 칸칸이 화엄불국의 모듈(module)이다. 한 칸 한 칸이 부처께서 상주하시는 당처(當處)다. 국화문양의 씨방 자리에 '佛' 한 자가 별처럼 빛난다. 천정에 새긴 무시무종의 세계도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 처럼 '佛' 로 삼회일귀(三會一歸)한다. 불국사 대웅전 천정에 불멸의 꽃이 피었다, 그 화엄의 꽃. 〈끝〉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존불상과 마하가섭, 아난존자. 사천왕 그림은 탱화가 아니라, 250년 된 후불벽화다.



대웅전 내부천정. 3개 층위의 층급 우물천정이다. 천정감실 벽면에 학, 거북, 물고기 등의 조형을 베풀었다.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 전경. 법화경 경전의 세계다.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중도의 마음이 '올바른 실천의 길'을 연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0.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중도(中道)와 정도(正道)

부처님의 근본설법인 '사제설법'에 있어서의 제사제는 소위 팔정도(八正道)를 그 내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고(苦)의 멸(滅)에 이르는 길의 성제란 이러하다. 그것은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이다. 즉,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여기에서 붓다는 이 괴로운 인생의 연(緣)하여 멸하는 방도를 실현하는 실천의 항목(項目)을 설명하며,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 즉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거기에 불교실천의 근본항목을 볼 수 있지만 이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은 또 붓다가 네 가지의 성제를 전개하기에 앞서 벌써 이 설법에 있어서 중도(中道)의 내용으로써 설법(說法)한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버리며 중도(中道)를 현등각하였도다. 이것은 안(眼)을 생기게 하며 지(智)를 생기게 하며 적정(寂靜), 증지(證紙), 등각(等覺), 열반(涅槃)에 도움이 되도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여래의 현등각한 중도(中道)라고 하는가. 그것은 즉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이니라.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니라."

즉 붓다는 그 최초의 설법에 있어서 '성스러운 팔지의 길'을 두 번 설명하였다. 그 한 번은 이것을 중도의 내용으로써 설명하였으며 또 한 번은 네 가지의 성제의 제사제에서 이 괴로운 인생의 극복을 위한 실천항목으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도란 것은 이것을 열면 여덟 갈래의 성도(聖道)이며 성도란 말할 것도 없이 정도(正道)이다. 더 요약해서 말하면 성(聖)이란 올바름이며 중(中) 또한 올바름인 것이다.

'올바르다'라는 것의 첫 번째 조건

그러면 도대체 '올바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불교에 있어서의 실천의 문제에 한 발자국도 들여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성스러운 팔지의 길'은 모두가 '올바르다'라는 형용사로써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조건을 가짐으로서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먼저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의 첫째 항목인 '정견(定見)'에 관해서 그 조건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정견'은 팔정도의 제일항목일 뿐만 아니라 또 팔정도의 기체(基體)이며 다른 칠지(七支)의 길은 모두 이 '정견'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견(見)'이란 것은 불교의 용어로써 말한다면 관찰하며 사택(思擇)하는 것, 오늘날의 말로써 말한다면 인식작용의 활동으로서의 표상(表象)에서 판단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어떤 경전에서 석존은 이러한 비유(譬喩)로써 그런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여기에 하나의 물그릇이 있다고 하자. 그 물은 가열(加熱)되어 끓고 있다고 하자. 혹은 풀잎 같은 것에 덮혀 있다고 하자. 혹은 부는 바람에 의하여 물결치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이 물그릇의 물은 여실하게 사물의 상(相)을 반영(反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그리고 붓다는 탐욕 진에 같은 것이 이러한 여실관찰(如實觀察), 여실지견(如實知見)을 방해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협잡(挾雜)하는 요소(要素)를 가리켜 복(覆, 덮는 것)이라고 말하며, 혹은 애(碍, 방해하는 것)라고도 말한다. 이런 것을 제거(除去)하고 맑고 깨끗한 주관으로써 곧 객관에 대한다는 것, 이때 일체(一切)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주관에 수용(收容)되며 주관 속에 사택(思擇)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고 불러도 좋으며 정관(正觀)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무애(無碍)의 정견(定見)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렇게 하여 망견을 떠나서 정견이 되는 것이다.

회랍의 철인(哲人)들은 진리를 알레테이아(aletheia)란 말로 불렀다. 그 뜻도 또한 '덮혀있지 않는' 것 이라는 의미이다. 덮혀 있는 것이 망견이며, 방해되어 있는 것이 망견이며, 덮혀 있지 않는 것이 진리이며, 방해되지 않는 곳에 무애(無碍)의 정견은 있는 것이다.

그 점에 우리들은 '올바르다'는 것이 되는 제일 첫 번째의 그리고 근본적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올바르다'는 것의 두 번째 조건

또 다시 우리들은 '올바르다'라는 것의 두 번째 조건으로서 '전도(顚倒)의 견(見)이 아닌 견(見)'이라는 사유 방식을 들 수 있다. 옛 경전에 '전도(顚倒)의 견(見)이 아닌 것 이것을 정견(正見)이라고도 이름한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그 판단사택(判斷思擇)에 있어서 순서에 맞지 않으며 진상을 잘못



구미 도리사의 팔정도 해설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자 실천 지침인 팔정도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중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큰 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도이며 작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도 전도이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고 하는 것도 전도이며,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전도이다. 무상(변화하는 것)한 것을 상(常, 변화하지 않는 것)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도이며,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전도이다.

예부터 사전도(四顚倒)라는 말이 있다. 범부(凡夫)의 전도에 네 가지가 있다 하여 하나는 상전도(常顚倒), 이 무상한 존재를 상(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낙전도(樂顚倒), 이 괴로운 인생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세 번째는 정전도(淨顚倒)도, 부정(不淨)한 존재를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네 번째는 아전도(我顚倒), 무아(無我)인 존재에서 아(我)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은 불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한 전도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들이 잘 생각하여 보면 가지각색의 전도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전도가 있는 곳에는 '올바른' 견(見)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또 어떤 경전은 "허망분별(虛妄分別)은 어느 것을 근본(根本)으로 하는가. 대답하여 말하되 전도(顚倒)의 상(想)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르다'라는 것의 세 번째 조건

다시 '올바르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에서부터 떠난다는 것을 세 번째 조건으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은 그대로 '중도(中道)'의 가르침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옛 경전은 이것을 "여래는 변(邊)을 떠나서 중(中)에 처(處)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한다. 그런데 극단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어딘가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오른쪽의 극단으로 흐르며 또 왼쪽의 극단에 기울어지는 일이 있다.

극단을 사색하며 극단을 실천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다. 붓다 그 사람까지도, 이러한 극단에 고집하고 있었음을 불전(佛傳)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금욕고행(禁慾苦行)에 몸을 던지면서 그것에 의해서 길을 타개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고 단호히 금욕고행을 버리고 비로소 큰 길을 타개할 수가 있었다.

아마 이러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붓다는 어느 때 한 제자에게 이러한 교훈을 말한 것이 아닐까.

"거문고의 줄이 느슨하면 타기에 적합한가?"

"너무 느슨하면 탈 수 없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한 것은 어떠한가?"

"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으니라. 거문고를 타는데도, 완급(緩急)이 적당하지 않으면 미묘한 소리를 낼 수 없느니라. 이 길의 실천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욕락(欲樂)에 빠지는 것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올바른 길은 아니다. 언제나 적절하며 기울지 않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열반(涅槃)에의 길은 실현하지 못하리라."

즉 변(邊)을 떠나서 중도(中道)에 처(處)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몸소 체험하였으며 또 그 체험을 들어 제자들에게 설명한 '올바른' 실천의 길이었던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이 천년 뒤에 전해진 까닭 (上)

문 부처님의 시현(示現)하심이 주(周)나라 소왕(昭王) 시대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 시대에 이쪽 중국을 함께 교화하지 않고, 교법(敎法)은 한(漢)나라 때에 유전하고, 선법(禪法)은 양(梁)나라 때에 이르러, 천 년의 뒤에 까지 지연되었음은 무슨 까닭인가.

답 "부처님의 법이 유행함은 반드시 시기와 운수를 의지하는데, 구차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천시(天時)를 진퇴(進退)하지 못함과 같다."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 다섯 뇌고(牢固)가 있는데, 다 오백세(五百歲)로 한정한 것은 다섯 손가락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다.

무릇 세상의 운세가 오백 세에 한번 변하는데 역시 오행(五行)의 감득(感得)한 바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백년에 반드시 왕도정치(王道政治)할 자가 일어남이 있다"하였는데, 또한 이것을 말함이다.

이른바 '다섯 뇌고'라는 것은 제일은 해탈뇌고(解脫牢固)며, 제이는 선정뇌고(禪定牢固)며, 제삼은 다문뇌고(多聞牢固)며, 제사는 복덕뇌고(福德牢固)며, 제오는 투쟁뇌고(鬪諍牢固)니, 이는 법문(法門)이 세상을 따라 이변(移變)하는 점차이다.

대체로 해탈·선정은 법이 가장 오묘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그 뜻은 또 언교(言敎)의 밖으로 떠났는데, 이것은 교법(敎法)이 이 시기를 당하여 이르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다문(多聞)의 시한(時限)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다문으로써 뇌고를 삼기 때문에 교법의 유행이 이때에 운행함이 마땅한 것이다.

영평 삼년(永平三年) 사월 팔일에 왕준 등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궐하(闕下)를 하직하고 모든 지방을 순력(巡歷)하여 오 년 만에 서천(西天) 월지국(月支國)에 도착하였다.

홀연히 길 가운데서 두 범승(梵僧)을 만났는데, 한 스님은 성(姓)은 가섭(迦葉)이고, 이름은 마등(摩騰)이었으며, 한 스님은 성은 축(竺)이고, 이름은 법란(法蘭)이었다.

그들은 범자(梵字)로 된 금강반야(金剛般若)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유마경(維摩經)과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지니고 한토(漢土)에 오려고 하다가 한나라 사신을 보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물으니, 왕준 등이 대답해 말하였다.

"한나라로부터 오는 중입니다. 한나라 조정의 천자께서 꿈에 금인(金人)을 보았는데, 입으로 칭하기를 '나는 부처이다. 멸도한 이래 지금 천세를 지났으니 큰 가르침이 동토(東土)에 유전함이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 등을 파견하여 먼 길을 건너 서방의 성교(聖敎)를 찾으라 하시었습니다."

이때에 두 범승이 찬탄해 말하였다.

"한나라 사신이 부처님 법을 구하고자하여 서쪽 나라에 옴은 다 성인의 힘이 가만히 부촉하고 인연이 회우(會遇)하여 여기에서 서로 만난 것입니다. 정(情)으로 한토에 아직 부처님의 법이 있지 않음을 알고 빈도 등이 지금 부처님 법을 받들고 여기에 왔으니 천자의 사신들은 번거롭게 서쪽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왕준 등이 비상(非常)함을 희열(喜悅)하며 예(禮)를 하여 공경을 드리고 불경(佛經)을 봉수(奉受)하여 백마(百馬)에 싣고, 두 스님과 더불어 낙양에 오니, 곧 영평 십사년(永平十四年) 시월 팔일이었다.

범승曰 "가르침 구하고자 서역에 온 것은 성인이 부촉하고 인연 회우함이니"

왕준 등 세 사람이 복명(復命)하고 불경을 황제에 드리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황금 각 천 량(千兩)씩을 하사하시었으며, 두 스님은 홍로관(鴻盧館)에 있으면서 경을 번역하도록 칙명하시고 황제께서도 수지(受持)하여 염송(念誦)하기를 쉬지 않았다.

백마(百馬)는 먼 길을 오느라 피로함으로 인하여 병들어 죽었는데 칙명으로 낙양성 서쪽에 장사 지내고 그 처소에 한 가람(伽藍)을 조성하고 편액(偏額)을 백마사(百馬寺)라 하였다.

때에 오악(五岳)의 도사(道士)와 및 활대소(滑大素)와 신문신(新文信) 등이 문도(門徒) 육백여인을 거느리고 서로 말하였다.

"어찌하여 황제께서는 홀연히 미친 마음을 일으키어 우리의 도문(道門)을 버리시고, 멀리 오랑캐의 가르침을 구하여 현재는 중하게 여기고, 옛날은 가볍게 여기며, 귀로 들음을 귀히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가. 누가 간하여 오랑캐 신의 가르침을 쫄이고 물리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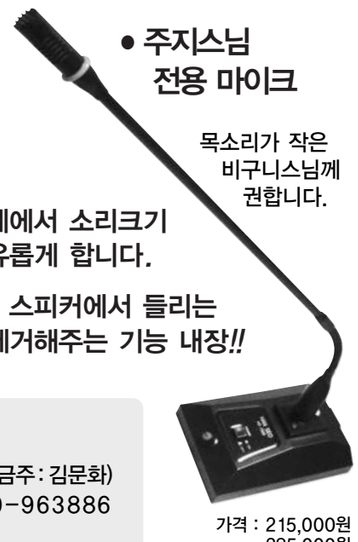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담양 용화사

불교교육 전통문화 전승 승가대학 개설

개강 : 2015년 양력 3월 16일 (수시접수 가능)

경애하옵는 학인스님 여러분

자아완성과 중생교화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담양 용화사에서는 우리 불교를 중흥하고 중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불교교육과 전통불교문화 중흥이 현 작금에 절실한 시기라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학인모집을 안내드리오니 종단을 초월하여 많은 동학등려 동참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1 중노릇하는 법
●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 스님들의 필수학문 치문 (주지스님 직접강의)

2 예 식
● 기본의식
· 천수경부터 태징 치는법 요령 목탁 북치는법 · 바라 (민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 관욕바라) 회심곡
· 거불 유치 청사 착어성 각단 소 읽는법과 소의 뜻
● 전문의식
· 예수재 수륙재 복장의식 점안작법 작법무 (나비춤)
· 수계작법과 수계의식 예능 : 붓글씨 쓰기
※ 의식 수준에 따라 전문 어장 초빙 전수

■ 장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남산리 106) 용화사 ☎ 전화 : 061)381-2683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합장

‘길 위에서의 10보 1배’ …

보광 스님 (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 1987년 통도사에서 인산 지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통도사와 범어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직지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어 통도사 포교 · 교무 과장 및 원주를 역임했다. 현재 부산 불광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지역 내 활발한 포교활동 뿐 아니라 라오스에 학교 건립 등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보광 스님(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은 백담사에서 설악산 봉정암까지 10보 1배 참회 순례 기도를 했다. 이후 20여 차례 백담사와 봉정암을 오가며 참회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봉정암까지 대장정의 순례를 두 번이나 감행했다. 10보 1배는 스님의 수행 여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참회와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원력을 강하게 세운다. 그리고 스님은 그 원력을 차근차근 실천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역사회 자비 나눔 실천은 물론 최근 라오스 학교 건립 등으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보광 스님을 3월 3일 만났다. 스님은 현재,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을 조직해 라오스 학교건립, 계몽 사업 등의 해외사업은 물론, 국내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장학사업, 군포교 등 국내에서의 자비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0보 1배의 순례로 자비나눔의 원력을 세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보광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국 순례하며 참회정진 발원
부산서 설악산 봉정암까지 순례
64일간 10보 1배 오체투지로 전법 포교
최근, 순례담 〈길 위의 64일〉로 출간

이웃과 함께하는 삶 구현
보광사서 월2회 어르신 초청 무료급식
매월 10만원씩 초중고생 5명에 장학금
군장병들 빵 보시… 3월부터 군포교 재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다
2012년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조직
2014년 라오스 반티온 초등학교 불사
인근 마을 수도 펌프 설치와 우물사업도

라오스에 새 학교를 짓다

보광사 종무소 입구에 들어서니 스케치북과 신발 등 어린이 용품들이 가득한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보낼 선물이라고 했다. 스님은 3월말 라오스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중이다. 라오스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듯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모두가 환하고 밝은 얼굴이었다.

“참 맑은 아이들입니다. 이 얼굴들이 항상 빛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도 아이들과 같은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스님이 라오스 반비엥 근교 반티온 초등학교를 방문한 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광사 거사림회 신도의 권유로 현지 어린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 뒤에서는 어두운 현실이 있었다. 대나무로 대충 엮어 만든 교실에는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빗물이 떨어졌고 칠판은 썩어 갔다. 교과서가 없어 제대로 된 공부도 할 수 없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절반 이상은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오렌지 농장에 취직해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 평균 6~7만원이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자 아이들은 물론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매춘으로 내몰렸다. 해맑은 아이들 이면에는 그런 어두운 현실이 있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죠.”

결심은 곧 실천으로 옮겨졌다. 사비를 모았고 기부금을 모연했다. 특히, 2012년에는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을 조직했다. 북카페를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학교 건립에 힘을 모았다.

이렇게 모연금이 모아지자 2014년 드디어 반티온 초등학교 공사에 들어갔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차량이 들어가려면 진흙 구덩이를 지나야 했어요. 운송비도 많이 들었죠. 여기에 라오스 인부들은 작업속도가 너무 느려 고생을 많이 했죠. 이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학교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13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6칸의 교실을 갖춘 학교가 완성되었다. 시골에서 보기 드문 현대식 건물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누구나 오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아침마다 6km를 걸어오는 학생, 오전 6시면 학교 문을 두드리는 아이, 학교를 마치고도 좀더 놀기 위해 학교에 머무르는 아이도 있었다.

이후 스님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위한 워드교육을 마련했고, 수도 펌프 설치와 우물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보광 스님은 앞으로 계몽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스님은 농장 설립과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현지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고등학교 건립까지 계획하고 있다.

“염소와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설립해 치즈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숙박과 관광 등을 겸한 ‘힐링캠프’(가칭)라는 여행 상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익금을 적립해 중고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스님은 라오스 반티온에서는 속가의 이름을 사용한다.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스님을 너무 어렵게 대하기 때문에 승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속가 성인 이(李) 씨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이 모두가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0보 1배 기도의 힘으로 보시행 펼쳐

스님이 끊임없는 보시행에는 ‘10보 1배’ 순례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제가 2004년에 봉정암에 올라가 일년동안 기도정진을 했어요. 그후에 은사 스님의 권유로 지금의 주지 소임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다 TV에서 우연히 차마고도의 3보 1배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차마고도를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순례객들의 모습을 보며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스스로의 신심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간 수행자로 살겠다는 발원이 퇴색된 것은 아닌지.

2007년, 스님은 재가자 3명과 함께 처음으로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이르는 10보 1배를 진행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천수경(千手經)에 나오는 십악참회(十惡懺悔)를 마음에 새겼다. 탐애중죄 금일참회, 진에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님은 지난날의 과오를 떠올렸다.

“한 때 제 별명이 아수라였습니다. 힘도 좋아서 자신 만만했고 마음에 안 들면 감정적으로 대처했죠. 한마디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모두 참회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 흐느껴 울 때도 있었어요. 그동안의 어리석은 행동이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힘들어 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싶을 정도였죠.”

이후 스님은 참가자들을 모집해 20여 차례 백담사부터 봉정암까지 10보 1배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자들도 늘어났다.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참여했고 순례 기도를 거쳐간 이들은 200여 명에 이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자는 김해에서 오신 보살님이었는데 척추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말렸지만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보겠냐며 어려운 몸을 이끌고 끝까지 순례를 마치셨죠. 그 후 두 번이나 더 순례에 참여를 하셨어요. 기도의 힘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에 걸린 재가자 한 분도 3번이나 순례를 마쳤어요. 두 분 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이렇게 순례에 참여했던 불자들은 고난이 닥칠 때 순례 기도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어려움이 와도 당시를 떠올리면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당시 함께 기도했던 재가자들은 현재 스님이 이끌고 있는 ‘라오의 산들바람’ 봉사단으로 활약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순례는 재가자들을 봉사의 길로 이끄는 계기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에는 부산 불광사를 출발, 통도사를 거쳐 설악산 봉정암까지 이르는 순례길에 올랐다. 외로이 홀로 가는 63일의 대장정이었다. 이어 2014년 9월 1일에는 도반스님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부산 불광사에서 출발해 총 64일에 걸쳐 봉정암까지 이르는 순례를 마쳤다.

이렇게 순례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스님은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을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해졌다. “도반 스님 한 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을 얻었다고 해요. 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일었습니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전법과 자비 나눔 원동력



스님은 2014년 6월 라오스 반비엥 근교 반티온 초등학교를 새롭게 짓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10보 1배 참회 순례를 통해 이웃과 나누는 삶의 원력을 세웠다.



2014년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귀빈으로 초대, 라오스 총리에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보광 스님은 '라오의 산들 바람을 조직해 국내외 봉사활동을 펼친다.

다. 이 기도를 통해 점점 더 성숙해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었죠."

스님은 이런 원력을 모아 국내의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희 절 신도들은 생일을 맞으면 3만원의 보시금을 냅니다. 이를 모아서 독거노인 무료 급식을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급식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3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시죠. 또 이 보시금으로 100kg의 쌀을 30가구에 나눠주고 있기도 하죠."

이밖에도 스님은 지역의 5명 초중고생을 지정, 매달 장학금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어르신 위로잔치도 열고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군부대에 빵을 지급할 예정이기도 하다.

아미타 48대원 발원… 48번 '10보 1배'가 꿈

스님의 목표는 아미타 48대원(阿彌陀 48大願)을 기준으로 48번의 '10보 1배' 순례기도를 마치는 것이다. 이런 발심 뒤에는 아미타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 속가의 어머니이자 도반인 법장 스님의 역할이 컸다.

어머니는 가출할만큼 출가에 대한 신념이 남달랐다. 하지만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외삼촌이 수사망(?)을 가동해 어머니를 찾아내면서 출가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고 결국 결혼해 5남매를 낳았다. 보광 스님은 막내아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컸어요. 어머니는 집에 방 한 칸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법당을 만들었죠. 매일 기도하고 참선을 하셨어요. 저희 남매들도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출가를 권했다. 16살 나이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통도사로 들어왔다. 스스로 발심한 출가가 아니었기에 성당에서 배운 기도문을 외우며 반항하기도 했다. 그렇게 행자로 3년이 지났다. 절생활이 몸에 익어가니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심이 섰다. 스님의 나이 19세, 자연스럽게 출가를 했다. 법명은 보광이었다. 이렇게 아들의 출가에 이어 곧 어머니도 범어사 대성암으로 출가를 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법장 스님이 되었다.

"현재, 법장 스님은 세납이 85세가 되셨습니다. 아미타 기도를 하며 수행 여정을 마무리하고 계신데 저도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제가 10보 1배를 시작하게 된 큰 배경에는 이런 어머니의 뜻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스님은 지난 2월 27일 순례 이야기 책 〈길 위의 64일〉을 출간했다. 여기에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어머니 법장 스님에 얽힌 일화도 담겨 있다. "스님은 평생의 도반이자 스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죠. 저의 영원한 멘토이고 관세음보살이죠. 경책으로 때로는 위로로 그렇게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는 자비의 손길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태어난 부처님의 선물이니 낙심하지 말라며 용기와 위로를 주셨어요."

이제 스님은 어머니 법장 스님의 조언대로 지옥에 빠진 중생을 건지고자 길을 나섰다. "그저 남은 삶을 봉사로 회향하고 싶을뿐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순례기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성장과 보살행 그것만이 평생의 원력이죠. 그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극락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듯하다. "많은 이들이 삶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봉정암으로 오르는 순례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곧 기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미 환희심에 스스로 해답을 얻게 되죠. 바람이, 또 장엄한 탑이, 산이 그 해답을 이야기해주죠. 그 자체가 곧 극락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산 아래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조차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극락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은 더불어 사는 극락세계를 발원하며 3월 28일 재가불자들과 함께 라오스로 또한번의 순례를 떠난다. 양손에 문구용품과 신발 등의 선물을 한가득 든 스님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그들과 함께 극락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나는 태생이 촌 사람이다. 출가 전까지 서울에 가본 적도 없었고, 출가 이후에도 특별한 용무가 없는 이상 서울에 가지 않았다. 거의 인생 대부분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살아왔다.

2013년 3월까지 나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에 자리한 비슬산 8대 적멸보궁 용연사에서 3년 넘게 총무 소임을 보고 있었다.

활중 스님은 2013년 1월 나에게 "서울 원각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사찰을 발전시켜달라"고 제안했다. 애초 나는 서울에서 주지를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스님의 제안에 고사했으나 계속 미루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 결국 제안을 승낙했다.

떠나는 날 활중 스님은 "촌 사람이 서울에서 한 번 잘 살아봐"라며 배웅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무장은 "총무 스님 축하드려요. 오늘부터는 '서울 스님' 이시네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서울 스님? 그리 싫지는 않네요"라고 인사하고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다.

관악산 초입의 남현동 원각사에 도착 후 나는 길게 한숨을 쉴 수 밖에 없었다.

도심사찰 원각사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고가는 큰소리, 탑 차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등산객 등 생전 처음 겪어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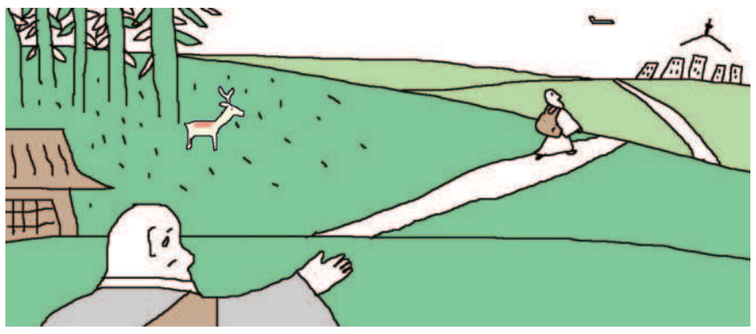
또한 신도들은 잦은 주지 교체로 스님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대로 커져 있었고, 여기에 주위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하루는 동네 상가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당신도 땡중이요"라고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 모멸감까지 들었지만 화를 낼 수 없었다. 일반 주민이 동네 사찰 스님에게 땡중이라고 물었던 것은 지역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생애 첫 주지, 그것도 서울 도심사찰 주지인데 고생문이 열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상념과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곳 원각사에서 도시생활에 맞는 도심포교와 지역주민들과 잘 화합해 전법포교도량으로 발돋움 해 나갈 수 있을까? 사찰의 초임주지 책임자가 되어 큰 살림과 대중화합 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까?

기댈 곳은 부처님밖에 없었다. 고민을 붙잡고 매일 법당에서 기도했다. 5일정도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힘들어 포기하려 했던 마음을 관악산에 훌훌 날려 버렸다. 대신 원각사 발전을 위해 큰 다짐을 하고 서원을 세웠다.

내가 세운 서원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원각사 신도님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주지 스님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1년 뜨내기가 아닌 4년 임기를 채우는 스님이 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림 · 박구원

두 번째는 원각사 신도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상처 받은 신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역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원각사에 변화시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제 나도 어엿한 2년차 서울 사찰 주지이다. 굳은 서원을 세웠지만 처음 보는 주지 업무가 힘들어 남모르게 눈물도 흘려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눈물과 땀은 배신하지 않았고, 현재 원각사는 새로 신도회가 구성돼 안정과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고 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린 것이다. 한 생각을 바꾸니 길이 열렸고, 서원이 생겼다. 정월대보름에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원각사배 윷놀이 대회를 개최한다. 몸은 바쁘고 힘들지만 즐겁다.

주지 부임 당시 초심과 서원을 잃지 않고 달리는 것도 포교의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본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시주금 횡령·환각제 소지…태국 불심 '술렁'

태국 담마까야 사원 등 승단 부정부패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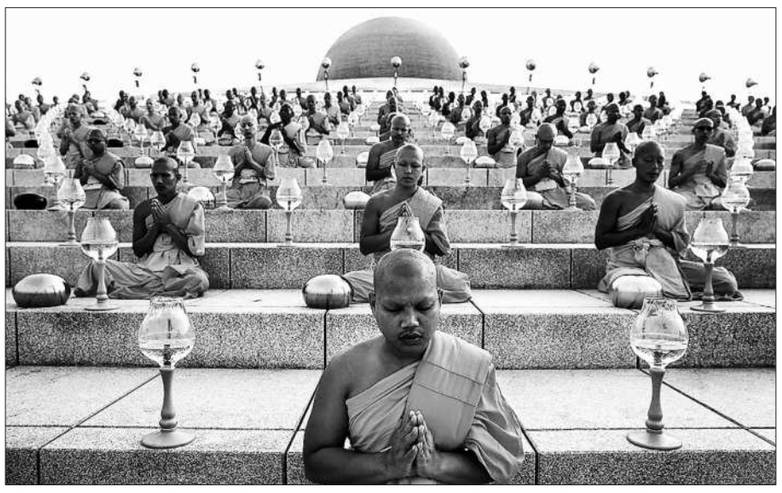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승가의 부정부패가 잇따르자 재가불자들의 불심이 술렁이고 있다.

〈Irish Independent〉 지는 3월 2일 "태국의 대표 사원 담마까야(Dhammakaya)의 '시주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싸라(Issara),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등을 필두로 태국 재가불자들이 '사원 감사' 와 '청정 승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불교는 '독에 물든 과일' 과 같다"고 전제한 사회운동가 이싸라 씨는 〈Irish Independent〉 지와의 인터뷰에서 "태국의 재가불자들은 사찰 회계 감사를 엄중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는 태국 불교가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불교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태국 총리의 퇴진을 이끌어낸 사회운동가인 이싸라 씨가 태국 승단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된 동기는 국가개혁위원회(National Reform Council 이하 'NRC')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Irish Independent〉지에 따르면, NRC가 태국의 대표 사원 담마까야의 9백만 바트(한화 약 3억 5백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포착·고발했지만,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 채 결국 '무혐의 처분' 이 내려졌다. 담마까야 사원의 운영위원회에는 태국불교계의 '최고승가위원' 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 등이 포진해 있었던 탓이다.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승가의 부정부패가 잇따르자 재가불자들의 불심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태국 대표 사원 담마까야에서 거행하는 수계의식.

횡령·환각제 소지·주식 투자 등
승단 잇따른 부정부패 알려져
불교지도자 및 사회운동가
"정부 감시·자정 노력 절실" 촉구

당시 담마까야 사원의 주지 프라 담마차요(Phra Dhammachayo) 스님은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고, 태국불교계 최상위 조직인 최고승가위원회(Supreme Sangha Council) 역시 "자체 조사 결과 담마까야 사원의 누락된 재원을 새롭게 찾아냈고, 회계 상으로도 오류는 없다"며 프라 담마차요 스님의 입장을 강변했다.

이에 대해 이싸라 씨는 "담마까야 사원의 횡령 혐의 사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원 또는 스님의 일탈 행위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반불교적 행위' 에 지친 재가불자들이 불교계 자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Irish Independent〉 지에 따르면, 담마까야 사원의 '횡령 의혹' 에 앞서 12만 알의 환각제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스님과 7십만 파운드(한화 1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남몰래 하다가 적발된 스님 등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 태국 승가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불신이 커질 만큼 커졌다.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명품 스님' 으로 알려졌던 루앙 푸 넨캄(Pu Nenkham) 스님의 일탈 행위가 바로 태국 승단의 지금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는 이싸라 씨는 "태국의 재가불자들은 이제 '승단 자정' 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앙 푸 넨캄 스님은 해외 명품 등을 갖고 개인 제트기를 타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뒤 태국 재가불자들의 공분을 샀고, '부정축재 혐의' 로 조사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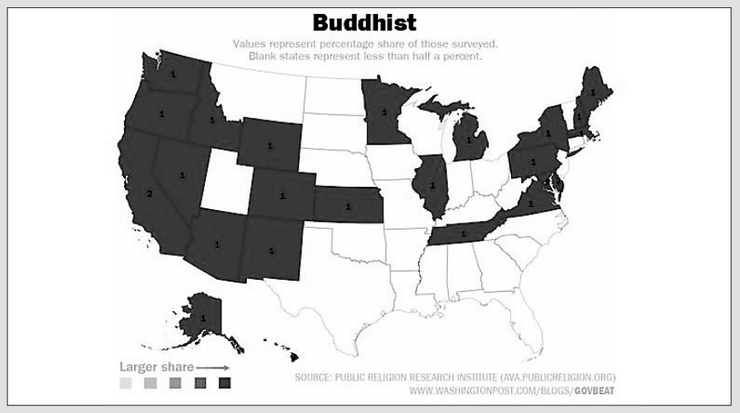
"태국 승단은 돈과 권력이라는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태국의 불교지도자 술락 시바락사는 "처음에는 놀라고 믿기 어려워했던 태국 국민들도 이제는 승단의 감언이설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 승단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불교계에도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Irish Independent〉 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감시와 승단의 자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3십만여 명에 이르는 스님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이미 자본주의에 노출된 스님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불교, 13개 주서 기독교 뒤이어 주목

PRRI '종교인구 조사결과' 발표…기독교 위상 '흔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교는 하와이,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13개 주에서 기독교의 뒤를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칠된 부분이 불교 강세를 띠는 지역이다.

힐링 문화에 힘입어 미국의 주류 문화로 편승하고 있는 불교는 어느 주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을까?

〈Paheos〉 지는 최근 발표된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이하 PRRI)' 의 '종교인구 조사결과' 를 인용, "불교는 하와이,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이다호, 몬테나,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13개 주에서 기독교의 뒤를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5만명에 인터뷰·설문 실시
청·장년층 기독교 외 종교에 관심

PRRI의 '종교인구 조사' 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5만 건의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American Values Atlas' 사의 맵핑(Mapping)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월 25일 인터넷 상에 제공됐다.

이에 따르면 인터뷰와 설문 응답자의 47%만이 자신을 '기독교인' 으로 밝혀, 미국 주류 종교로써의 기독교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응답자의 10%만이 '기독교인' 이라고 밝힌 유타 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미시시피 주에서는 응답자의 81%가 '기독교인' 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를 뒤이어 유대교는 15개 주, 이슬람교는 20개 주, 유대교는 15개 주, 불교는 13개 주, 힌두교는 2개 주에서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종교·윤리·문화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한 로버트 존스(Robert P. Jones) 'American Values Atlas' 대표는 "PRRI의 조사 이외에도 미국 내 다양한 종교 관련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조사 및 연구결과는 미국인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 PRRI 조사결과는 그런 추이를 정확히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RRI의 조사결과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가 기독교에 뒤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한 〈Paheos〉 지는 "이번 조사결과 청·장년층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미국인의 종교·윤리·문화에 대한 변화 추이가 더욱 폭넓게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3D 프린팅시대… 이젠 불상도 프린트를?

일본 공업고 학생들, 3D 프린터로 불상 만들어 봉안

일본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불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월 23일(현지시간) "일본 남부 와카야마현 현립 공업고 학생들이 최근 기노카와시 엔후쿠사(円福寺)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불상 복제본을 만들어 봉안했다"고 보도했다.

애염명왕입상(愛染明王立像)이란 이름의 이 불상은 높이가 51cm로 일본 에도 막부 시대 전기(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애염명왕입상은 지난 2010년 10월 엔후쿠사에 있는 다른 불상 10개와 도난당했다가 2년여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2013년 2월 이 불상을 비롯해 당시 도난당한 불상 3점이 고미술 전문 경매 회사 카달로그에 게재된 것을 지역 주민들이 확인하고 환수한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환수한 불상을 절에 봉안할지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결국 와카야마 현립박물관은 진품은 안전한 박물관에 보관하고 대신 정교한 복제본을 사찰에 두기로 하고 공업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 9명에게 불상 복제를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 9월부터 레이저 광 등으로 불상을 측정하고 3차원 데이터 보정을 반복해 반년 간 불상 복제 작업을 이어갔다.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제작한 불상에 박물관 측이 마무리 채색을 하면서 작업은 완성됐다.

지난 20일 3D 프린터로 복제된 불상이 공개되자 지역 주민들은 정교한 솜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주민인 스가와라 잇신(81)은 "복제본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 안심하고 진본을 현 박물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남부 와카야마현 현립 공업고 학생들이 최근 기노카와시 엔후쿠사(円福寺)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불상 애염명왕입상(愛染明王立像) 복제본을 만들어 봉안했다.

한편 와카야마현에서는 불상 도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현재까지도 약 160개의 불상이 도난 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나은 기자

美의원들, 중국 티베트 여행 제한 해제 촉구

프랑스 의원 '티베트에 대한 대등한 여행 법안' 제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티베트 여행 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는 3월 2일 "짐 맥커원 의원과 조 피츠 의원이 외교위원회에 '티베트에 대한 대등한 여행 법안' 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 공직자와 기자, 시민에 대해 티베트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인에게 자유로운 미국 여행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이 티베트를 여행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의 엄중한 감시 아래 단체 여행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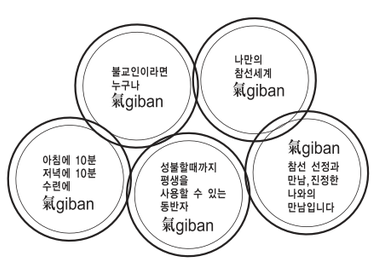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 대만 "공승제" 5일

● 출발일 : 9월 2일 요금문의

대룡훼리 산동성 5일
〈출발 매주 화 · 목〉 요금문의

위동훼리 태항산 핵심일주 6일
〈출발 매주 목 · 토〉 요금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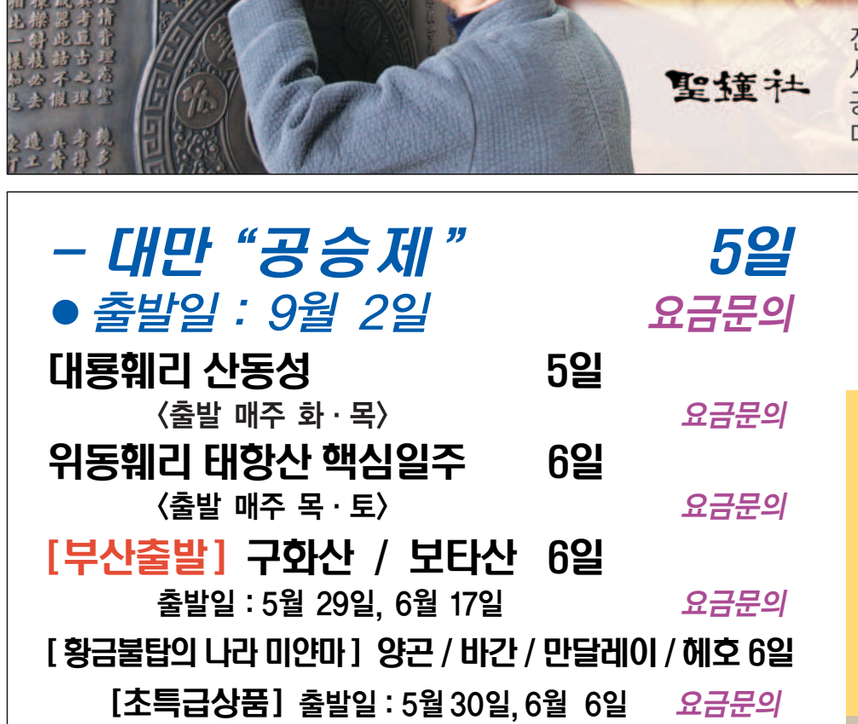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요금문의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요금문의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요금문의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요금문의

'꽃보다 할배' 이번엔 그리스 문화탐방 완전일주 9일
산토리니, 루이스쿠르즈 탑승. 중간항공 2회 요금문의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지 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으로 이어 갑니다

개국 20주년 BTN, 특집 프로그램 풍성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3월 1일 장편드라마, 토크쇼, 법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BTN은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년 동안 이어진 스님과 불자들의 인연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특집프로그램으로는 △55부작 장편드라마 '붓다' △스타 힐링토크 '행복' △우리절 우리스님 △헬로, 디스 이즈 환산 스님 △뜰앞에 잣나무 등이 마련되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특히, 5월 첫방송 되는 55부작 시리즈 '붓다'는 TV시청률 최우수상(인도, 2014), 베스트 촬영상을 수상(싱가포르, 2014) 등 다수 국가에서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던,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55부작 장편드라마다.

아슈토쉬 고바리카르 감독이 연출하고, 글로벌 기업가 B.K. 모디I이 이끄는 스파이스글로벌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붓다'는 세계 최초의 부처님일대기 장편드라마이다.

주인공인 '붓다' 역에는 인도 배우 히만슈 소니(Himanshu Soni)가 맡았다. '붓다' 시리즈를 기획한 'B.K. 모디I' 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알리고, 부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를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하고 실감나는 화면구성과 뛰어난 연출력, 매 에피소드마다 부처님의 삶과 성품을 하나씩 보여주는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 등이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붓다는 ' 총 55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어 자막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스타 힐링토크 '행복' 은 불자 스타로서 올곧은 불심으로 개인의 신행을 넘어 대중들에게 영상 포교사 역할을 겸하는 불자 스타들을 만나본다. 소문난 대한민국 대표 불자 연예인을 비롯,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불자 스타를 발굴해 소개하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 사연, 신심으로 일구어낸 삶과 신행 이야기를 들어본다. 진행은 탤런트 선우용여, 개그맨 한민관, 자용 스님 등이 맡는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오후 4시 토요일 밤 10시 방송.

아시아 인기 드라마 '55부작 붓다'
연예인과 함께하는 '스타, 힐링토크'
영어로 참선을 배우는 '헬로, 디스…'


선우용여 등이 진행하는 스타힐링토크 '행복'

'우리절 우리스님' 은 BTN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었던 사찰과 스님 또는 신도들의 방송 전후 이야기와, 포교와 수행 현장에서 중생교화에 힘쓰고 있는 사찰과 스님들을 찾아가 한국불교의 희망을 엿본다. 매주 월요일 낮 12시30분 · 오후 9시, 일요일 오후 10시 방송.

'헬로, 디스 이즈 환산 스님' 은 지난 2014년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참선지도와 법문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교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던 '환산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참선'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새롭게 환산 스님의 즉문즉답 코너를 마련, 국내외 시청자들과 화상통화 연결, 메일 문의 등을 통해 평소의 고민이나 참선에 대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11시, 토요일 오후 11시 방송.

뜰앞에 잣나무는 때론 서슬 푸른 스승의 모습으로 때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 큰스님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 수행자로 평생 정진했던 스님들의 행장을 짚어보고 생생한 법문도 함께 듣는다. 화요일 오전 9시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11시 방송.

한편 BTN은 개국 20주년을 맞아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행사는 개국부터 지금까지 BTN과 인연을 이어 온 프로그램 출연자, 후원인 및 종단 지도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본일 대표이사는 BTN의 4대미래비전과 15개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 새롭게 정한 BTN의 C.I.(Corporate Identity)도 공개한다.


5월 첫방송 되는 55부작 시리즈 '붓다'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드라마로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호평받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티베트인의 삶에서 보살을 보았다"

김성태 사진전 '티베트에 美치다' 3월 20일까지 마다가스카르서

자연과 불교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티베트를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김성태 작가의 '티베트에 美치다' 전이 3월 20일까지 용산구 청파동 갤러리카페 마다가스카르에서 열린다.

작가는 스촨, 윈난, 칭하이, 간쑤성에 강제로 편입되어 잊혀진 땅이 된 동티베트 지역에서 세계의 지붕으로 일컬어지는 티베트 고원까지, 일반 여행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티베트의 광활하고 내밀한 곳곳을 수차례 찾았다.


동티베트와 티베트 고원 등을 수차례 여행한 김성태 작가는 지역민들의 순박한 삶을 사진에 담아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생활자체인 불교, 삶과 죽음이 하나인 티베티인들의 삶에서 작가는 보살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우매해 보일 정도로 자연과 불교와 하나가 되어 투박하고 신실한 신앙적 삶을 살아간다. 가장 높은 하늘 위 땅에서 가장 낮은 자세의 오체투지로 자신을 버리며 불성에 가까이 다가서는 티베트인들은 살아 있는 보살이다."

티베트다움은 마음에 미묘한 울림을 주면서 신비와 관심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비우고 내려놓고 털어냄을 생각하며 바늘하나 들어갈 자리 없는 우리네 마음자리를 가늠해 본다.

쪽빛 하늘에 야생화가 지천으로 핀 끝간 데 없는 초원과 그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야크 떼들, 깊고 장엄한 대협곡, 바람에 펄럭이는 오색의 타루쵸와 스투파(불탑)는 동티베트를 아름답게 채색하는 배경들이다. 시간이 멈춘 듯 바람소리만이 스쳐지나가는 때 묻지 않은 티베트의 풍광은 태곳적 자연모습 그대로 작품 속에 담겨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지의 하늘 길 위에서의 순례자 같은 고행의 여정. 티베트 자연의 다듬지 않은 야생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모르는 심오한 불심, 순박하고 깨끗한 티베트다움의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성태 작가는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30여 년간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일보 등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주로 경제 분야 현장을 취재했다. 뒤늦게 달동네 등 사라져가는 것들과 세계의 오지 등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심을 갖고 틈나는 대로 구룡마을 등 산동네와 사라져가는 재개발 현장, 전 세계 오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다. (02)717-4508

정혜숙 기자

영광문화예술원 '차문화아카데미' 개설

은천 김성태 초청 강좌, 3월~12월 강의 진행

부산 영광문화예술원(원장 이경순)은 제1기 영광차문화아카데미를 개설했다. '동양문화와 예술의 근원을 따라서' 라는 제목의 이번 아카데미는 3월 16일 오후 3시 영광문화예술원에서 개강하며 은천 김성태 강사의 강의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수업은 매달 1 · 3째주 월요일 오후 3시로 부산불교실업인회 건물 3층 영광문화예술원에서 열린다.

강의 내용은 △3월 '동양사상에서 비롯되는 문화와 예술의 원리' △4월 '동양 정신문화로서의 차(茶)와 향(香)의 본질, 금속 공예와 불교미술의 원리, 녹차와 선차, 녹차와 발효차의 제다 원리 △5월 선종불교와 선차의 본질, 다구와 물의 조건, 한국 도자사 △6월 중국 차문화사와 중국 도자사, 일본 차문화사와 일본 도자사 △7월 불교미술사(불상과 불화), 서양차문화사(홍차)와 서양의 도자사 △9월 차의 역사와 항의 역사, 동양 회화사의 구성원리와 현재 전통회화의 오류 △10월 중국 역사와 문화사 △11월 중국차의 실태와 폐해, 차와 건강의 실체 △12월 전통문화의 다도(茶道), 향도(香道), 화도(花道) 등이다.

제다 실습을 위한 답사로 경남 산청, 백제 문화권인 부여와 공주, 부안 내소사 등을 방문한다. 특히 10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다원 실습과 문화 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010-3881-5426 하성미 기자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조사연구보고서 발간

통일신라 유물 선림원종 · 염거화상탑지 연구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이 강원지역의 주요 문화재이자 국립춘천박물관의 중요 불교관련 전시품인 선림원종과 염거화상탑지의 조사연구보고서를 펴냈다.

통일신라시대(804년)에 제작된 선림원종(禪林院鐘)은 명문이 있는 당대 범종으로는 매우 희귀한 문화재다.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중이며 선림원종은 비록 원형은 잃었지만 종의 제작부분과 관련된 명문과 종을 지지하던 종고리 등이 남아 있어서 금석문 연구 및 당대 종 제작기술의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왕실 발원 탑지로서 당대의 최고 제작기술 정보를 담고 있는 염거화상 탑지는 제작연대가 있어 통일신라 탑지 제작과정 및 조금(彫金)기법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또한 탑지를 봉안한 염거화상탑은 국보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고 염거화상탑지도 문화재청으로부터 2월 26일 보물 지정이 예고된 상태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다.

춘천박물관은 "선림원종과 염거화상탑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강원지역 고대문화의 원형을 찾고자 했다. 이 보고서발간을 통해 선림원종과 염거화상탑지를 둘러싼 금석학과, 역사, 불교미술과 금속공예, 성분분석을 비롯한 보존과학 등 관련 학문의 융합연구와 공동토의를 통해 2년여의 성과물이 하나로 모아졌다"며 취지를 전했다.


사진은 염거화상탑지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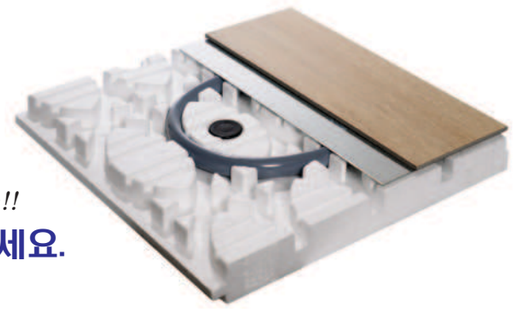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꼰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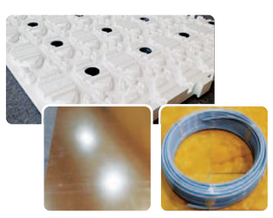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제주도 : 010-3000-1945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수원 : 010-5211-7260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五感으로 체험하는 불교문화

서울시와 조계종이 공동주최, 201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서울시와 조계종이 함께 주최하는 2015년 불교박람회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로 명칭을 변경 대중들을 찾아간다.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해외 업체 참여로 국내외 불교문화와 산업을 총망라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230여 업체 참여, 400여 부스가 운영돼 역대 최고를 자랑하는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어떻게 관람하고 무엇을 체험하면 좋을까? 불교박람회의 주요 코너들을 소개해본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외국인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일본 등 해외 업체 참가 주목
스님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축제도
옻칠 염주 등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아트페스티벌, 전통 장인전 등 풍성

△사찰음식 체험에 강연까지

'사찰음식대축제'는 박람회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축제에서는 사찰음식 특화사찰 및 전문운영사찰로 지정된 11개 사찰과 전문가 스님들이 직접 참여해 전시, 강연, 시식, 체험 등을 진행한다. 사찰김치, 큰스님 밥상, 계절별 한상차림 등의 사찰음식 전시를 비롯해 전국 75개 사찰의 사찰음식 조리법 영상과 사찰음식 웹툰 등을 선보인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찰음식 체험 · 시식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사찰음식 비빔밥 퍼포먼스,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발우공양, 발우공양을 모티브로 한 모션 게임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선재 스님, 원상 스님, 우관 스님, 적문 스님 등의 사찰음식 강연도 이어진다. 3월 13일에는 사찰음식 관광마케팅과 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포럼이, 3월 14일에는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현황 및 인도 · 중국 · 일본 수행자의 음식과 식사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차 학술포럼이 진행된다.

△전통문화 우수상품을 엿보다

전통산업과 불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으로 '전통문화우수상품전'도 진행한다. 참가업체들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대상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특별상은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고 특별전시도 열린다. 올해 대상은 '옻앤옻'의 '오색 천연옻칠 108염주'에 돌아갔다. 이 제품은 100% 천연 옻을 계량화된 전통기법으로 10회 이상 칠하고 건조시켜 염주를 제작 무게가 가볍고 광택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의 색인 '오방색'을 표현하기 위해 친환경 안료를 사용해 주목된다. 특별상에는 성종사의 '컬러범종'이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범종의 미니어처 작품으로 전통방식의 개금과 채색을 통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했다.

△해외 업체 참여로 볼거리 다양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중국, 일본, 스리랑카, 독일 등 해외 업체의 참가로 국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측은 "지난해 불교박람회는 중국의 하문불교박람회에 참여해 한국의 불교를 소개한 바 있다. 올해는 하문불교박람회에 참여했던 6개의 중국 업체가 총 10개 부스를 꾸밀 예정이다. 이들은 불상 침향 조각 등의 불교 용품을 선보인다. 또한 중국 푸첸성, 일본, 스리랑카 등의 업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미술 축제 붓다아트페스티벌

전통과 현대의 만남, 국내 최대의 불교미술축제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전년대비 약 1.5배 확장된 약 80명의 작가(57부스)의 참여로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전통 불교예술 작품전, 선아트특별전, 전통장인전, 아트도네이션프로젝트 50만원전 등이 마련되어 장인들을 찾아간다. 독일 업체 짜이트 쭈 제헨 갤러리가 참여 유럽의 불교문화도 소개한다. 기획전 '서울의 공간, 서울의 장인' 전은 전통장인의 명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서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전통장인의 공예 작품(기와, 한옥 공포, 나전칠 소반, 나전칠함,매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번와장 제 121호 이근복, 한식목공 2236호 이광복,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제89호 구혜자,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나전장 제14호 정명채, 서울시 지정무형 문화재 소목장 제26호 심용식 씨 등이 참가한다. (02)2231-201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붓다아트페스티벌에는 80여 작가가 참가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번 박람회에는 230여 업체가 참여 400여 부스를 운영한다.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영화 '인터스텔라'는 인류 멸망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쿠퍼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았다.

만나면 헤어지고 떠나면 다시 돌아온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천만 관객을 넘기며 화제를 모은 '인터스텔라'는 더 이상 과학의 발전을 믿지 않는 지구의 위기를 그려낸다.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종말의 위기에 처한 지구의 현실'을 보여준다.

인과의 원리를 망각한 20세기 인간들은 지구의 자원을 마음껏 쓰면서 지구의 아픔은 외면했다. 결국 병든 지구는 인간에게 복수해오기 시작했다. 온 세상은 먼지에 뒤덮였다. 호흡곤란과 식량부족으로 인류는 위협 당하고 나사마저 해체되었다. 남은 식량은 옥수수뿐이며 인간은 더 이상 과학을 믿지 않는다.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다.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구라는 행성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초반에 던지는 미션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영화의 카피처럼 주인공 쿠퍼(매튜 맥커너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 인류를 살리기 위해 대원들과 함께 탐험을 떠난다.

이들에게는 두 개의 플랜이 주어졌다. 플랜A는 인류가 모두 이동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의 행성을 찾는 것이다. 플랜 B는 탐사하는 동안 인류가 모두 멸종할 것에 대비해 새로운 행성에 생명체를 이식하는 일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탐험을 선택한 주인공 쿠퍼는 필사적으로 플랜A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는 시간과 중력이다. 성간 여행을 하는 이들이 찾는 행성은 중력에 따라 시간 차이가 달라진다. 이대로라면 쿠퍼가 지구로 돌아가기도 전에 가족들은 이미 늙어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

여주인공 아멜리아(앤 해서웨이)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거스를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많지만 인터스텔라는 각 행성마다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설정으로 애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극적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낸다.

종말에 처한 인류 구하는 탐험
시공간 초월하는 마음의 힘으로
위기 넘기며 가족愛 그려내 감동
존재의 근원 찾는 새로운 여행 떠나



인터스텔라는 성간 여행를 통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주인공 쿠퍼의 마음은 간절하다. 그 마음은 결국 5차원의 세계에 진입해 어린 딸을 마주하게 되지만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에 다가갈 수 없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딸과 조우하긴 한다. 간절한 마음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뒤엉켜 있었고 서로의 사랑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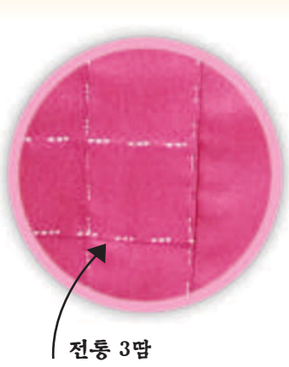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 딸과 아버지로 만났지만 시절 인연따라 오고 갈 뿐 그들은 이미 부녀의 관계를 떠났다. 법화경에는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이라는 말이 나온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헤어진 이들에게 그리움의 마음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그 정점에 닿아 고비를 넘기면 그 마음도 머물다 사라질뿐이다.

쿠퍼의 가족 역시 그리움의 힘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 강한 마음의 힘이 둘을 만나게 했고 또 거대한 미션을 완성해 냈으며 그 마음이 다하니 헤어질 때가 온 것이다.

쿠퍼는 다시 길을 떠난다. 우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세계를 향해.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여행 와서 또다른 차원의 세계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처음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주인공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이제 쿠퍼는 화두를 안았다. 길을 떠나는 수행승처럼 그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풀어갈 것이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만 그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은 고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해답을 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전통 3땀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특허증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행복이 가득한 효소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 15g의 기적
• 면역력 업그레이드
• 세계 최초 씹어먹는 효소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온 몸이 따뜻해지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 6년근 홍삼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용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치 효소환 15g×90환. 60만원
※ 식품법 제11조에 의하여 탁월한 효능과 임상을 전하지 못합니다.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5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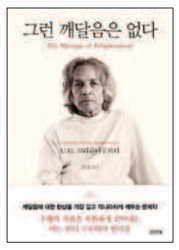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3	밥값 했는가	도원스님 외	불광출판사
4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최인호	여백
5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6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7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9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10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해인사	해인사출판부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그런 깨달음은 없다
U.G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김훈 옮김
김영사 펴냄
1만 3800원

평생을 지독하게 '깨달음의 상태'와 인간의 작동 방식을 철저히 파헤친 사람이 있다. '예수나 붓다와 같은 존재'라며 추앙받던 라마나 마하리쉬와의 첫 대면에서 "당신이 갖고 계신 걸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라며 당돌한 질문을 던진 사람, 인도대통령을 지낸 철학자 라다크리슈난이 '인도가 낳은 가장 뛰어난 설법자'라며 극찬한 U.G. 크리슈나무르티이다. '세계의 스승'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 7년을 매일 교류하면서도 깨달음 이후 이 세상 누구보다 지두에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은 사람. 파격적 언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내게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라며 구루의 역할을 피해 다닌 사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짜 깨달은 사람'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받았던 안티 구루, U.G. 크리슈나무르티. 이 책은 무협지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역정과 누구보다 철저한 그의 견해를 가장 잘 요약한 단 한 권의 책이다.

책은 그의 깨달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인생역정을 진솔히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 인터뷰 내용은 마음공부와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읽어보라고 권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날카롭다. 마치 세상에 보기 드문 현자가 직접 출연한 한편의 휴먼다큐멘터리, 혹은 '힐링캠프'처럼 흥미롭고 리얼하다.

당대에 '성자'라고 일컫던 수많은 유명인들과의 만남, 깨달음을 위한 방랑 생활, 종교를 포함한 모든 전통적 권위에 대한 거부, 자유롭고 도발적인 언행, 다양한 종류의 신비체험을 통해 유지(U.G.)는 수많은 종교와 전통서 신성시하는 '깨달음'이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게 된다. 스스로 '재난'으로 부른 런던에서의 결정적인 체험 이후, 그는 깨달아야 할 '나'가 없으며 이른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있지만 그 상태는 노력이나 느낌, 인과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찾아다니는 '깨달음' 일까?

저자는 말한다. "이 상태는 내 상태나 신의 상태, 깨달은 사람의 상태, 남다른 변화를 이룬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그런 상태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짓이 됩니다. 자연스런 상태는 이른바 열락이나 지복, 희열 같은 종교적인 상태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험의 장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상태는 모종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 들어갔다가 그 이

저자 20대때 '무상삼매' 경지까지 체험
수행 거품 걷어낸 영적 구루 인터뷰
신비화된 이 시대 수행풍토에 일침

튿날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가 소위 '안티 구루'로 알려진 것은 모든 형식과 전통을 거부하는 우상파괴적인 언행을 일삼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자질을 인정받아 소위 '성자'라는 분들을 만나며 영적 훈련을 받았던 U.G는 20대 때 이미 니르비칼파 사마디(무상 삼매)까지 체험한다. 하지만 분노와 성욕을 비롯한 다양한 욕구들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자연스런 의문을 갖는다.

저자는 "나는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탐욕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무욕(無慾)을 이야기해. 그러니 뭔가 잘못된 거야. 내 안의 탐욕은 아주 생생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반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부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니 뭔가 잘못된 거야. 무욕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오도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내 탐욕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야."라고 고백한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욕망을 다스리려 하는 반면, 그는 독특하게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인정하고는, 욕망을 끊지도 욕망에 좌우되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스스로의 위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이윽고 종교적으로 덧씌운 모든 거룩한 것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한편, 직설적이면서도 때로는 익살맞게, 때로는 공격적으로까지 표현되는 그의 통찰들은 불교의 선문답이나 조사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평범한 언어를 통해 스스럼없이 대답하는 그의 메시지는 동양의 눈 밝은 선사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현실적이면서도 명징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내면에 동요와 혼란을 빚어내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마음상태를 빚어놓고는 자기 마음이 아주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워지는 연습을 하고 고요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참된 고요함(寂靜)은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구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마음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떤 상태일까?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찾아와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는 그 질문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통해 다채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정 종교나 도덕, 관점에 집착말고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힘을 접하라고 조언한다. 그 날것 그대로의 관점은 마음공부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아무튼 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보면, 우리는 그가 '깨달음' 또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남다른 가르침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진정한 길은 자기 자신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한 그 길은 생각의 소산이며, 따라서 사실은 새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늘 다니던 옛 길입니다. 전에 하던 게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생애를 요약한다면… "물음표와 느낌표"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글 그림 구나파유타(태국)
기획 감수 대현 스님
올리브나무 펴냄
1만2천원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한 대현 스님(산청 정각사)이, 태국 불자가 쓰고 타이완의 '붓다교육기금회'서 중영대역판으로 펴낸 〈A Pictorial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를 번역 소개하고 싶다는 원을 세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긴 인생의 밝은 빛을 조금이라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의 종교적 현실 속에서 절감했기 때문이다.

대현 스님은 6~7년 전 자신의 수행담과 함께 수행의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선승의 길〉을 펴내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직접 소개하는

218컷 그림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수록
대현 스님, 책 말미에 '사찰예절'도 실어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선승의 길〉에서 스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의지와 애씀이 요구되는 수행의 길을 피력하기보단 일정 수준을 넘기만 하면 화두참선이 '맛이 있어진다'는 것을 더 강조했다.

대현 스님은 "참선을 하게 되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사라진다. 세속인들은 지루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긴다. 하지만 참선을 하면, 아무리 긴 동짓날 밤 잠이 오지 않을 지라도 괴롭지 않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가는 긴 여행의 시간이든 전혀 지루하지 않다. 깊은 산속 조그마한 토굴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화두라는 애인이 있어 잠시도 나를 떠나 버리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다."라고 설명한다.

화두라는 것은 무엇일까? 화두의 시초는 왕세자의 신분으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다가 성 밖에 나가 늙고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본 싯다르타에게 생겨난 의문부호 아닐까? 삶의 바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릇 목숨 지닌 모든 것들은 왜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지, 저절로 화두가 생겨났던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스님은 "한 나라 왕자로 태어난 그분 생애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아마도 '물음표와 느낌표'가 되지 않을까요?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 열정이 있었기에 그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느낌표를 얻게 되었고, 그 느낌표를 내내 풀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 주셨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그 느낌표의 감동 속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다."고 강조한다.

불교라는 큰 산맥의 시초는 2500여 년 전,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에게서 비롯됐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는 구도와 깨달음의 빛, 그리고 빛을 전하는 일로 요약될 수 있다. 깨달음이란,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여정에 다름 아니다. 불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부처님의 생애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책에는 218컷의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영어도 수록해 놓았다. 또한 책 말미에는 사찰예절에 대해 대현 스님이 쓴 글을 실었다.

김주일 기자

▲책속 내용 요약

고요한 밤중, 싯다르타 왕자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왕궁을 떠났다. 왕자는 영리한 백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떠났다. 찬다카만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을 가로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동안 말을 타고 간 후, 왕자는 말을 멈추고 돌아서서, 맑고 밝은 달빛을 받고 있는 카필라 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떠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싯다르타는, 인류와 다른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광활한 고통의 바다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지(無知) 때문이요 덧없는 쾌락에 집착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탐욕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데에 있다.

싯다르타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인 누진통(漏盡通)을 획득했다. 그는 모든 욕망과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다. 5월 보름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다. 싯다르타는 35세에 보리수 아래에서 최고 경지의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다하여 그때부터 세상은 빛나는 등불을 갖게 됐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언제나 깨어 있어라."

불교행사 지침서 시리즈 전 10권 출간!



알기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시리즈 전 10권 출간!



• 행사시리즈 1 : 입춘삼재풀이(140쪽)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입춘기도순서. 입춘기도진행. 삼보통청 삼재풀이 불교식. 신중청. 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개별식. 입춘축. 삼재부적
• 행사시리즈 2 : 출가성도열반(202쪽) 출가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참. 성도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성도절독경예참. 열반절. 법회준비. 법회식순. 법회진행. 출가절독경예찬
• 행사시리즈 3 : 부처님오신날(160쪽) 봉축행사 계획. 봉축행사 준비. 연등 만들기. 연등 설치. 봉축법요식 식순. 법요식 진행. 법요식 노래악보. 봉축예경. 연등공양 공덕
• 행사시리즈 4 : 칠석과 백중날(180쪽) 칠석의례. 칠성본풀이. 칠석기도 준비 진행. 우란분절 준비. 우란분절 식순. 우란분절 진행. 영가시식
• 행사시리즈 5 : 동지불공고사(150쪽) 동지정의. 세시풍속. 동지불공 준비. 동지불공 순서. 동지불공 진행. 삼보통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제례. 영가시식. 동지고사. 팥죽 예화
• 행사시리즈 6 : 방생(175쪽) 방생이란. 방생준비. 방생식순. 방생진행. 연지대사방생문. 어류방생. 어류방생기도문. 조류방생. 조류방생 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이야기. 방생공덕 등
• 행사시리즈 7 : 재가불자수계(150쪽) 계율삼사칠증. 소승오계. 십계.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수계란. 어린이 수계식. 성인불자 수계식. 거사불명. 보살불명
• 행사시리즈 8 : 출가수계식(150쪽) 계율. 소승계 분류. 십계. 사미십계. 구족계. 비구계. 비구니계. 대승계 분류. 십중대계. 사십팔경계. 출가 수계식. 수계준비. 수계식순. 수계진행. 법명
• 행사시리즈 9 : 점안의식 상(179쪽) 점안이란? 불보살 복장의식. 불보살 점안 준비. 불보살 점안식순. 불보살 점안 진행. 법회 진행. 나한 점안의식. 사천왕 점안의식
• 행사시리즈 10 : 점안의식 하(180쪽) 점안이란? 점안 준비. 시왕 점안의식. 조탑 점안의식. 가사 점안의식. 금은전 점안의식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바탕의 〈아미타경〉 해설서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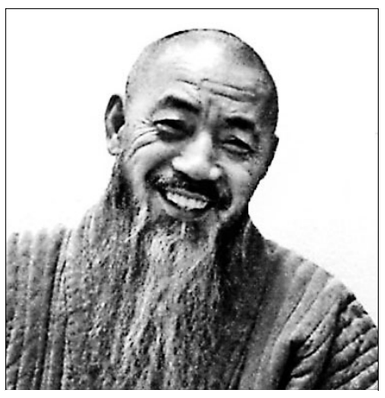
"대하 장편소설이 인기가 좋을지 모르나 반드시 긴 문장이 심금을 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대장경판으로 겨우 6쪽 남짓이지만 이 〈불설아미타경〉이 차지하는 경전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토록 환경 파괴가 스스럼없이 마구 자행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팔만대장경에서 그 존재적 가치를 놓고 볼 때 어쩌면 당연히 탑top이라는 데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환경의 경전입니다. 아마 〈불설아미타경〉을 제쳐 두고 환경 경전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경전은 단언하건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환경의 바이블(Bible)로는 레이첼 카슨(1907~1963)의 저서 '싸일런트 스프링'(Silent Spring) 즉 〈침묵의 봄〉일 것입니다."

동봉 스님〈사진〉은 우리 들에게 친근하다. 바로 SNS 포교 덕분이다. 스님은 이따금씩 좋은 경전 문구나 본인이 자연과 삶에서 느낀 감동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전해준다. 이 책도 동봉 스님이 100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집필하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연재한 것을 묶었다. 짧은 아미타경이 58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재탄생한 것 자체가 경이롭지만, 스님의 해박한 불교 지식과 필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동봉 스님은 20여 년 전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로 이름을 알렸다. 10여 년 전에는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 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면서 한국불교를 아프리카에 전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전해준 스님이 이번에는 편편마다 특유의 유려한 필치를 더해 수필처럼 쉽고 편안하게 책으로 돌아왔다. 책은 경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다가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도 담겨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아미타경의 현대적 의미를 읽는 묘미도 맛볼 수 있다. 특히 동봉 스님이 아프리카서 활동한 이야기들은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한국불교에서 불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된 신앙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신앙이다. 정토삼부경 중 분량은 가장 적지만 정토신앙의 핵심요체를 담아 수행의 가교이고 정토로 나아가는 안내서인 아미타경은 베스트셀러 경전중 하나이다.



100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집필
수필처럼 이해하기 쉽게 써
〈사언절불설아미타경〉 전문도 실어

이 책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은 한마디로 행간마다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이 빛나는 아미타경의 본격 해설서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집필, 일반인들도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미타경은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화두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 경전임을 강조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점 또한 다른 아미타경 해설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책은 단순한 아미타경 해설서가 아니다. 이 책까지 그동안 57권의 많은 책을 펴낸 동봉 스님의 사상과 안목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책이다. 또한 중간 중간 정토신앙으로 이끄는 미타인행 사십팔원, 장엄염불, 왕생게, 아미타불십대인상, 정토다라니 등을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사언절불설아미타경〉 전문도 실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동봉 스님**은?

강원도 횡성서 태어나 1975년 불문에 귀의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 · 동국대 불교대학원 등에서 공부했다.

법명은 정휴(正休)이며, 자호는 일원(一圓), 동봉(東峰)은 법호이다. 아프리칸 이름은 기포Kipoo(起泡)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서 52개월간 머물며 펼친 말라리아 구제 활동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한국불교인으로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했다. 또한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에 매입한 학교부지 35에이커와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개척한 부처님 도량 사찰부지 2.5에이커를 학교법인과 함께 조계종단 산하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했다. 현재 조계종단서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 중이며, 곤지암 우리절 주지로 글과 법문, 페이스북 등 SNS로도 법을 전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 〈밀린다왕문경일원곡〉 14책 외 50여 권이 있다.

종교적 성찰로 바라본 환경 및 생태문제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

종교인 대화모임 엮음 | 운주사 펴냄 | 2만 3천원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주요 종교의 신앙인이자 학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종교간 소통을 위한 종교인 모임의 대화 기록이다. 앞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각자 다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기록이라면, 이번 책은 우리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과제인 환경 및 생태문제 대한 종교적 성찰을 담고 있다. 주제와 관련된 각 종교의 주요 저서와 논문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10여 년간 진행돼 온 대화와 토론을 생생하게 정리 기록한 것으로, 주요 종교의 환경 및 생태관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들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진행한, 씨튼연구원 '종교인 대화 모임'의 발제문과 토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 '모임'에는 주로 자신의 종교에 충실한 신앙인이면서 학문적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종교인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 종교 중심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서로가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고, 이 책은 그 10년의 결과물이다.

현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 문제는 한 지역, 한 국가만의 현상이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거나 파괴되고 있는, 혹은 파괴될 예정인 자연환경은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나 기업, 시민단체나 종교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책은 그중에서도 주요 종교들의 관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불교, 유교, 도교, 그리스도교 등 주요 종교의 자연과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유의미성과 실천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각 종교의 특성은 물론이고 이들 종교 사이의 차이점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 생태학 담론 중에서도 대표적인 논문인 클레어 파머의 〈환경윤리개관〉과 폴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윤리〉를 중심으로 그간의 생태적 담론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를 통해 서구학자들의 메타윤리학적인 접근이 지닌 한계점을 확인하고, 결국 생태문제는 철학적 사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각 종교전통이 지닌 자연에 대한 규범적 윤리를 강조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생태학과 불교의 대화를 주제로, 인도불교, 남방불교, 일본불교의 관점서 불교와 생태학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연기적 세계관을 지녔기 때문에 가장 생태적이라고 말해 왔으나 단지 거기에만 만족하고 만다면 불교가 과연 생태윤리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에 강한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제 3장에서는 초기 유교로부터 신유학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전반적인 사유를 통한 환경윤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유교의 생태적 관점은 그 논의의 중심에 인간의 책임문제가 있으며, 이를 감응문제와도 연관지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 4장에서 다룬 생태학과 도교의 대화는 〈도교 생태학: 내면의 변화로 초대〉 〈음부경의 삼재상도사상〉 〈태평경의 도교적 중화개념〉이라는 세 논문을 중심으로, 특히 도교적 수행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제5장 '생태학과 그리스도교의 대화'에서는 샐리 멕페이그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과 토마스 베리의 〈위대한 과업〉을 중심으로 토론하는데, 특히 멕페이그는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고전주의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생태 경제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만남은 고통 해결을 위한 선물

붓다와 39인의 제자이야기

한걸음 더 펴냄 | 이자랑 지음 | 1만5천원



이 책은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다. 비구 19명, 비구니 9명, 우바새 6명, 우바이 5명, 총 서른아홉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붓다의 제자들 중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서도 특히 그 삶이나 부처님과의 만남이 인상적인 이들에 대해, 주로 초기 불교 문헌 및 그 주석서에 기술된 전승에 근거해 이야기를 구성했다.

권력욕에 눈멀어 부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자의 뼈저린 후회, 풍요로운 삶 속에서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절규, 불을 섬기며 제식의 효능을 맹신한 종교인들의 자만, 질긴 애욕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통 받는 가엾은 여인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이들의 고뇌……. 애절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지금도 붓다를 만나고 있다

부처님과의 만남은 고통의 끝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었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삶은 오히려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지혜와 평안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부처님과 이들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처님 법의 그늘을 넓혀 간다.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한 수행자의 깨달음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 끝없이 이어져 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과언일까? 사람의 삶이란 게 2,600여 년 전의 인도나 21세기의 현대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건 없을 것이다.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애착, 증오하는 것에 대한 분노 등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분명 우리 주변에도 붓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붓다를 만나고 있다. 또 우리도 붓다가 되어 세상을 밝혀 가야 한다.

부처님 제자 39명 이야기
초기불교 문헌 등에 근거해 구성

저자는 "4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전법기간동안 인도 각지를 쉼없이 유행한 부처님의 궤적과 그 과정에서 만난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즐거웠다"며 "부처님을 도와 교단을 성장시켜 나간 10대 제자의 활약상을 볼 때면 꽉찬 감동이 밀려들었고, 소설 속에나 등장할만한 기구한 삶을 살며 고통받던 여인들이 부처님을 만나 고통의 뿌리를 제거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때면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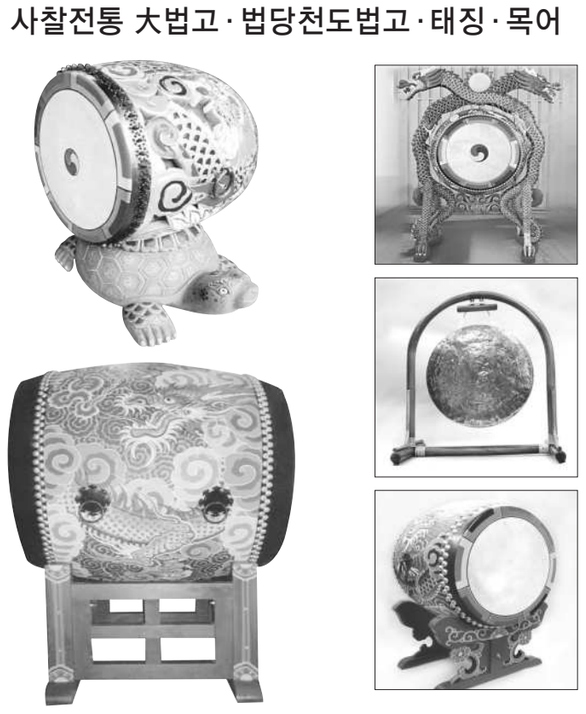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머리를 맞대고 모의한 끝에 두 사람이 생각해 낸 부처님 살해 계획은 이런 것이었다. 먼저 한 사람이 가서 부처님을 암살하고,이어 두 사람이 앞의 암살자를 죽이고, 이어 네 사람이 앞의 두 사람을, 이어 여덟 사람이 앞의 네 사람을, 이어 열여섯 사람이 앞의 여덟 사람을 죽인다. 마가다 국에서 이미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던 부처님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 벌어질 사태를 감당하기 두려웠던 아자타삿투와 데와닷타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하고 만다. 최초의 한 사람이 부처님을 살해하고자 다가갔을 때 그는 그만 부처님의 위력에 부들부들 떨며 온몸이 경직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그런 그를 위해 법을 설해 주셨고, 그는 죄를 뉘우치며 우바새가 되어 버렸다. 그를 찾기 위해 갔던 다른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교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 열여섯 명까지 모두 뉘우치고 우바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모로 한 나라의 왕비까지 된 여인 케마. 아름다운 미모와 권력, 부에 대한 애착을 끊는 일이 어찌 쉬웠을까마는, 그녀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헛된 집착을 벗어던지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그녀의 버림이기에 더 위대하다. 다듬고 다듬으며 감추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추하게 늙어 가는 이 육체, 또 언젠가는 형체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질 권력과 부富. 그 허망함을 알면서도 이것들에게 가차 없이 버림받기 전까지는, 아니 버림받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좀처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로이건만, 케마는 이 모든 것들의 허망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본 순간 미련 없이 애착을 벗어던졌다. 이 위대한 용기야말로 그녀를 부처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최고라 칭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리라."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봉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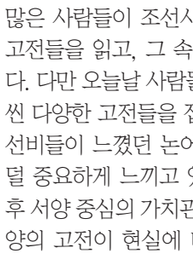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처명)

자신을 닦아 君子에 이르러라

불교로 읽는 古典

유교 경전 〈논어〉



이종수
순천대 불교문화연구센터장

우리는 가끔 역사 드라마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논어〉 구절을 인용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럴 때면 말하는 사람이 괜히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고전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논어의 조금 긴 구절을 한문으로 말한 후에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와~" 하며 탄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논어〉만이 아니다. 〈맹자〉도 그렇고, 〈중용〉의 구절을 인용해도 그렇다. 한문이 교육 과정에서 거의 사라진 이후 논어와 같은 고전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문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논어〉나 〈맹자〉와 같은 고전이 우리에게 그 의미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한글로 번역된 글이긴 하지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읽었던 고전들을 읽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다만 오늘날 사람들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고전들을 접하고 있어서 조선의 선비들이 느꼈던 논어와 맹자의 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근대 이후 서양 중심의 가치관으로 발전한 탓에 서양의 고전이 현실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고, 또한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철학적 사고의 방법이나 생활 환경도 글로벌화 되면서 점차 서양과 동양이 동일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서양의 뒤를 쫓고 있지만 문화는 동양의 고전적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높게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오늘 수천 년 간 동양의 고전으로서 읽혀왔던 논어를 통해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통해 논어를 읽어보고자 한다. 내가 불교를 처음 접했던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부터였지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에 나가면서 절에 가서 〈천수경〉을 외우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배웠다. 그 때 이후로 나름대로 연기법이 무엇인지, 사성제가 무엇인지, 중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자 번민하는 세월도 보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며 한국불교사를 공부하던 즈음에 조선시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유교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고전번역원에 입학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을 한문으로 배웠다.

사서삼경이야 번역본들이 있으므로 굳이 한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배울 필요는 없었겠으나 나름 학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던 시기여서 한문도 배우고 유교도 배우자는 심산이었다. 꽁 먹고 알 먹자는 심보가 작용한 것이다. 그렇게 처음 〈논어〉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 1130-1200)의 해석까지 보는데 거의 1년을 꼬박 논어에 몰두하였다. 원문 그대로의 논어는 번역본으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고전의 깊은 역사성이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듯 내게 다가왔고 이 책이 불교와 어찌 다른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나는 재미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그렇게 〈논어〉를 다 읽고 난 이후, 나는 〈논어〉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고려말 이후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비판하였는데, 불교는 무부무군(無父無君), 즉 부모도 버리고 임금도 버리고 떠나 수행하므로 효(孝)와 충(忠)을 저버린 가르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성리학자들의 성전(聖典)이 바로 논어이므로 논어에는 불교와 다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논어〉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보다는 불교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논어〉를 성(性)과 리(理)의 측면에서 해석한 주자의 주석을 보았기 때문에 불교를 비난하였던 것이지,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비판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송나라 주자의 성리학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많은 유학자들이 불교를 신앙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유학은 어떻게 다른가? 공자의 유학은 정치학이고 주자의 유학은 성리학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가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끊임없이 말한다.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군주가 어찌 해야 하는지, 선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군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군주와 군자의 도를 가르친다. 이에 비해 주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성(性)과 리(理)의 철학으로 충과 효를 재해석한다. 불교의 충과 효는 출가를 통한 자기 깨달음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만, 성리학의 충과 효는 인간의 근본으로써 한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도리이다.



현재 유교를 있게 한 중국 고대 사상가 공자(孔子)의 진영. 유교의 경전인 〈논어〉는 유교의 경전이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논어〉에는 공자와 제자와의 문답 위주로 공자의 발언과 행적,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돼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의 자세와 군자의 길을 설한 공자 '논어'
자기 절제와 반성, 군자의 요건
공자 · 부처 "학문과 수행 통해 깨달음 이루어라" 강조

결국 주자의 가르침은 불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자를 걷어내고 논어를 읽는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또 다른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혹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서 보완할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빠진 것이 없다. 정치, 경제, 군사, 철학, 역사 등 그 모든 원리들을 설파하셨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있게 마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心)'을 밝혀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공자의 가르침은 군주가 훌륭한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과 군자의 언행 방법에 대해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자의 길을, 공자의 가르침은 정치가의 길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제 논어의 구절을 통해 공자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히 하고 말을 삼가며, 도가 있는 이를 찾아가 (자신의 그름을)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공자는 군자의 길로써 자기 절제와 반성을 강조하였다. 스스로 바르게 되지 않고서 남을 다스릴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위에 정치를 설한다. 이는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 몸을 다스려야 한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화평하고, 정신이 깨끗하고 신체가 화락하며 교화가 그릇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맥락과 거의 일치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은 면하겠지만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도 있고 바르게 될 것이다."(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위의 글은 공자의 정치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공자는 단순히 공평무사의 정치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형법으로 백성들을 겁박하여 다스리기보다 예와 염치로써 백성들을 인도하여 효와 충이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의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불교의 전륜성왕이 깨달음을 이룬 임금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듯이 공자도 훌륭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군자에게 평소 자기반성을 강조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공자는 어진 사람을 보면 배울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에게 그런 점이 없는지 성찰하라고 가르친다. 즉 평소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어리석거나 방탕하지 않게 되어서 군자의 길로 나설 수 있고 군자의 마음가짐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하는 자가) 참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子曰 苟正其身矣 於從政乎 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공자는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이 없다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공자의 말씀이 정치가들에게 향해 있다면 부처님은 중생들을 향해 수행의 당위성과 방법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불교는 유교에 비해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유교는 불교에 비해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공자는 괴이함과 용력과 패란과 귀신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子不語怪力亂神), 불교는 죽음 이후의 극락과 지옥에 대해 많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불교와 유교의 이러한 차이점은 수천 년 동안 공존하면서도 서로에게 극한 핍박을 가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혹자는 조선시대에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권력자들은 불교의 정치와 경제적 권력을 빼앗기는 했으나 그 신앙까지 탄압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건재한 대부분의 불교 문화재들은 조선시대에 건립되었고, 그 주요한 시주자들은 왕실이나 양반들이었다. 성리학자들 중에 불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은근히 불교를 신앙하였다. 불교는 유교에서 말하지 못한 죽음 이후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사찰에 가서 죽은 이의 왕생극락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들과 달리 주자의 성리학에 경도되지 않고 논어를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굳이 주자의 해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논어〉 그 자체만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자를 걷어내고 〈논어〉를 읽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도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물로 누추한 시골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거늘,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위의 글은 공자가 제자였던 안회를 칭찬하며 했던 말이다. 이러한 공자의 말은 수행자를 향해 금욕을 가르쳤던 부처님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논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자의 가르침 또한 수행자를 향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고, 수행을 통해 군자의 길로 나서라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선입관을 버리고 눈과 귀를 열어 놓고 논어를 읽는다면 그 속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선(禪)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공자의 말에서 배울 점이 많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터득함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교 명상 수행이 삶에 지친 많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지만, 그 수행만을 강조하면서 불교의 전체인 것처럼 말한다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격이 될 것이다. 수행만 하고 학문하지 않으면 생각이 아집에 빠질 수 있고, 학문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이해한 불교가 또 하나의 독단이나 집착이 아닌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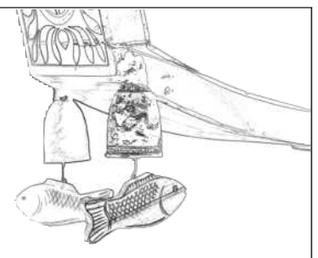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되어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 본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 다음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방편술

- 경쟁사회에서는 능력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 방편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가 25만원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지도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사바세계최초 "재물(음식)을 차리지 않고 목탁, 염불"을 하지않는 우주광명 신통력 기천도재
각종질병,우환,업장소멸과 완벽한 조상천도 / 장애로 인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해결 / 가장빠른 깨달음과 해탈 사후 극락왕생 / 아미타불 일광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우주 기천도재
우주광명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 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라는 기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좋은인연 찾습니다

1970년생 만 45세, 초혼 남성입니다. 5층 상가건물 주인이며, 키는 180cm. 불자인 여성을 찾습니다.
010-2636-0760

주지 원합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불사가 어려운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스님 도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세요
(60대 비구승)
010-5699-4848

부전스님, 공양주(초보자 환영) 모십니다

(밀양 삼랑진 삼봉사)
010-4484-5758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찰 운영하실 분도 찾습니다
(울진 월송사)
010-2078-9595

함께지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학인스님 가능)
(경주)
010-3746-8887

비구니, 비구

평생을 같이 보내실 분
적은 보시금으로 계실 분
(세수 60-65세까지)
010-3499-3721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 010-4593-29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구성학 인연관법 특강반 수시 모집
(개강일 : 3월 23일 월요일)

특강내용 (8주 인연관법 전문 족집게 완성)
- 구성 명반 쉽게 작성하는 방법
- 구성학으로 개개인의 인연법에 맞는 조상 천도제, 칠성제, 젊은 영가 천도제, 태아령제, 빙의 등의 제(祭)를 한눈에 찾는 방법
- 1년 운세 및 한달 운 쉽게 통변하는 방법 • 각종 택일 쉽게 찾는 방법
- 강의시간및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6시 30분 (3시간)씩 8주간
- 수강인원 : 12명 (인원이 12명을 넘으면 다른 요일로 분반 합니다)
010-5116-9313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구성학 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과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 본생경 -

사 찰 안 내

▶ 바다조망 토굴 터 안내◀
- 위치 : 거제시 바다조망 최고
- 총부지 : 526㎡ • 가액 : 3800만원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순천시 낙안온천 부근
- 법당 : 61.8㎡ 석담조 기와지붕
- 총부지 : 5,000평(종교용지 186평)
- 가액 : 3,500만원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 15평
- 총부지 : 1,900여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여년 전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암 자 양 도

- 위치 : 단양 암자 양도
- 1층 건물 약 76㎡ 노천불
- 토지 6,000㎡. 과실수입 2천만
- 양도금액 : 3억 1천만원
- 조용함토굴로 적당, 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 대지 1,019평
  대웅전(木)20평. 종각(木)4평
- 산신각, 용왕각, 종무소,
  요사채 3동
- 가액: 4억(절충가능)

010-3517-2226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9988-7242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서울
◎ 부지 : 13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50평,외전각2채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6억 5천 ◎ 양도 : 8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남 하동 지리산 사찰 양도
* 건물 97㎡, 요사채 79㎡. 총건물 3동
* 토지 5,500㎡ 계곡접한 조용한 사찰
* 양도가 : 15억 (분할 양도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로타리 인근
- 대지 200㎡, 건물 223㎡, 3층 법당
- 법회나 각종 의식행사 등에 민원 없음
- 시설 깨끗하고 도심의 조용한 사찰
- 지하철 도보 2~3분거리 대중교통편리
- 신도분들이 언제나 편안히 기도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 6억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203-33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 속 조용한 사찰
- 가액 :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 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 가능함 (중계 보조원)

010-5534-7239

사찰 요양원 수련원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정남향 5,000평, 진입로 포장, 전기 상수도 지하수 완비
- 좌청룡, 우백호 잘 되어있음
- 평당 20만원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675-128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 및 납골당 건립 최적장소 (급) 안내

- 위치: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야리 110번지 양촌 IC에서 15분 거리
- 대지 : 500평, 전 · 답 : 3,000평
- 요사채:50평 방5개, 후원방1개 욕실완비(심야전기)
- 농가주택 1동(80M암반수)
-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이 잘 갖추어져 있는 최적의 도량
- 가액: 9억 5천(절충가능)

010-3435-23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 평수: 30평, 법당, 방2, 주방, 욕실
- 건물4층, 옥상사용 가능
- 버스정류장 앞, 3호선 6호선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3천 8백만원(절충가능)

02)357-3623
010-9511-084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태화산 아래 남향
- 목조 법당 약 15평
- 산시각, 요사채 합 약 1,200평
- 금액은 상담후 결정 (기타상담 가능)

010-3288-13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대구은행 옆
- 평수 : 3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광역시 구포시장(역세권) 농협구포지점 ↔ 신협중간
- 건물: 50평, 2층 단독건물, 옥상단독사용
- 시설: 불상개금, 삼존, 지장(법당 올수리)
- 소불 200불, 좌대법고 대1, 중1
- 친견실 1, 객실2, 공양간 식당
- 주차장 30평, 주차수입전액 2층세 포함
- 가액: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상담 능통자 환영

010-5348-256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법당 : 목조 18평
- 요사채: 목조 30평
- 전각 : 목조 3동
- 기타 부속 건물 3동
- 부지: 전, 임야,대지-약 1890평
- 양도가액:4억5천만원

011-854-9559

꼭 매입할 의사가 있는분만 연락주세요

부산 온천장 중심 법당

- 2층 공양실, 방 2개(약 50평)
- 3층 법당, 방 1개(약 50평)
- 100% 살림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2천만원
- 월세 : 일백십오만원
- 시설비는 거의 없음, 보시고 결정

010-4010-40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번지 선경복합상가 4층
- 평수 55평(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엘레베이터)
- 전세 : 2000만원에 달세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55-49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20평 주차장 100평,
- 기도하기 좋은곳, 산세가 좋고 물 맑은곳. 송이, 능이 많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571-65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 대지1000평 임야 2000평 총 3000평
- 건물 5동 타종 1총 6채
- 양도가 : 15억

상담문의전화 :

010-9818-096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멋진 한옥 토굴 암자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교
- 대지 233평, 기억자 한옥 56평
- 대구 밀양 30분거리, 선원별장, 전통찻집
- 내부 인테리어 양호, 에어컨 3대 설치되어 있음
- 태양광전기, 대밭, 잔디, 정원양호
- 가액 : 2억 3천만원

010-7417-4560

- 토굴 20평 200백에 월 25만원 있음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수십년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요사채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20평, 주차장 넓고 텃밭있음
- 가액 : 전세 7천만원 삭월세 3500만원, 총가액 1억 5백만원

010-3556-299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천마산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자가용으로 송도 해수욕장 3분거리
- 2층 약 60평, 위치 환경 특 A급
-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용왕단, 산신각, 영가단, 포대화상
- 큰공양간, 방3, 샤워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7337-17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개원 8개월)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0-4541-1140
051)532-114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서재1, 큰방 1, 작은방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신비한 동굴 사찰 안내

- 전국 최대의 천연맥반석 동굴법당 3구
- 1동굴 120평, 2동굴 80평, 3동굴 3평
- 대웅전, 산신각, 돌탑 108기, 식당, 종무소 등
- 사찰벽을 타고 사철 계곡물 흐름
- 경산시 남천면 소재(총 10,500평)
- 가액 : 대출 3억3천만 안고 6억 7천만원

010-3809-74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수성구 황금동 대구 지하철 3호선 역세권
- 대지 마당포함 50평, 2층 주택 중 2층, 남향
- 도시가스, 방 3개, 불구, 탱화, 범종, 에어컨 등
- 포교원, 철학관 적합
- 가액: 보증금 300, 월세 55만, 시설비 950만원(조정가능)

010-5311-27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상북도 청도읍
- 마당이 있는 독채 임법당
- 가액 :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5366-149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7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 양도가 : 2억

010-4855-7205
010-3036-76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장한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파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30불, 탱화(후불, 신중, 지장) 기타 불기용품
- 오피스텔 2층 15평(10층 건물 도시형 주택 및 사무실 약 170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합 3,000만원

010-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 329.4㎡
- 창고, 기타 : 약 15평 외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

010-7582-0098

청 평 한 옥 안 내

- 위치: 청평
- 대지 :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 2개 중 하나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직거래 010-9411-530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용왕, 신중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집기 일체 800백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스님 건강상)

010-9036-1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최고 명당터 근린시설
- 건물 약 300평 (지하1층, 1,2,3 층 각75평)
- 대지 130평 • 사찰 : 3층 75평
- ※월 임대수입(지하1층, 1, 2층) 200만원
- 가액 : 8억원(융자 2억 8천포함)
- 절충불가, 꼭 원하는 분만 연락요망

043)845-812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1동 33평, 약사기도도량임
- 가액 : 2억 7천만원 (은행대출 6천 5백) (시설물 일체)

010-7183-01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 지역
- 전체 75평, 건평 24평(작은 텃밭)
- 1층 방3, 주방, 욕실, 마당해수관음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시설일체완비)
- 시장안에 위치해 포교하기 좋음

011-9542-8250

도심 속 사찰안내

- 위치: 안산시 단원구 신고잔 로데오거리
- 5층 건물 중 5층
- 총 150평에 실평수 75평 마당에 조립식 건물 두동(2동)
- 현재는 부처님 모셔져있지않음 주위에 300전세대 아파트 입주
- 방4개, 화장실2개 엘리베이터, 복도 남녀화장실
- 양도가액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010-9000-2291화주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및 비품시설완비
- 주차시설완비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011-543-2161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소재
- 종교용지 및 대지 약 59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절 터 안 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사 찰 안 내

- 산중의 청정도량 명당의 사찰입니다
- 답사하시면 후회 안함
- 가액 : 3억 8천만원

011-9973-0836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4〉 고통과 무희망

"진실로 짐 짊어지면 무거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로파의 삶과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탄트라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나로파를 이해하려면 탄트라를 알아야만 한다.

탄트라 또는 금강승 불교는 불교의 지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근원적인 동시에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 탄트라는 깨달음의 체험 중 최종단계이다. 깨달음의 체험에는 3단계가 있다.

우선 1단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응신의 단계이다. 여기서 깨달은 마음은 평범한 생명들과 소통할 수 있다. 2단계는 보신의 단계로서 평범한 생명들의 감성 및 에너지와 소통할 수 있다. 3단계는 법신의 단계로서 평범한 생명들의 깊은 무지와 소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처와 우리는 탄트라에서 제대로, 완전히 관계하게 된다. 물론 대승에서도 이들과 관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승의 최후 발전 단계가 탄트라이다. 다시 말해서 대승의 부처란 것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는 완전히 깨달은 존재이며, 탄트라적으로 완전히 깨어나 있다. 즉 대승이 발전해 탄트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탄트라의 기본을 알아야 한다. 탄트라를 접근하는 방법은 지성과 직감, 몸과 마음을 발달시켜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심자에게 몸의 의식[休識]과 마음의 의식[心識]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고통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고뇌가 있고 고뇌가 있음을 깨닫는 것, 고통이 있고 고통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기초적 수준이지만 그래도 역시 어느 정도의 지성을 요한다.

고통을 깨달으려면 대단한 이해력을 요한다. 이런 수준의 이해력이 탄트라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탄트라적 지성은 평범한 차원의 시작점 즉 고통의 차원에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는 지레 앞서 나가서 너무 높은 수준에 가려고, 이를테면 1층을 제끼고 곧바로 최상층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탄트라적 지성은 고통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트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만트라이다.

여기서 만트라는 우리가 되풀이하여 횡설수설 중얼대는 무언가가 아니다. 만트라는 방편, 즉 지혜로운 수단이며, 마음, 즉 근원적 지성 또는 깨어있음을 보호한다.

만트라가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은 마음 곁에 보초를 세운다거나 또는 마음 위에 유리상자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다. 만트라의 보호는 장애를 없애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지성에 대한 모든 위협을 다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작동되는 보호 방식이다.

고통은 대체로 매우 심하다.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고통의 묘사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고통은 에고와 유사어이다. 에고가 바로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이 바로 에고이다. 고통은 노이로제이다.

고통 또는 에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다. 하도 큰 비밀이라서 그 이름을 꼭 집어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저 모호하게 말을 흘리기만 해도 동료나 친구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그저 "정말 괴로운 하루였어."라고 하면 친구는 절대 "무엇 때문에?"라고 묻지 않는다. 그저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비한 소통이다.

고통은 우리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름 할 수 없는 사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이름이다. 그것은 속세에 있는 신이다.(두렵고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고통 자체가 진리이니까)그것의 보호 방식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가지 않으려는 망설임이다. 너무 멀리 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는 위험은 실제로 없다. 에고의 관점에서 위험은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그 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재조립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힘을 우리가 불러온다 해도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만들어 낸다 해도 한 번 폭로되어 망가진 에고를 다시 붙일 방법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매우 지성적이다. 거기 이미 약간의 탄트라가 존재한다. 우리는 실제로 에고의 보호작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알고 있다. 일어나는 일이 매우 간단한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술책이 거기 있다는 느낌! 그런 에고의 보호작용이 바로 고통이다.

그것은 류머티즘 같은 신체적 고통이 있다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심리적 고통을 받아서 마음이 괴로운 차원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기 있음, 존재, 말할 수 없음 같은 근원적 신비 체험이다. 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이 고통이다. 그리고 거기에 모종의 지성이 있다.

나로파의 경우 그는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집을 떠나 승원으로 들어가 스승과 구루들에게 자신을 폭로하려 했다. 그리하여 그가 포기하고 귀의할 수 있도록, 오만과 혼란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말이다. 하지만 나로파의 삶의 예를 보면 이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분명 서구에서는 만남의 그룹, 고해성사, 정신과 의사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러내고, 갖가지 종교적 사회적 철학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하는 방법을 발전시킨 것 같다. 겉보기에 자신을 폭로하는 듯이 보이는 방법은 아주 많다. 우리는 자기 폭로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는 듯하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작 하고 있는 일은 그게 아닌 것 같다.

나는 지금 서구에서 발전시킨 모든 방법이 다 실패작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에는 진실이 있다. 우리는 분명 엉뚱한 못이 아니라 올바른 못을 치고 있다. 문제는 그 못의 정수리를 제대로 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저 그 못을 여기저기 이리저



고통 사라져야 행복해진다는 믿음은
잘못된 마음자세…없애고 싶은 마음이
고통을 장애로 여기게 하는 것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
구속하는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리 쳐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물은 올바른 패턴을 따른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일어난 영적, 심리적, 철학적 발전은 놀랍도록 지성적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문제이다. 우리는 에고를 폭로하는 동일한 의식을 계속 매일 매시간 매주 되풀이해야 할까? 고해성사에 아무리 많이 간다 해도 그 횟수에 한계가 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마약이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열린 느낌, 다른 차원의 느낌을 준다.

여기서 문제는 기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자세이다. 우리 자신을 폭로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비밀이라는 짐을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채고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기서 주된 논리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약삭빠른 묘책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때로 묘책을 만드는 도중에 우리는 새로운 묘책을 발견한다. 최초 묘책의 방법과 기술을 실행하는 동안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묘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온갖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결국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실행해보지 못하게 된다. 완전한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면을 만든다. 이제 처음의 묘책은 통하지 않는다. 자신을 폭로하는 의식을 반복하는 묘책이 또 다른 가면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아주 두꺼운 가면이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커다란 바위 속에 광물처럼 틀어박혀버린다. 방법 자체가 장애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

문제는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자세이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고통의 진리이다.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만트라이다. 이것은 충분히 되풀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당신은 첫 번째 입문식을 치렀다. 당신의 만트라를 가진 것이다.

고통이 큰 장애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장애가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고통을 장애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고통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고통의 존재를 깨닫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나서는 고통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교의 귀의 개념에 걸맞게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빼어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서 귀의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가망성이나 가능성, 잠재성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짐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희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얼마나 신선한 경험인가.

다시 말해서 짐을 진실로 짊어짐으로써, 짐을 온전히 짐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무거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흙속으로 짓누르고 있는 바위와 나를 동일화하는 것과도 같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바위가 된다.

나로파의 삶을 공부함에 있어 우리는, 그를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후 내내 행복하게 살았던 신화 속의 어떤 주인공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나로파의 삶을 각 단계마다 세세히 살펴보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현실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희망이라는 첫 단계는 소승불교 차원에서 탄트라의 근간을 깨닫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희망이 있다. 또는 가망이 있다는 느낌이 영적 수행길에서 장애가 된다고 확언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희망을 만드는 것은 영적 물질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약속과 각종 증거가 존재한다. 우리는 자동차 세일즈맨과 동일한 접근법을 수행에서도 발견한다. 또는 진공청소기를 시연해 보이며 그 청소기를 사면 집안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지 선전하는 사람의 수법과도 같다. 그 청소기를 사기만 하면 우리의 방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이며, 먼지가 다 제거되어 티끌 하나도 없을 것인가. 그것이 진공청소기 판매원이든 구루이든 우리는 동일한 차원의 판매수법을 발견한다.

그래서 구루든 판매원이든 다 유물론자라는 동일한 그룹에 속할 수 있다. 수없는 약속이 남발된다. 우리의 가슴에 너무나 많은 희망이 심어진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한다. 고통에 관한 한 그것은 더욱 혼란을 조장한다. 고통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고통 아닌 다른 것을 찾는 데 완전히 열중한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고통이다. 불신을 억누르고 믿음에 집중하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자신을 설득하면 그 방법이 효과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고통이다.

영적 수행길을 밟는 기본 요건이 무희망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런 체험을 계속할 것이다. 무희망은 절망과 똑같지는 않다. 분명 차이가 있다.

절망은 무기력이고 지성의 결핍이다. 거기에는 심지어 절망의 이유조차 찾아보려는 마음이 없다. 완전한 실패자이다. 하지만 무희망은 매우 지성적이다. 우리는 계속 찾는다. 우리는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계속 말한다. "희망이 없다. 이것도 희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활력이 넘친다. 말도 안 되게 활동적이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말해야만 한다. "맙소사! 끔찍하다!" 무희망이 계속된다.

그것은 매우 원기왕성하고 매우 고무적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무언가를 막 발견하려는 순간처럼 당신을 즐겁게 한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말한다.

"아, 이제 그것을 발견했다!…아니야, 맙소사! 또 옛날 그거잖아!" 무희망에는 거대한 도전과 흥분이 있다. 당신이 포기할 때, 하나의 무희망 뒤에 또 하나의 무희망을 만나 완전히 절망 속에 잠길 때, 그리하여 절망과 무기력이 당신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기 바로 일초 직전에 당신은 유머감각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신은 유머감각을 점점 발전시키고, 그렇게 할 때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나 멍청해지지 않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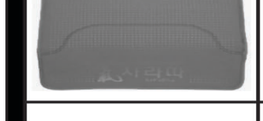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영산재 50호 유네스코 등재된
서울경기범패 불교의식 범패 학인모집

❶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❷ 사시불공, 시다림, 방생의식, 39위 작법, 설주이운
❸ 천도재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상용영반(기제사)
❹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❺ 나비춤 : (도량게, 다게) 법고춤
❻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❼ 화청, 공덕게, 행보게

■ 개강일 :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 종무원 / 전화 051)442-1818

● 속성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속성반 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앙리 25-2번지
군북파출소앞 광법사
● 강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동주대학교에서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음악 공부하실 분.
전화주십시오. (불교교리 : 민지효 스님, 불교음악 : 가수 이현주)
●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동주대학교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응 스님 ㊦

법열의 단맛에 차향은 느껴지지 않고…



단맛, 140X73cm, 종이에 수묵, 2015, 작가소장. 관응 스님과의 대화에 열중한 사이 차가 식어버렸다. 차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황악산 중턱에 사는 장수말벌이 와서 찻잔 속에 있는 차의 단맛과 맑은 색을 다 빨아먹고 표표히 날아갔다"고 하셨다.

관응 스님께서 물으셨다.

"김 화백,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왜 그리나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원초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스님의 질문은 예술창작의 기본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

"저는 조선의 된장 냄새를 그리고자 합니다. 내가 딛고서 있는 이 땅의 모습과 이 땅에서 숙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신을 그리고 싶습니다. 불의와 억압, 그리고 압제를 뚫고 잃어서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대중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땅의 모습을 내가 추구해야 할 예술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로서 해야할 일이라는 확신에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도록 말미에 수록된 작가노트 내용을 중심으로 스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했다. (작가노트는 시공사 아르비방 김호석 도록(1994)과 샘터화랑 전시도록(1994)에 수록되어있음) 내 말이 끝나자 스님께서는 수초(守初)라는 호를 지어 주시고는 "처음의 뜻을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 그러고 보니 '수초' 라는 법명을 쓴 이가 있었습니다. 중국 스님인데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마삼근(麻三斤)' 이라 답을 했던 분이지요."

나는 성철스님의 화두도 마삼근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마삼근을 두고 스님과 나 사이에는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는 스님께 여쭈었다.

"왜 부처가 참깨 세 근입니까?"

순간 스님은 화들짝 놀라며 "왜 마 삼근을 참깨 세 근으로 보느냐"고 되물으셨다.

"저는 마(麻)라는 글자가 삼베 재료인 삼과 참깨 그리고 마마자국을 의미한다고 배웠는데, 불법과 연관짓는다면 삼베가 아닌 참깨와 관련이 깊다 생각합니다. 말린 삼 3근은 삼베를 13자 정도 밖에 짜지 못합니다. 길이로 봐서 별 효용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참깨는 홉, 되로 계량하지만 중국에서는 근 단위로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깨 1개를 심으면 하나의 대에서 2백여개 이상의 깨가 수확됩니다. 참깨를 털 때 얼마나 좋으면 '깨 쏟아지듯' 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참깨 농사를 지어보니 살이 통통한 하얀 깨가 툭툭 터지며 수북이 쌓이는 모습에 환희가 일더군요. 이외에도 참깨를 볶아 기름을 짜면 혀를 부드럽게 하여 마음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푸성귀 등 채소를 무칠 때 사용하면 천연 구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깨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교 역시 공부할수록 생각이 증식되는 것이나 깨닫게 되면서 얻는 환희심이 참깨에 담긴 의미와 일견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말씀 드렸다.

스님은 내 말이 끝나자 마삼근을 참깨 세 근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빙그레 웃으셨다. 그 웃음은 마치 이가 나지 않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 같이 아름다웠다.

이어 스님은 내게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글자는 약속이지만 사고가 유연하게 넘나들어야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김 화백은 너무 사변적이군요. 자신에 갇히면 자신도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스님의 조언에 부끄러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궁금한 바를 여쭈었다.

"스님 그러면 불교란 글자에 매달리고 끌려 다니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녹차를 마시며 논쟁은 계속됐다.

이야기는 종교와 동서양 철학을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나는 녹차가 앞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열중했다. 논쟁이 한 풀 꺾여 정리 될 즈음 차를 입에 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차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스님께 무슨 차이기에 이렇게 무미한지 여쭈었다. 이에 스님께서는 머리를 뒤로 젖혀 파안대소 하시며, "김 화백이 하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황악산 중턱에 사는 장수말벌이 와서 찻잔 속에 있는 차의 단맛과 맑은 색을 다 빨아먹고 표표히 날아갔는데 그걸 보지 못한 모양이지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스님의 말씀에 "황악산 벌은 차 맛도 다 아는 모양이네요? 참, 사람보다 낫네요"라고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그러자 스님의 표정은 일순간 심각해졌다.

"김 화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 제 이름 값을 하면서 생을 영위해갑니다. 아니 이름을 가지지 않은 생물 · 무생물조차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김 화백의 말은 곤충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곤충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충, 해충의 생각을 뒤집으면 인간은 그 반대로 해로운 동물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 생각을 지우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아차 싶었다. 스님의 말씀은 내게 큰 가르침이 됐다.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전갈을 받고 다비식 하루 전 중암을 찾았다. 스님이 머무시던 방에서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은 시자스님의 배려였다. 나는 큰 어른을 잃은 슬픔에 괴로웠지만 스님의 육신을 보는 순간 스님과 함께 한 시간과 공간이 몸 속 세포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감사한 마음이 슬픔을 눌렀다. 공교롭게도 나는 스님의 가시는 날 정수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김천시내 병원에서 6바늘을 꿰매고 붕대를 붙인 채 밤새 다비장을 지켰다. 스님이 가신 날, 머리에 난 상처는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더욱 강렬하게 기억하는 계기가 됐다. 밤새도록 이글거리며 타는 불 소리가 마치 스님의 독백처럼 귀를 때렸다.

"삼이냐? 참깨냐? 앞이냐? 뒤냐? 그 말이 가지는 분별력의 벽을 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이 말을 알아들을 때 무릎을 탁 치며 세상을 얻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요."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올해로 10년째다. 현실을 벌에 빗대어 표현할 내용이 있어 벌을 그리려고 밑그림을 그린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안 그려지고 불현듯 스님의 말씀만이 귓전에 맴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황악산 중턱에 사는 장수말벌이 찻잔 속에 몸을 적셔 차의 맑은 향과 색을 다 빨아먹고 날아갔다…"

스님, 스님 말씀대로 황악산 장수말벌이 날아와 찻잔 속에 들어와 차향을 모두 빨아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하도 귀하고 귀해 그 법열의 단맛에 차향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까?

벌이 사람보다 낫다는 농담 한마디에도
무생물조차 존재 의미있다며 정색하시던 스님
분별력 뛰어넘는 '유연한 사고' 강조
20년 지난 지금도 스님의 가르침 기억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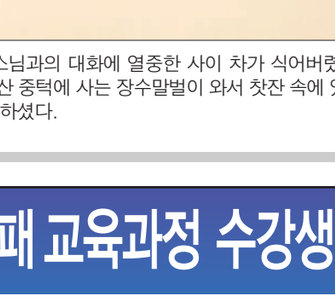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거니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야 할 인생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졌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원의 꽃이 저렇게 한데 합쳐져서 조화가 이루어졌듯이, 산의 고목이나 벌레 먹은 나무들, 짧고 긴 나무들, 풀 등도 각기 모습이 다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 산골마다 물도 좋고 돌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눈에 비추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둠이로 생각해서 물 위에 산이 가고, 산 위에 물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지혜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혜는 물로 비유했고 마음내는 이 자체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 모습이 다른 여러 종류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고 또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산에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들이나 산이나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그것을 타진해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 비유하니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갖 지각이 한데 합쳐진 것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받아들이고,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부닥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지혜롭게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화가 불끈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미롭고 친근하고, 어떤 땐 웃음이 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을 찌푸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랬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달라지는 이 마음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듣기 때문에 산으로도 비유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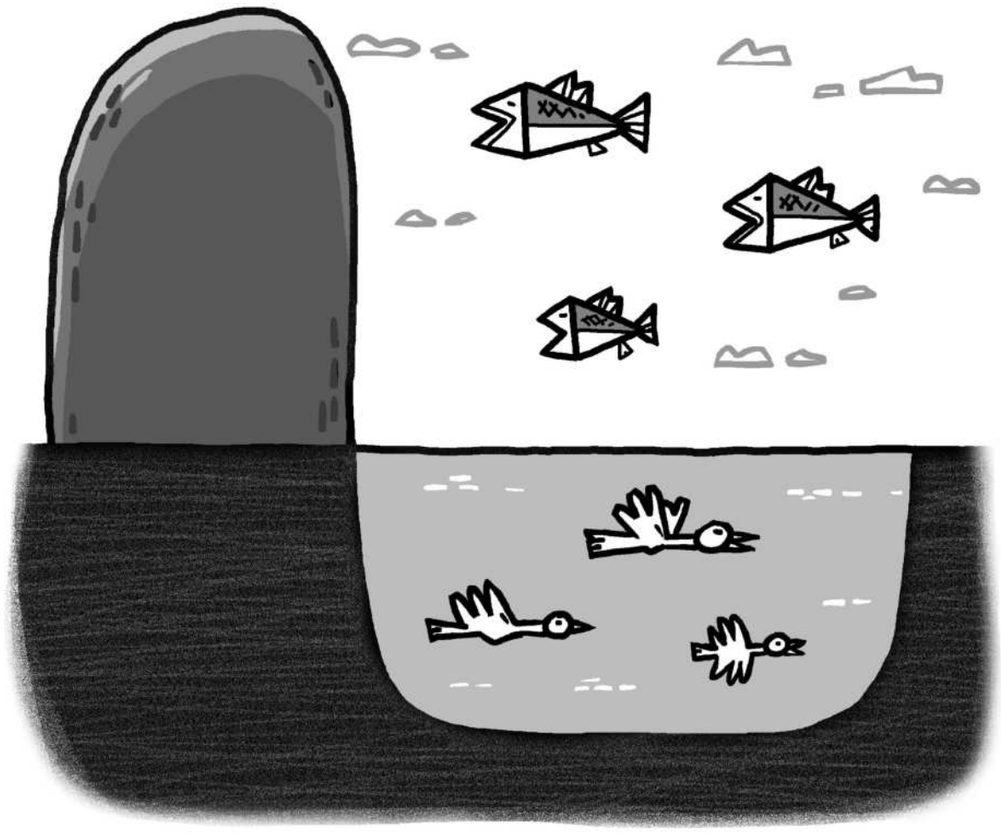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시 아름답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봐서 아주 맛이 없는 것도 느끼고 맛이 있는 것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손으로 쥐어서 촉감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는 그 자기의 모든, 한데 합쳐진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각이 뚜렷하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융합돼서 돌아가는 것을 발현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는 그 자체의 지혜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다와 같아야 된다. 좁아서는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 라는 겁니다. 처음 단전을 할 때 배꼽 밑에다 중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공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느끼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되게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몸도 어떠한 부분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게끔 모든 면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한 사람' 이라고 한다면 왜 '한 사람' 이라고 했을까? '한' 이라는 것은 이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서 한데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돌아가니까 '한' 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손을 움죽거릴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상응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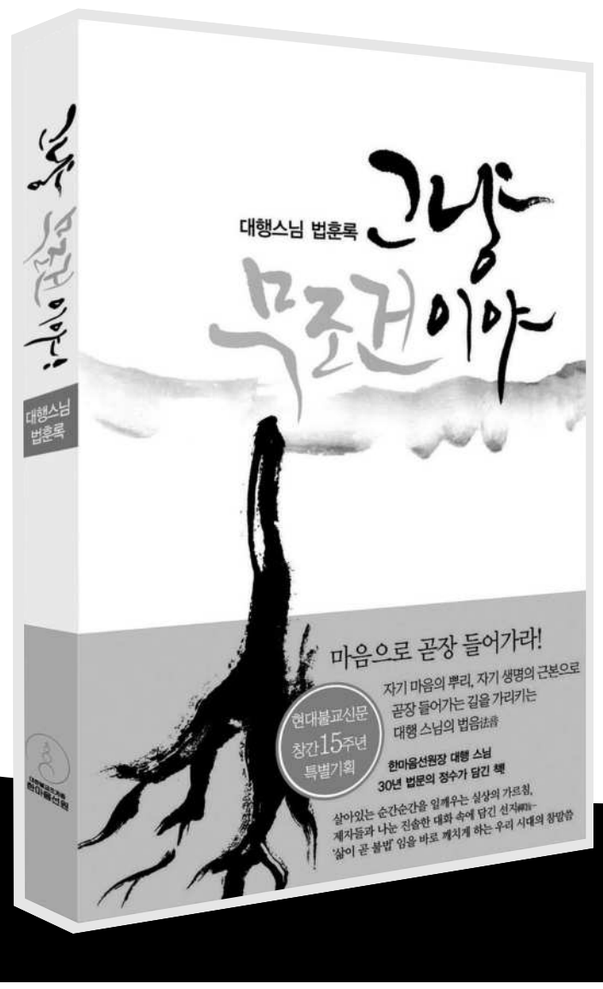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한 화병에 여러 가지 꽃을 담아서 조화가 되게 하듯이, 산에도 모든 게 조화가 돼서 있듯이 그렇게 조화가 돼서 연방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의 소임 맡은 지금 대표인 즉, 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5억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표하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이 몸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거기에 응해서 돌아가는 것이요, 또 그 마음에 응해서 바깥의 상대를 접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뜻을 이루어서 참자기를 자기가 발견한 자는 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계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계법을 지키지 않는 반면에 결국은 범하지를 않는다. 앉아서 다리를 틀고 좌선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이니라.' 한 것입니다.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깨친다 안 깨친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여자고 남자고 젊고 늙고 간에 이것을 불문에 부치고 자기 앉은 방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중생이라고 말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조막댕이만 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회도 보호할 줄 알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내가 앉은 자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리를,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를 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면에 여러분이 '아, 부처님 법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 아이고, 우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집착이니 인을 짓는 것이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착을 둔다면은 그것도 선인(善因)을 짓는 거죠. 집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악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고 선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느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둬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내놔 봐라.' 한다면 어디, 눈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귀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코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배꼽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광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고정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지 만약에 공하지 않았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팔십종호(八十種好) 할 때 '종호', '종'도 '호'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데 속합니다. '어렵다' 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중생이고 저렇게 하면 부처인데 내 부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언짢은 거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태어났으면 나쁘고 좋은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려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알 만큼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먹기에 달린 이 한생각을, 시대로 봐서도 우리가 단연코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크게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려면 작게 생각하고, 내가 우주 바깥을 벗어나려면 벗어나고 안에 들어 있으려면 들어 있고,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있고, 바늘구멍 속에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자기의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활 속의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렇고, 나라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사회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각중(刻中)에 어떠한 걸 봤다, '이거 참 위태하구나.' 이럴 때 즉 '이럭하면 안 돼!' 하는 그 일념을 낼 수도 있죠.

한 사람의 한 생각, '한 그릇' 이라는 뜻도 되고 '한마음' 이라는 뜻도 됩니다. 5억이라는 생명의 능력도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데 부담이 없이 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딛고 다니게 하고 또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가고 싶으면 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몸뚱이는 하나가 아니라 5억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대표인으로 됐는데, 대표인끼리 또 한데 모이면은 그 '한' 이 너무도 광대무변해서 어디고 안 닿는 데가 없이, 아니 담을 게 없이, 아니 돌아가는 게 없이, 아니 덮는 게 없이, 아니 비치는 게 없이 광대무변하게 상응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빨리 알 수가 있을까, 지속적으로.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한생각 낼 때에, 한생각은 생각 내기 이전의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하여금 생각을 낼 때, 크고 작은 것은 그대로 유(有)의 법으로써 그냥 무심으로 해 가야 되겠지만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씨름을 하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은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약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한 번 이겨 보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야, 저건 그렇게 하면 재미있는 게임이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이 팔이 저리고 아파서 못 쓰면 도저히 덩치 큰 사람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덩치가 작은 사람의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팔에 힘이 솟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몸뚱이를 넘기는 게임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왕지사 이겼던 거 조그마한 사람이 이겨라.' 하하하,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써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데에 이러한 한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싸움이 없으면서도 실은 어떠한 위기에서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이나 몸에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 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한 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앉은 방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잘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 저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마는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명하게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게,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간다.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써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의 몸뚱이지만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 된다는데….' 이러거든요.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 로 치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父)' 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 '부' 는 '자' 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누구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뜻은 그걸 알고 하면은 절을 해도 자기요, 모르고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쳐야겠다 해도 그것이 착이 되는 거니까 빨리 깨쳐야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위 법문은 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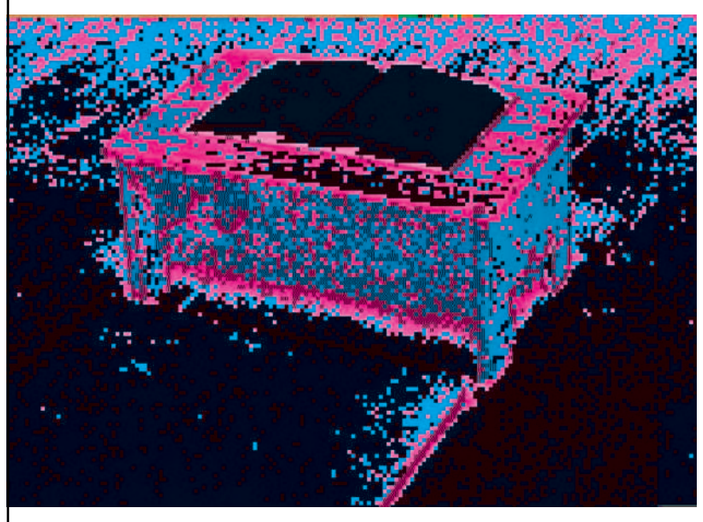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 료 배 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불자 세상보기

간통죄 폐지는 性문란의 계기가 아니다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2015년 2월26일 간통죄에 대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병합선고기일을 열고 7대2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세간에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설왕설래중이다 "쾌락이 현실을 이긴 것이다", "희대의 카사노바도 재평가 받아야 한다"등 심지어 쾌락을 추구하기위한 동호인 사이트도 생기고 있다.

간통죄 규정에 대한 역사는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고, 현대에서는 1953년도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위한 죄목이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그간 1990년, 1993년, 2001년 세차례 모두 합헌결정이 있었으나 14년만에 형법에 규정된 법정범죄에서 삭제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식이 변했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로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 그리스, 이슬람국가 및 미국의 몇 개주를 제외하고는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라는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재위헌결정으로 폐지되고 간통죄까지 없어지면서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영역에서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결혼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해서 더 행복 하다고 말한다. 반면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면서 독신으로 살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간혹 독신론자들이 결혼하면서 결혼예찬론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간통포함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상담 연도별 건수를 보면 남성은 2008년 78건, 2013년 190건, 2014년 167건이며, 여성은 2008년 603건, 2013년 1022건,2014년 893건이다.

검찰은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심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무죄구형을 하고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전과기록을 지울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본인의 소속기관에서의 징계등 사적불이익은 구제되지 않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나게 된 그 위법성에 대한 책임 까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성문란 ,쾌락추구를 부추 키는 것은 아니다.

부부일방의 부정으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불행을 자초케 한 유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더 엄하게 물어야 한다. 개인의 사적자치권을 강화해 준만큼 그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하는 것이다.

불자가 지켜야 할 신도 계율 중 5계와 수계자가 지켜야 할 10계행 중에 '사음 하지 말고 음란 하지말라' 는 계율이 있다.

또한 불교 경전에는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설파하기도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고 위엄이 있어야 하며 가정이 궁핍하지 않도록 경제적 책임을 지며 아내가 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옷과 장신구를 사주고, 의심하지말고 집안 일을 모두 일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내 역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이 밖의 일을 잘 할수 있도록 보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스와핑을 하고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어느 가정도 유지 될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호 예를 갖추어야 하며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다.

마치 길을 걷다가 빨간불신호등이 켜있으면 멈추고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길을 건너는 이치와 같다. 누가 일일이 간섭하고 제어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 속에 함께 노력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는 형법 상의 일이고 부부상호간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민사상으로는 그 책임이 가중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결혼, 성에대한 관념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정의 가치와 그 존엄성은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도 넘은 개신교의 불교 '흠집내기'

3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역명에 대한 개신교계의 불교 폄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봉은사가 문화재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봉은사역 역명 지정 철회를 요구했고 서울시에 대한 행정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했다.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국민일보' 는 봉은사가 친일 사찰이었다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불교계도 대응에 나서기도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의 무분별한 행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봉은사가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개신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신라시대 창건돼 1200년 간 지켜온 봉은사는 조선시대 승과가 시행된 곳으로 서산 · 사명대사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의승군의 중심역할도 했다.

친일에 대한 매도에도 할 말은 많다. 불교, 개신교, 민족종교 등 많은 종교인들이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만큼 친일 행적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은 것도 저간의 사실이다. 사찰령은 일제 탄압과 강제로 이뤄진 한국불교로서는 뼈 아픈 상처다.

당시 개신교는 어땠을까. 1938년 9월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신사 앞에 참배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직후 이뤄진 일이다. 이에 앞서 한국 장로교는 1938년 2월부터 8월말까지 당시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전격 결의한다. 친일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하는 자신들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 최근 개신교계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 이다. 한국 사회가 종교에 요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다. 사회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도 바쁘다. 개신교계는 이 같은 무분별한 폄훼를 빨리 거두고 자기 자리에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탑골 무료급식은 이어져야 한다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원각사 무료급식이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1993년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무료급식은 22년이라는 세월동안 종로 탑골공원의 명물이었다.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어르신들은 매일 12시면 탑골공원 인근 골목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원각사' 로 모여들었다. 취재 중 만난 어르신은 "서울 사대문 안에 이 정도 수준의 밥을 매일 무료로 주는 곳은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원각사가 3월 2일자로 마지막 급식을 진행하고 문을 닫았다. 3월 8일자로는 임대차 계약도 마감됐다. 현재까지 운영을 책임졌던 주지 보리 스님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어 문을 닫게 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은 마지막까지 원각사를 지키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은 정부 지원없이 기부금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원각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봉사팀은 30여개로 스님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어렵게 무료배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동참했다. 스님의 원력과 봉사자들의 마음이 합쳐져 20년 무료급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처와 보살은 중생과 자신을 동일하다고 관찰하고 대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 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공덕을 짓는 일이기도 하다. 원각사는 허기에 지친 어르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쉼터가 됐으며, 자발적 봉사로 공덕을 쌓는 동체대비의 현장이었다.

주위에 개신교계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각사와 같이 연중무휴로 운영하지는 못한다. 원각사의 원력을 이어받을 원력보살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언대

'카톡 왕따' 에 대한 단상

최근 신종 학교 폭력으로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카카오톡 왕따' 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체 토크방을 만들어 놓고 폭언 등을 일삼거나 참여를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하는 것이다. 정부도 대책에 나섰지만 특별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SNS 왕따에 대한 불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카따' 예방 청소년 법회 필요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카따' 는 스마트폰 시대가 만들어낸 또다른 부작용이다. 카카오톡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고독감과 충격이 두 배에 달할 거 같다. 이 모두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 어린이들은 인과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중에 그 상처를 내가 다시 받는다는 인과의 원리만 제대로 배운다면 이런 행위를 함부로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줄 알게된다. 또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인과법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 '카따' 같은 슬픈 용어가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보사회 불교 윤리 가르쳐야"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요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신종 왕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일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보사회 윤리를 인지시키고 가르치는 것이다. 정보사회일수록 주변사람들과 원할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SNS를 통한 각종 위해와 악성 댓글들은 이를 좀 먹는 행위다.

카톡 왕따와 악성 댓글은 일종의 언어적 악행이며 정보사회에서는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보편적 윤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매체를 통한 공격은 직접 상대방을 접촉해 공격하는 것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악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법사, 사이버 법사도 필요하다. 엄지만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사랑이 담긴 동체대비심이 있는 소통, 감화의 방편이 필요하다. 법회 이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고민을 들어줄 열정을 가진 법사와 스님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아힘사 과정으로 정서함양"



권진영 교법사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를 실체라 믿고 나를 따라다니는 눈빛, 목소리라고 느낀다.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자면 배우자와 사별할 때 느끼는 수준의 고통이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정서지능(EQ)이 부족할 때 생겨난다.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 자존감 결여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개발한 아힘사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힘사' 에는 몸(身), 입(口), 뜻(意) 등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담겼다. 방과 후에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학생 개인 감정 코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인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자존감 향상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와 교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탁발을 나간 부처님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주느라 탁발을 포기했던 그런 마음으로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남북통일 기원 하고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초발심으로 재발심하고자 하는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의 불교 최고의 고승 및 지도자들의 하례 법석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하림각 (종로구 부암동 162-3)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고통과 번뇌의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불빛이요, 중생의 지팡이신

한국불교계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님들의 하례식을 봉행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 불교계에 380여 종단이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포교일선에서 땀흘리시는 불교 최고의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언제나 국가적 사회적 행사 및 지방행사 조차 늘 배제되어 온 군소종단의 위상과 힘을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한국 불교 군소 종단의 위상과 현주소를 확인하는 자리가 절실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군소종단 한국불교의 기둥들이신 큰스님들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매년 신년 하례식



도 봉행하고 합동 불교 의식을 통한 상호 교류 및 지원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제각각 흐트러진 모습과 편향된 고집과 독선으로 외로운 종단이 되지 말고 어느 종단이든 서로 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불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 의전 및 자리관계로 미리 확인하고자 하오니
참석여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자체행사
2부 각 종단 지도자들의 인사 소개 및 의견청취
3부 만찬

산하 단체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목탁 대승정 총재 정암 대종사 불원 대종사 혜승 대종사 혜선 대종사 도명 대종사 혜정 대종사 대봉 대종사 성각 대종사



정오 대종사 고산 대종사 구암 대종사 진성 대종사 남륜 대종사 제성 대종사 법혜 대종사 현담 대종사 청운 대종사 (무순)

총재 : 대승정 목탁. 부총재 : 불원 대종사. 정암 대종사

750-871 서울특별시종로구 삼봉로68 청진동 신영빌딩 304호

대표전화 : 02)733-5670. H.P 011-229-6061 팩스 : 02)733-5671

행사문의 기획실장 : 010-4467-9600 하림각 : 02)396-244

본 법인에서 수여된 모든 내각 임명장 및 대종사 품수증은 예비심사 후 수여되었으나 2015년 8월 31일까지 정식 수록된 정본 품수증으로 교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